



온라인에서도
<KTX매거진>을
볼 수 있습니다.



KTX 2023.09



온라인에서도
<KTX매거진>을
볼 수 있습니다.



목포



노래를 부르는 항구도시

02-799-9175
이음고관



울산



태화강에서 장생포까지, 울산 남구 | 이음 프로젝트로 다녀온 부산·남해·해남 | 숲이라는 치료제, 강화 마니산 치유의숲

CONTENTS

2023.09



036 테마 여행 울산

태화강과 장생포를 거느린 고장, 울산 남구를 누볐다. 물길 따라 걸음을 뒀 때마다 눈부신 햇살과 싱그러운 강바람이 온몸을 감쌌다. 계절의 축복이었다. 9월, 이곳을 찾는다면 대숲에서 춤추는 백로와 보랏빛 맥문동 물결을 마주할 수 있다.

h w

오늘날의 자원을
어떻게 미래의 에너지로
바꿀 수 있을까요?

전 세계 지역 사회와 경제가 지속 성장함에 따라 에너지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원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람코는 업계 최고의 탐사 관행, 첨단 모델링 기술 및 컴퓨터 과학을 활용하여 저류층 수율을 극대화했습니다. 아람코는 최첨단 시뮬레이션 기술을 통해 보유 매장량 전체의 생산 효율성을 최적화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람코가 어떻게 미래를 계획하는 동시에 증가하고 있는 전 세계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는지 aramco.com/poweredbyshow에서 알아보세요.

2023.09



010

세계 도시 이야기

미국 네바다주 엘리에서 옛 기관차에 올라 은하수와 특별한 일식을 쫓는 여행을 떠난다.

012

우연한 발견

그 영화가 여성에게 대사를 내주었다. 벡델테스트는 영화에 질문을 던진다.

018

맛집 탐방

명절을 맞아 고향 집처럼 정감 어린 충북 충주의 카페를 찾았다.

058

이 계절 이 여행

호수길을 산책하거나 루지를 타고 내달린다. 두 가지 방법으로 강원도 횡성에서 쉬었다.

064

기차 타고

1897년 자주 개항으로 탄생한 항구도시 목포는 세월을 간직한 채 새로운 오늘을 향해한다.

074

쉬어 가는 여행

오랜 역사가 어린 섬, 인천 강화. 신령한 마니산에서 숲의 처방을 받았다.

084

이색 여행

여행자와 여행지를 잇는 이을 프로젝트를 따라 부산, 경남 남해, 전남 해남으로 간다.

104

여행자의 방

물 좋기로 유명한 충북 충주 수안보면, 오롯한 휴식을 보장하는 온천 호텔에 다녀왔다.



KORAIL INFORMATION

122

코레일 소식

130

편의 시설 및 부가 서비스

132

열차 이용 안내

134

비상시 행동 매뉴얼

<KTX매거진>은 시각장애인과 외국인 인을 위한 '보이스아이'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용 애플리케이션으로 바코드를 스캔하면 글을 읽어 서 들려주며, 60여 개 언어로 번역도 지원합니다. 자동 번역기를 사용하기 에 번역이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품격을
우러러보다.



153 RESPECT
REF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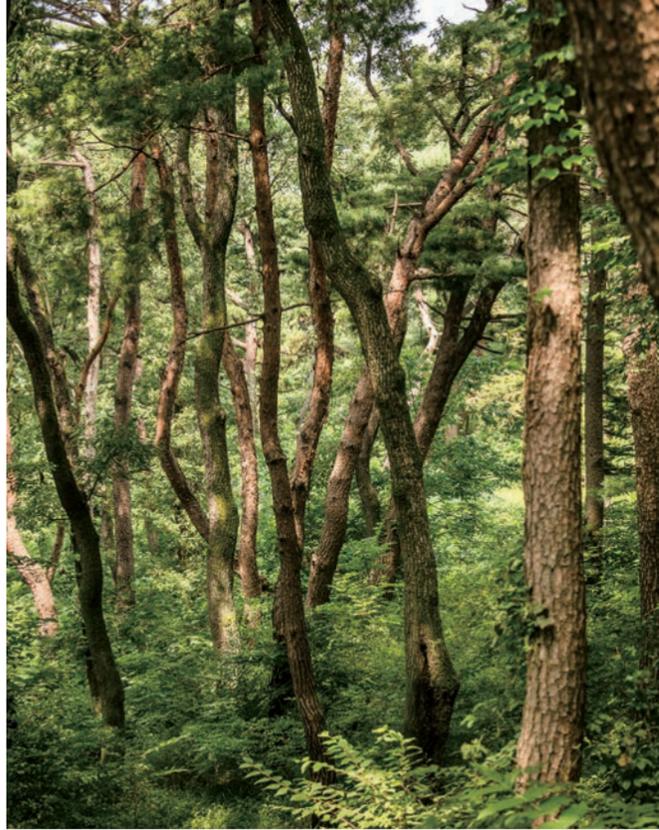
153 리스펙트 리파인



(주)모나미 고객센터 080-022-0153 www.monami.com | 온라인 공식쇼핑몰 www.monamishop.com

monami®

들어가는 글



강화 마니산 치유의숲이에요. 언제나 뛰어난 규철 실장님 사진은 숲의 아름다움을 생생하게 잡아냈네요. 저는 저곳을 문장으로 씁니다. 나무는, 꽃과 풀은, 나비와 새는, 두더지가 지나간 흔적은 활자가 아니니까요. 제가 취재 가서 바라보고 귀 기울이고 향을 맡고, 취재 전과 후 공부하고 생각한 것 가운데 무언가는 문장이 되고 무언가는 문장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불민하여 놓쳤거나, 글 흐름과 분량 때문에 아쉽게도 뺐거나, 말하지 못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세히 보고 특별함을 발견해 문장으로 번역하고 싶어요. 세상에 똑같은 소나무는 없고, 똑같은 숲도 없고, 그렇기에 함께하는 모습이 아름답다고 문장을 남깁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도 마찬가지고요. 나무에서, 사람에게서 문장을 끌어내는 일이 좋아요. 적절한 언어를 찾으려 애쓴 만큼 제 세상이 넓어지고 사랑은 깊어진다 믿어요. 오늘 바라본 가을 하늘은 편지지 같네요.

<KTX매거진> 편집장 김현정

KTX 바로 지금, 여행
SEPTEMBER 2023

2023년 9월호 제20권 제9호 통권 제231호
2023년 9월 1일 발행

발행인 한문희(한국철도공사 사장)

편집

(주)서울문화사 02-3785-0900
서울시 용산구 새창로 221-19

편집인 심정섭

편집장 김현정 kimhj@seoulmedia.co.kr
수석 기자 강은주 unddu@seoulmedia.co.kr
기자 옥송이 ocksong@seoulmedia.co.kr
남혜림 nhr@seoulmedia.co.kr

교열 오미경 번역 박경리

디자인

아트 디렉터 권영주 kyj@seoulmedia.co.kr
디자이너 임보영 lby@seoulmedia.co.kr
객원 디자이너 엄정윤

사진

라이트팩토리(LIGHT FACTORY)
070-4119-3014
디렉터 신규철
실장 이규열 조지영 이철 박정우

광고

팀장 조현익 jony2@seoulmedia.co.kr
부장 심재우 jwshim22@seoulmedia.co.kr
사원 김수연 ktxad@seoulmedia.co.kr

배포 소장 이재우

경영지원실 본부장 정영기

제작팀 팀장 이수행

차장 정승현 **과장** 정수호

기획팀 팀장 임용욱 **차장** 박선주 **사원** 조소연

인쇄 (주)타라티피에스

<KTX매거진>은 KTX와 ITX-새마을, ITX-청춘 열차 내 전 좌석에 비치하는 월간지입니다. 보신 뒤에는 다음 승객을 위해 제 자리에 꽂아 주시기 바랍니다. <KTX매거진>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사전 동의나 허락 없이 무단 도용할 수 없습니다.

문의 편집 02-799-9338 **광고** 02-799-9175



AHILO



사람 중심의 철도 안전 문화를 이끌겠습니다

한문희 한국철도공사 사장

지난 7월, 한문희 신임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취임식에서 “조직의 저력을 끌어올려 안전 향상, 경영 혁신을 이루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철도 이용객을 대표해 그에게 한국 철도의 미래를 물었다.

Q. 1984년 철도청 역무원으로 입사해 행정고시에 합격하셨고, 그 이후로도 지금까지 철도인의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제 11대 한국철도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감회가 남다르실 테지요. <KTX매거진> 독자님께 취임 소회와 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A. 한국철도공사는 120여 년 동안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이끌고, 국민 여러분의 동반자로서 고락을 함께하며 성장했습니다. 저 또한 지금껏 철도와 같이 달려왔지요. 한국 철도의 빛나는 순간 중 하나는 2004년 KTX를 도입하면서 오랜 세월 축적한 기술력과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 정해진 기간 내 개통 작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혁신 유전자를 지닌 조직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이유입니다. 지난해 안타까운 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조직 문화와 제도 전반을 혁신해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Q. 취임 당일 수해 복구 현장을 찾은 것으로 업무를 시작하셨습니다. 취임사에서도 ‘안전’을 최고 가치로 삼겠다는 경영 방침을 천명하셨는데, 고객 안전을 위한 계획을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가요? A. 생명을 지키는 ‘사람 중심의 철도 안전 문화’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노후 설비 투자, IT 신기술 도입도 중요한 과제지만, 근본적으로 철도 현장의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의 직무와 역할을 이해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정확히 수행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모두가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고객님께 편안하고 안전한 철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지요. 저 또한 제 자리에서 한국철도공사가 철도 안전의 표준을 만든다는 마음으로 사고를 철저히 분석해 다양한 변수에 대응하고, 선도 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철도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Q. 지난 3월 KTX 이용객이 9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생활권을 재편하고 여행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KTX가 일상에 미친 영향은 막대합니다. 앞으로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신규 사업이나 서비스 계획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A. 하루 평

“오늘도 코레일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에게 사랑받는 철도, 신뢰받는 철도가 되기 위해 더욱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균 22만 명이 이용하는 KTX는 한국을 대표하는 교통수단입니다. 전국 어디든 KTX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고속철도망을 꾸준히 확대해 수혜 지역을 넓히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연말에는 중부 내륙선 연장과 중앙선 연장 사업을 마무리 짓고, 2025년까지 수원·인천발 KTX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객실 내 5G 서비스 도입 등 이용자 중심의 편의를 확충하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고객의 목소리에 늘 귀 기울이는 것이 서비스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Q. ‘디지털 고객 서비스 혁신’을 예고하기도 했지요. 고객이 기대할 만한 디지털 서비스를 소개해 주세요. A. 자유석 셀프 체크인 서비스를 준비 중입니다. 이 서비스를 개시하면 KTX를 이용해 출퇴근하거나 통학하는 정기간 고객은 애플리케이션 ‘코레일톡’에서 자유석 QR코드를 스캔해 셀프 체크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 수기 검표 방식보다 간편해 많은 분이 이용하시리라 예상합니다. 또 창구에서만 판매해 온 경로석을 코레일톡에서도 판매하도록 개선해 교통 약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스마트한 기술로 따뜻한 서비스를 전하겠습니다.

Q. 철도인으로 약 40년을 살면서 기차 여행을 무수히 하셨겠지요. 가장 기억에 남는 기차 여행은 언제였나요? A. 학창 시절, 한겨울이었습니다. 밤 11시에 출발하는 서울 청량리발 열차를 타고 강원도에 사는 친구를 만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청량리역에서 강릉역까지는 9시간쯤 소요되는 먼 거리였지요. 열차가 한창 동해 쪽으로 달려가던 즈음, 시간을 확인해 보니 이미 이튿날 새벽이더군요.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닿은 눈길은 마치 바다처럼 파랗게 보였는데, 그 장면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습니다. 바다에 놓인 철길을 따라 달리는 기분이었을까요. 지금은 KTX를 타면 서울역에서 강릉역까지 2시간 정도 걸리니, 고속철도처럼 빠르게 흐르는 세월을 체감합니다.

Q. 철도는 대표적인 친환경 교통수단이지요. 탄소 중립 시대, 한국철도공사가 이끄는 지속 가능한 미래의 풍경이 궁금합니다. A. 기차의 탄소 배출량은 자동차의 6분의 1에 불과합니다. 철도를 미래의 핵심 교통수단으로 꼽는 이유입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이러한 시대 흐름에 발맞추어 철도 적합 태양광 기술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방음벽 등 전국 철도 인프라를 활용해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 다시 철도 분야에 활용함으로써 탄소 중립을 실현하리라 기대합니다. ‘2050 탄소 중립 정책’을 이행하고, 이동 혁명을 이루는 여정에 한국철도공사가 앞장서겠습니다.



내 손안에 펼쳐지는 KTX매거진

SNS에 #KTX매거진을 태그해 올려 주세요.



@ktxmagine

선물 받아 가세요!

기차 안 SNS에 선정된 분께는 고농축 풀빅산을 함유해
두피 및 모공 관리에 도움을 주는 탈모 예방 샴푸
'풀빅 헤어 샴푸 & 토닉 세트'를 선물로 보내 드립니다.
두피와 모발 케어에 적합한 약산성 샴푸로
온 가족이 사용하기 좋습니다.

제품 문의 1522-9158

손안에 펼쳐지는 <KTX매거진>

QR코드를 스캔해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로
<KTX매거진>을 만나 보세요!

*당첨자에게는 인스타그램으로 메시지를 드립니다.

KTX는 왜 캐리어를 선택했을까?

시속 350km, 빠르게 달리는 열차는 외부환경과의 마찰열이 커서 더 강력하고 효율적인 냉난방 시스템이 필요하기에!

대형 빌딩 에너지를 절감하는 '어드반텍' 기술, 가장 많은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 보유, 세계 최고의 히트펌프 기술을 가진 캐리어. 캐리어아말로 KTX의 속도를 감당할 수 있는 대한민국 유일의 '에너지 솔루션 파트너'입니다.

글로벌 120년, 에너지 솔루션 캐리어가 4계절 내내 KTX와 함께 달립니다.



에너지효율 1등급 시스템 에어컨

세계 최대급 대용량 고효율 히트펌프 냉난방기

빌딩 에너지 절감 에너지 솔루션 어드반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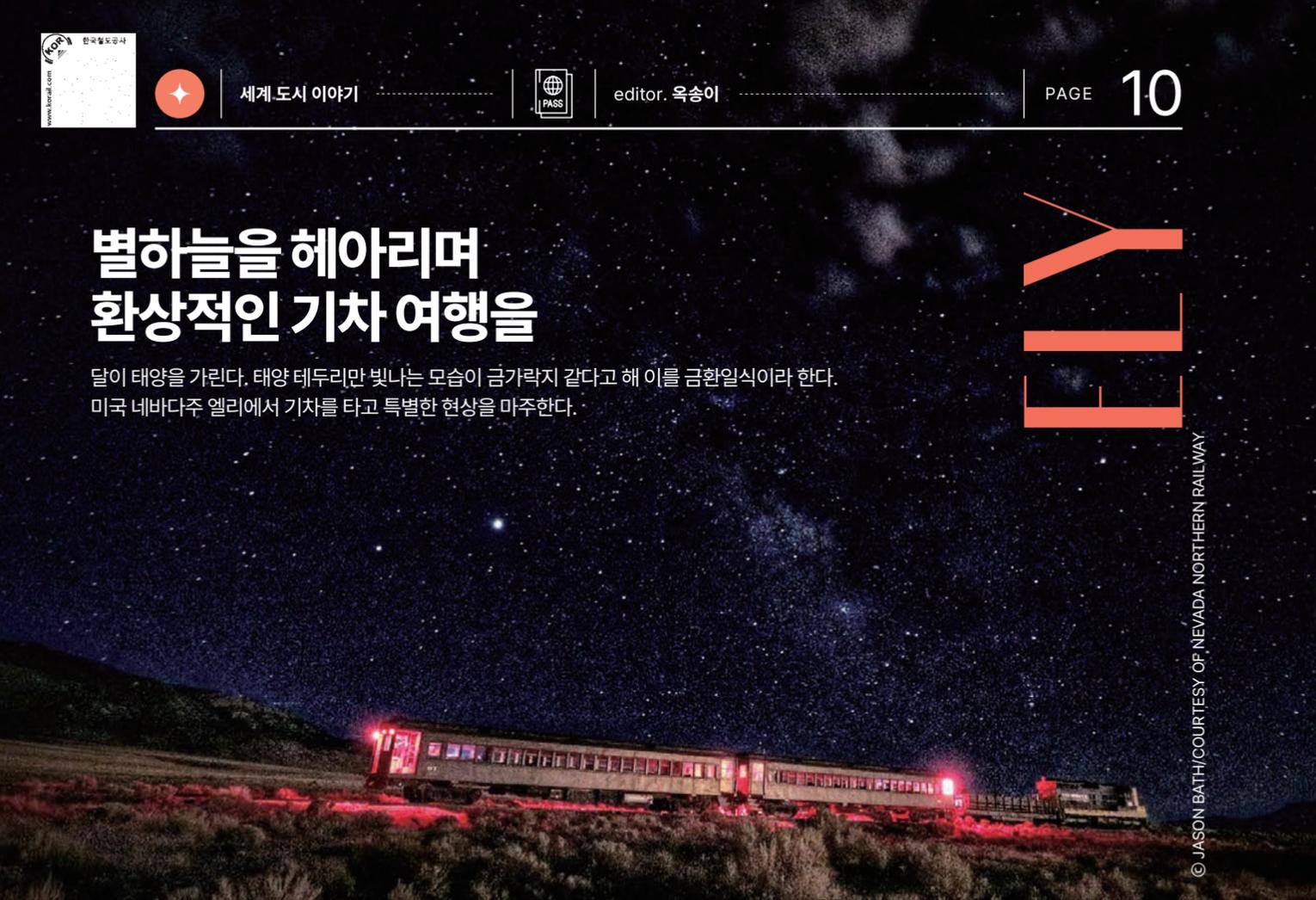
최대 65% 에너지 절감 고온수 히트펌프 보일러

별하늘을 헤아리며 환상적인 기차 여행을

달이 태양을 가린다. 태양 테두리만 빛나는 모습이 금가락지 같다고 해 이를 금환일식이라 한다. 미국 네바다주 엘리에서 기차를 타고 특별한 현상을 마주한다.



© JASON BATH/COURTESY OF NEVADA NORTHERN RAILWAY.



엘리는 19세기 중반 은광이 발견된 이후 광산업 도시로 발달했다. 광물을 나르기 위해 기차를 이용했는데, 지금은 기차가 관광의 중심이 되었다. 엘리 철도 박물관은 열차 애호가들이 사랑하는 공간이다. 오리지널 증기기관차를 만날 수 있어서다.
네바다 북부 철도 nnry.com

기차 여행이 낭만적인 이유는 시시각각 바뀌는 풍경에 있다. 기차는 철로 위를 달리며 빌딩과 건물, 마을과 집을 지나치고 때로는 강이나 바다를 경유하기도 한다. 이렇게 차창 밖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일상의 시름을 잊는다. 미국 네바다주의 엘리는 기차 여행에 적합한 도시다. 아름다운 자연은 물론, 옛 기관차를 타고 다채로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10월 14일 엘리에서는 여행자에게 색다른 체험을 안길 기차가 기다린다. 1909년 제작한 증기기관차를 비롯해 여러 옛 기관차를 현재까지 운행하는 네바다 북부 철도의 일식(日蝕) 열차다. 여정이 시작되기 전부터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다. 영화에서나 볼 법한 육중한 기차가 여행자를 맞는다. 이른 아침 엘리에서 출발한 이 기차는 남쪽 키스톤으로 향한다. 이제 특수 안경을 낀 차려. 눈부신 태양을 바라보아도 안전한 일식 관측용 안경이다. 하늘에 금빛 고리가 어른거린다. 일시적으로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가 멀어지고,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달이 태양보다 조금 작아 보이는 현상이 일어난다. 이때 달이 태양의 테두리를 마저 다 가리지 못해 '금가락지'가 나타난다. 단 3분 29초의 짧은 시간이지만, 너무나 특별해서 영원처럼 느껴진다.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을 눈에 담고, 또 가슴에 새긴다.

1859년 은광이 발견된 이후 '실버 스테이트'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이 도시에서 은 말고도 반짝이는 것이 있다. 아름다운 밤하늘이다. 그레이트베이슨 국립공원은 지난 2016년 국제밤하늘공원으로 지정됐다. 네바다 북부 철도가 운행하는 스타 트레인에 오르면 이 공원의 밤하늘을 기차에서 감상할 수 있다. 엘리에서 오후 7시 15분에 출발하는 기차는 인공조명이 없어 어스름한 철로를 달린다. 해가 지고 난 뒤 망원경으로 별을 관측한다. 그야말로 별 헤는 기차 여행이다. 날씨가 청명한 날에는 은하수도 만난다. 별하늘을 바라보는 이 순간, 역시 행복은 별것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1

“역시 서울우유~”



제조일자 신선함의 기준입니다

우유는 목장에서 갓 나와야 신선합니다 갓 나온 우유인지는 제조일자로 확인하세요!

그 영화, 여성도 말을 하나요?

여성 두 명이 등장해 서로 대화하는 장면. 벡델테스트는 이토록 사소하고 평범한 장면을 영화에 넣었는지 묻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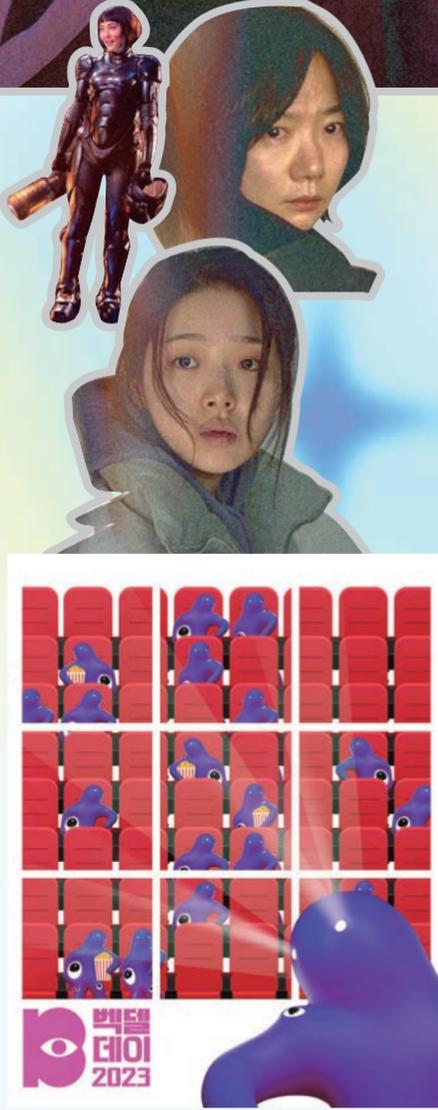


남성 둘이 극장에 가는 길, 어떤 영화를 볼지 의견을 나눈다. "적어도 남성이 두 명은 나오는 거." "그 두 명이 서로 얘기를 하되, 여자 얘기는 아니어야 하고." 남성 캐릭터가 두 명 이상 등장하고 그 남성끼리 여성 외의 소재로 대화하는 영화를 찾다니, 가우똥하다. 웬만한 영화는 다 그러니까. 사실 이는 미국 만화가 앨리슨 벡델이 1985년에 그린 만화 에피소드의 성별을 반전한 상황이다. 여성 둘이 출연해서 남자가 아닌 다른 주제로 대사를 하는가 묻는 '하찮은' 기준 앞에 수많은 영화가 낙제를 면치 못했다. 여성은 누구 엄마나 아내,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 또는 범죄 피해자였으며, 여성 사이에 유의미한 대사가 오가는 장면은 매우 드물었다.

문에 부모를 잃고 군인이 되어 초대형 로봇 조종사로 성장해 가는 인물이다. '여성 캐릭터가 적어도 한 명은 등장하는가' '그에게 자기만의 이야기가 있는가' '그 이야기가 남성 캐릭터를 뒷받침하는 것은 아닌가' 라는 질문이 마코모리테스트 항목이다. 엘런윌리스 테스트에서는 캐릭터의 성별을 바꿔도 영화 전개가 어색하지 않은가를 본다. 모성, 연약함 같은 고정관념을 벗어나 여성 캐릭터에게 독립된 서사를 부여해야 통과하는 테스트다. 영화가 현실을 반영한다고 흔히 말하지만, 영화 속 세계는 여성이 위축된 채 남성 위주로만 돌아가는 기울어진 세계다. 지금도 80억 인구만큼 다양한 희로애락이 지구를 웃음과 눈물로 채우고 있다. 더 좋은 작품을 고민하는 감독과 작가, 제작자에게 여성을 제대로 들여다보는 일이야말로 새로운 블루오션의 문을 여는 열쇠라 하겠다. '위안부' 피해자의 씩씩하고도 감동적인 이야기 <아이 캔 스피크>처럼, 해녀들의 해양 범죄 활극 <밀수>처럼. **K**

벡델의 만화에서는 1979년 작 <에일리언>이 그 기준을 통과한 마지막 영화였다고 자조하듯 언급하는데, 1000만 이상 관객을 동원한 한국 영화 21편을 살펴도 <괴물> <암살> 등 7편만 살아남는다. 지난해 흥행 30위권 작품의 통과율은 불과 35.7퍼센트. 그 많은 영화에서 여성끼리 한 번도 대화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남성 일색이거나, 여성이 있더라도 주변부에 배치하는 포스터가 이런 현실을 반영한다. 물론 벡델테스트는 최소일 뿐 완벽한 기준이라 할 수 없다. 여성 우주 비행사가 주인공인 <그래비티>는 혼자 이끌어가는 영화라 테스트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벡델테스트의 한계를 인식해 고안한 것이 마코모리테스트, 엘런윌리스테스트다. 마코모리테스트는 <퍼시픽 림>의 여성 캐릭터 마코 모리에 게서 유래했다. 그는 어린 시절 우주 괴수의 습격 때

2020년 시작한 벡델데이는 한국 영화 영상 미디어의 양성평등을 돌아보는 행사다. 벡델데이2023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개봉·공개한 한국 영화와 시리즈 가운데 성평등의 가치를 보여 주는 각 10편을 선정하고, 서울 인디스페이스에서 일부 작품을 상영한다. 기간 9월 1일~3일 문의 @bechdelday



장생포



808번 관광수소버스 타고

원스톱 울산남구여행



11월 태화강 까마귀 군무



오색수국정원



장생포 아경

- 회차: 철세홍보관
- 회차: 삼호대수
- 회차: 태화강 동굴피아
- 회차: 태화강 국가정원
- 회차: 신정시장
- 회차: 삼산동 호텔·쇼핑거리
- 회차: 태화강역
- 회차: 장생포 고래박물관
- 회차: 장생포



향긋한 바나나 푸딩과 빵의 달콤한 조화

CU 코코리카라 바나나 브레드푸딩 3.2점

남해림 편의점 디저트가 여기까지 왔네요. 우유 맛이 진한 크림, 그 아래 폭신한 빵과 바나나 푸레가 정말이지 환상적입니다. 체험기에서 이런 표현은 처음 써 봐요. 강력 추천합니다. ★★★★★ / 옥송이 만화 <검정 고무신>에서 바나나를 처음 맛본 기영이의 말이 생각난다. "부드럽고~ 말랑말랑하고~" 여기에 "달콤하고~"까지 붙이고 싶다. 바나나 향 크림과 빵이 미소를 부른다. 당도는 두 머치. ★★★★★ / 강은주 바나나 푸딩의 정석인 매그놀리아 제품에 익숙해서일까, 묵직하고 파근파근하게 느껴진다. 은은한 풍미가 나쁘진 않은데, 양이 너무 많아서 먹다 지치는 기분. ★★★ / 김현정 올해 내 입에 들어간 모든 음식 가운데 가장 달다. 세상에 이만큼 단 음식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 망연해졌다. 180그램 푸딩에 당류가 43그램. 디저트가 원래 이런 거죠... 잘못 먹어서 죄송합니다. ★

2.5점 GS25. 빌로우 크림캐놀레 오리지널

남해림 한동안 캐놀레의 매력에 빠져 빵집과 카페를 전전했습니다. 이젠 그럴 필요가 없겠네요. 겉은 바삭, 속은 쫄득해 캐놀레의 정석이라 할 만합니다. ★★★★★ / 옥송이 허, 좀 하는데? 향도 제법 카페에서 구운 캐놀레 같다. 당도도 딱 기분 좋아지는 정도다. 이 녀석, 마음에 든다. 다만, 전문점의 캐놀레와는 다르다. 파삭 쫄득 아니고, 쫄깃쫄깃에 더 가깝다. 그래도 카페에서 캐놀레 한 개 살 가격에 두 개를 먹을 수 있으니 가성비가 괜찮다. 한 번씩 사 먹어야지. ★★★ / 강은주 캐놀레를 좋아해서 이미 반쯤 열린 마음으로 시식했는데... 가운데 들어간 크림과 찰떡 파이처럼 쫄득쫄득한 질감은 끝내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 / 김현정 60그램 제품에 당류가 15그램. 연속해서 정신이 혼미해진다. 바나나 브레드푸딩보다 양이 적다는 점이 미덕. 디저트를 모르는 사람이라 거뜰 죄송해요... ★



편의점에서 만난 바삭 쫄득 프랑스 전통 과자

쓸모 있는 고품질 편의점 디저트

날로 다양하고 화려해지는 편의점 간식을 맛본다.



프랑스와 한국 간식의 색다른 컬러베이션

이마트24_크롱지 3.1점

남해림 크루아상과 누룽지의 조합! 크루아상을 누룽지처럼 납작하게 만들어 붙은 이름이죠. 적당히 달달하고 고소해 아침 식사 대용으로 좋을 듯해요. ★★★ / 옥송이 한 입에 파삭, 그 뒤에는 진한 버터 향이 올라온다(음식에서 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1인이기에, 향기에 점수 5점 드립니다). 크롱지는 처음 먹어봤지만 상상한 것과 같다. 아니, 더 맛있다. 끝까지 바삭바삭하고, 먹을수록 고소하다. 게다가 적당히 달아서 좋다. ★★★★★ / 강은주 기미'감이 드는 이 맛, 월까. 곰곰이 생각한 끝에 알아냈다. 버터와풀이다. 조금 과하다 싶을 만큼 농밀한 버터 향이 진한 커피와 제법 괜찮은 궁합을 이룬다. ★★☆ / 김현정 크루아상 맛있죠~ 누룽지도 진짜 맛있죠~ 저는 본연의 크루아상과 누룽지를 따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크루아상은 겹겹이 바삭한 식감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

2.6점 GS25. 행운약과 도넛

남해림 약과를 선호하지 않아 약과 열풍에 무심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줄 알았으면 진작 유행에 탑승할걸ㅠㅠ 하지만 너무 기뻐요! 조금만 담백해지길. ★★ / 옥송이 문득 백종원 선생의 말을 따라 하고 싶어진다. "맛이 재미있쥬?" 네~ 재미있어요. 도넛이 맞는데, 훨씬 무겁고 약과 맛이 은은하게 퍼진다. 그래서 결론은 맛있다 이거예요. 약과도 도넛도 좋아하는 나에게는 천국의 맛. ★★★★★ / 강은주 생김새가 미주라 통밀 도넛과 매우 흡사해, 잠시 이것이 약과란 사실을 망각했다. 아, 다디달다. 알싸한 계피 향이 단맛을 적당히 눌러 주지만, 역부족이다. ★★ / 김현정 자주 숫자 따져서 또 죄송합니다. 70그램 약과에 당류 20그램이 들어갔대요. 이 정도는 넣어야 사람들이 만족하는 걸까요? 단맛이 다른 맛을 가리는 느낌. 조화로운 맛을 가진 디저트는 뭐가 있는지 궁금해요. ★☆



약과의 변주는 계속된다. 이젠 도넛까지

문근 105*

여행어플이 망
대구에서 딱 하나
대구트립만 있으면 되
없어



- #맛집 #카페 #투어_엑티비티 #패스 #숙박
- #길안내 #추천코스 #할인쿠폰 #이_모든걸_하나의_어플에서!





하루 동안 정원을 바라보며 머무는 곳이라는 의미를 갖는 유원재 수안보가 품은 아름다운 풍경과 심신에 마사함을 더하는 온천. 진정성이 담긴 공간적 체험을 통해 도심에서 느낄 수 없는 온전한 물입의 휴식을 선사합니다.



공주는 언제나 달콤해

충남 공주의 색깔과 매력을 가득 담은 기념품을 모았다. 귀엽고 먹음직한 데다 특이하기까지 하다.

공주

1 쿿즈

(착한마녀상회) '고마곰'과 '공주' 굿즈 이 도시를 추억할 물건을 찾는 자는 제민천으로 가자. 공주시 마스코트 '고마곰'과 '공주'가 그려진 생활용품이나 문구 등이 즐비하다. 공산성 수문병 교대식을 형상화한 아크릴 스탠드는 책상 위를 든든하게 지켜 줄 듯하고, '고마곰 네임택'을 가방에 달면 멀리서도 눈에 띄는 고마곰 덕에 짐 잃어버릴 걱정을 덜겠다. 문의 @w.witch0404



2 슌

(석장리미더리) 졸인 꿀술 꿀술 '미드'는 기원전부터 마셨으며, 벌집에 물이 차 발효된 것이 그 시작이다. 소규모 양조장 석장리미더리는 그 미드를 직접 빚는다. 오직 꿀과 공주산 배즙만 넣어 달콤함이 배로 느껴진다. 여기에 체리와 비트, 라즈베리를 더해 빛깔이 와인을 닮은 '쥬즈'도 한 번 맛보면 잊지 못하고 찾는 단골손님이 많다. 문의 @seokjangrimeadery



3 빵

(베이커리 밤마을) 밤 에클레르 밤을 활용해 빵을 구워 내는 베이커리 밤마을의 스테디셀러다. 프랑스 디저트 에클레르에 부드러운 밤 슈크림을 가득 채운 것인데, 주문 즉시 파이 안에 크림을 꽉 채워 준다. 한 입 물자 신선한 슈크림이 순식간에 입안을 행복으로 채운다. 가게가 공산성 바로 앞에 위치해 입장하기 전 요기하기 그만이다. 문의 041-853-3489



(산성시장협동조합) 아이스 흑임자밤찰떡 쫄깃쫄깃한 찰떡 안에 달콤한 크림, 흑임자, 찐 밤을 알알이 채운 디저트다. 흑임자도 고소한데 맛있기로 소문난 공주 밤까지 넣었으니, 궁극의 간식이라 할 만하다. 공주 농업인과 상인들이 직접 개발해 더욱 뜻깊다. 열려 먹는 방법이 정식이지만 상온에서 30분 이상 해동해 즐겨도 좋다. 문의 041-881-1511



© 신구권

놀러 오세요, 충주 옛집

명절을 맞아 고향 집처럼
고즈넉한 멋으로 여행자를 맞이하는
충북 충주의 카페를 모았다.



忠州



커피상점 교동

☞ 썩쓰러떼 5000원 미니 참쌀떡(2개) 1500원
☞ 충주시 교동3길 9-2 @coffeestore_gyodong

커피상점 교동 교현초등학교 후문 근처, 멋들어진 집이 발길을 잡아 끈다. '교동'이라 적힌 팻말을 뒤로하고 홀린 듯 안으로 들어간다. 충주 토박이인 전새봄 대표는 오래전부터 한옥 카페를 차리겠다는 꿈을 키웠다. 그러다 운명처럼 노부부가 내어 놓은 집을 발견했고, 1960년대에 지은 주택은 전 대표의 손길 아래 아늑한 카페로 변신한다. 건물부터 애정이 듬뿍 담긴 곳이니 음료를 기대하지 않을 수 없다. 주문할 때 웃음이 나는 메뉴 '썩쓰러떼'는 썩을 말린 후 곱게 빻은 가루와 우유, 꿀 오직 세 가지만 배합한 라테다. 고소한 우유와 특유의 썩 향이 어우러져 맛의 새로운 차원을 연다. 많이 달지 않은 데다 담백해 건강해지는 느낌이 든다. 고소한 라테와 찰떡궁합인 주전부리는 미니 참쌀떡. 동글동글한 생김새가 귀여운데, 속도 팔 앙금으로 딱 차 호감이다. 연유를 첨가해 달콤함이 배로 느껴지는 '엄마커피'도 스테디셀러다. 특이하고 재미난 메뉴 이름에서 손님에게 웃음을 주기 위해 고민한 흔적이 보인다. 다정함이 녹아든 차 한 잔으로 마음까지 따뜻해진다.



TRAVEL TIP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충주에서 여유를 즐긴다. 통일신라 시대부터 고고히 자리를 지켜 온 탐평리 칠층석탑을 중앙탐사적공원에서 마주하고, 삼국시대의 약사 우루이 가 야금을 탔다는 탄금대의 잔잔한 풍경을 감상한다. 충주호 종댕이길에서 자연과 교감하다가 왕이 노닐었다는 수주팔봉으로 향한다. 조선 시대에도 명성이 자자했던 수안보 온천에서 여독을 푸는 것으로 마무리하니, 이 고장과 금세 사랑에 빠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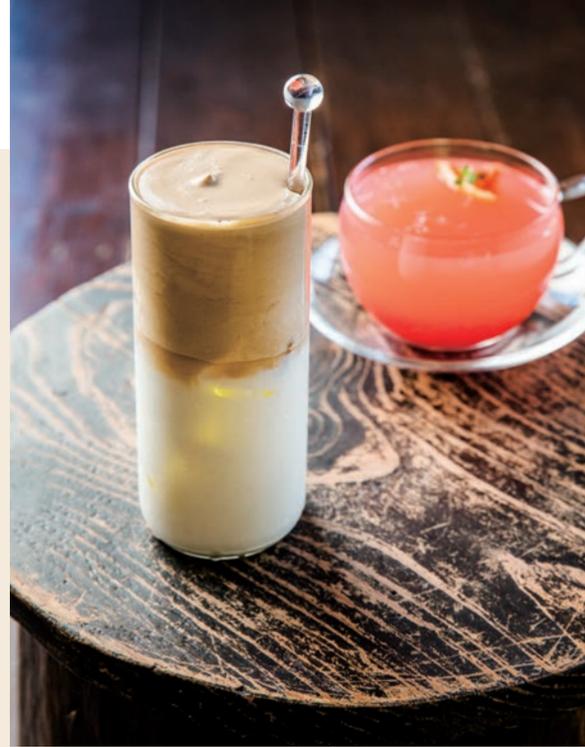


마당에 놓인 화분, 낡은 서랍장 등은 주인장 가족의 소장품이다. 손때 묻은 소품이 더욱 친근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구옥, 날다



☞ 구옥달콤라테 6800원 커스터드푸딩 4500원
 ☞ 충주시 충주호수로 1016-10 @guok_nalda



구옥, 날다 계명산이 뒤를 든든히 지키고, 앞은 옥빛 충주호가 잔잔하니 명당이라 불려도 손색없을 곳에 커피 향이 은은하다. 김세나 대표는 처음부터 카페 운영을 꿈꾸지는 않았다. 회원이던 시절, 점심시간에 한 잔씩 마시던 인스턴트커피가 서서히 커피의 세계로 이끌었다. 여러 종류의 커피를 섭렵하다 원두에 따라 맛이 달라진다는 걸 알았다. 다음엔 무궁무진한 커피의 세계가 궁금했다. “좋아하는 것을 좇아 달렸을 뿐인데, 어느새 구옥에서 매일 커피 내리는 삶을 살고 있네요.” 수줍게 웃으며 김 대표가 추천한 메뉴는 ‘구옥, 날다’의 시그너처인 ‘구옥달콤라테’. 우유와 에스프레소, 생크림을 조합한 라테다. 구성이 간단하다고 알보면 서운하다. 생크림에 특제 버터 소스를 섞어 풍미를 살린 데다 적당히 달아서 물리지 않는다. 커피를 못 마시는 이를 위한 음료도 다채롭다. 특히 이곳에 이드 메뉴에 들어가는 과일청은 모두 김 대표가 손수 담근다. 그뿐이라, 디저트도 훌륭하다. 껌직한 모양의 커스터드푸딩은 달걀노른자와 생크림, 우유, 젤라틴을 조합해 만든다. 입에 넣자마자 정말 사르르 녹는다. 이곳 디저트와 함께라면 1일 n커피, 도전할 만하다.

목재를 주로 사용해
 꾸민 내부가 감성을
 몽글몽글하게
 한다. 본래 공예
 작업실이었으나 커피
 향기를 품은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SONO
HOTELS & RESORTS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에 위치한 [솔비치 삼척]

3,000만원대 스위트 선착순 한정 모집 중!!

글로벌 리딩 컴퍼니로 도약하는 대명리조트의 새이름

2023년 소노호텔앤리조트 신규회원 모집

글로벌 체인 리조트로 나선 소노호텔앤리조트에서 가족과 연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스위트 타입 분양 상품을 한정 모집**한다. 스위트 타입의 신규 상품은 임회금 일시불 납부 시 분양가 할인 혜택과 회원 앞으로 즉시 100% 반환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직후 바로 회원 자격을 가질 수 있다. 이번 상품은 신규혜택을 회원의 취향에 맞추어 퍼스널라이징 할 수 있어 많은 고객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소노호텔앤리조트에서는 타업체와 차별화된 정확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레저컨설턴트들이 존재한다. 소노호텔앤리조트 이용 시 불편함이나 번거로움이 없도록 각 회원의 담당자가 배정되어 최초 계약에서부터 예약관리까지 철저하게 1:1 회원 전담으로 관리를 받을 수 있으며, 회원이 만족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다.

신규혜택 중 종합 혜택 선택시 전국 16곳의 소노호텔앤리조트를 2년동안 객실을 회원요금의 최대 50%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회원이 직접 선택하여 받을 수 있으며, 오션월드, 승마, 골프, 스키 등 소노호텔앤리조트의 레저와 스포츠 시설을 신규 회원권 하나로 무료 및 할인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다. 더불어 개인 및 법인 명의로도 분양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가세 환급 및 손비처리 가능성이 가능하고 직원 복지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소노호텔앤리조트측은 “회원권 구입 후 사용하면서 성수기 리조트 예약이나 다양한 편의 시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때문에 꾸준히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고 전했고 소노호텔앤리조트 회원권의 가치는 ‘지속적인 개발과 인수 사업’으로 **2021년 10월 소노펠리체 델피노가 그랜드 오픈**했으며, 브레이크힐스 남해 등이 개발중이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원하는 고객에게는 분양안내 자료와 카탈로그를 배송한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는 고객에게는 이번 신규회원 모집에 대한 분양 카탈로그를 배송해드립니다.
 통화가 어려우실 경우, 문자 메시지로 성함 및 주소를 보내주세요. **H.P 010-4140-6540**

문의전화 **02)2222.5917**
 (주말 및 24시간 상담가능)



아외에서도 차를 마실 수 있다. 화분으로 변모한 지게, 웅기종기 모인 장독대 등 주변을 둘러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우물 있는 정원 나무 대문을 밀자 각종 화분과 장독대로 꾸민 소담한 정원이 가장 먼저 손님을 맞는다. 가게 이름처럼 정원 한편에는 정겨운 우물이 자리를 꿰찼다. 사이사이 잔디가 깔린 돌바닥을 따라 건물 가까이 다가간다. 겉은 아기자기한 한옥 같지만 낮에는 카페, 밤에는 펍으로 탈바꿈하는 팔색조 같은 곳이다. 서까래와 창호문 등 한옥의 특징을 살린 내부에서 동네 주민이 담소 나누는 모습을 보니, 지현동 사랑방 역할도 도맡는 듯하다. 주인장이 오븐에 빵을 데우며 운을 뚫는다. "80년이 넘는 건물이에요. 정원의 우물도 그때부터 있었죠. 지금도 때에 따라 물 높이가 왔다 갔다 해요." 곧 고소한 냄새와 함께 갈릭치즈브레드가 나온다. 달콤하고 짭조름한 빵은 탄산수에 수제 자몽청을 섞어 만든 자몽에이드와 합이 그만이다. 이번엔 예스러운 분위기에 어울리는 수제 대추차를 주문한다. 주인장이 정성으로 졸인 대추고기가 들어가는데, 동동 떠다니는 호박씨와 해바라기 씨, 잣 덕에 고소함이 배가된다.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느릿하게 차와 빵을 맛보며 이 정원에 내릴 밤을 기다린다.

☞ 수제 대추차 6000원 자몽에이드 5500원 갈릭치즈브레드 6000원
 📍 충주시 지현천변1길 33-8 ☎ 043-856-1333

아메리칸 전역



VISIT KOREA YEAR 2023-2024

RIDE THE KOREAN WAVE

K-컬처 관광이벤트 100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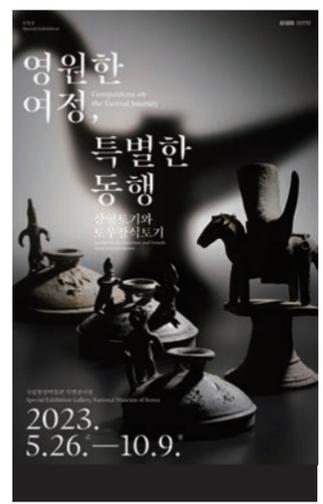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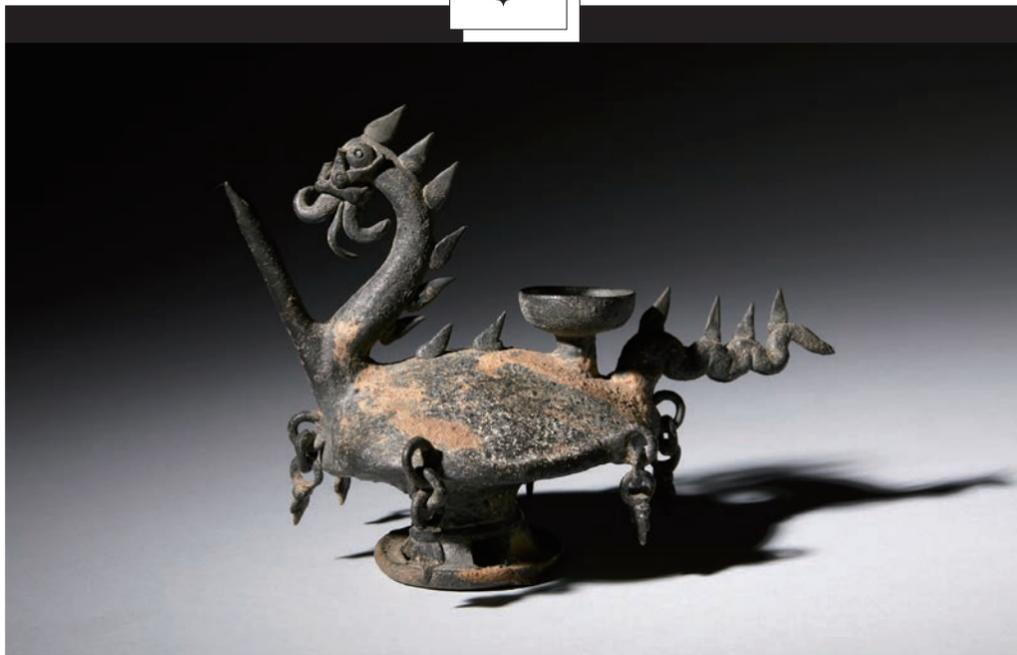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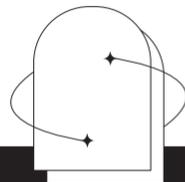
K-컬처의 100가지 즐거움이 터진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KOREA TOURISM ORGANIZATION

365일 색다르게 다가오는 한국의 매력, 직접 느껴보세요!

what's up



• EXHIBIT •

<영원한 여정, 특별한 동행>

서울 05.26~10.09

다양한 형태의 토기로 한국 고대 장송 의례를 엿본다. 전시는 무덤에서 발굴한 상형 토기와 토우 장식 토기를 조명한다. 국보와 보물 15점을 포함해 인물, 동물, 사물을 본떠 만든 토기 332점이 관람객 앞에 선다. 이 중 97점은 일제강점기 경주 황남동에서 수습했는데, 접합 복원해 이번에 최초 공개한다. 죽은 이와 사후 세계를 잇는 역할을 한 토기들을 살펴보고 고대 사회의 모습을 상상해 본다.

장소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문의 1688-0361

특별전
Special Exhibition

영원한 여정,

Companions on the Eternal Journey

특별한 동행

상형토기와 토우장식토기
Earthenware Figurines and Vessels from Ancient Korea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시실
Special Exhibition Gallery, National Museum of Korea

2023.
5.26. — 10.9.



what's up



• FESTIVAL •

2023 대백제전

→ 공주 09.23~10.09

공주의 낮과 밤을 화려하게 꾸밀 축제가 돌아왔다. 올해는 '대백제, 세계와 통하다'를 주제로 17일 동안 성대하게 열린다. 프로그램 중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백제 무령왕의 일대기를 담은 창작 뮤지컬 <무령대왕>과 공주 시민이 주도한 퍼레이드 '백제 흥 나라'다. 금강 위에 다양한 등불을 띄워 환할한 풍경을 자아내는 '금강 비추어 나아가다'도 백미다.

장소 충남 공주 금강산관광원 일원 문의 041-840-3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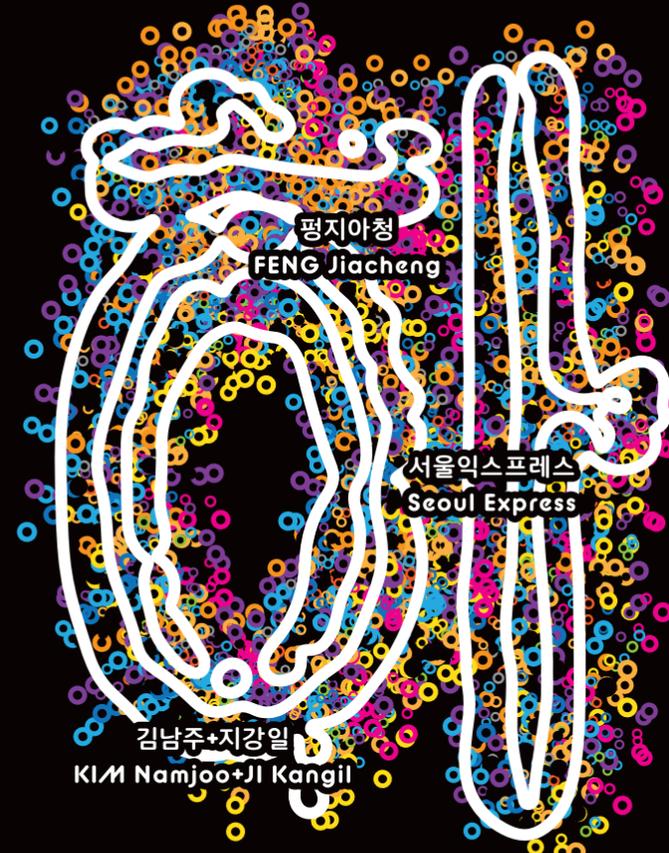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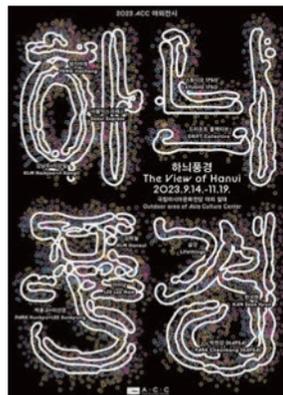
• EXHIBIT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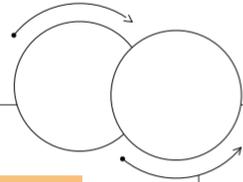
<하늬풍경>

→ 광주 09.14~1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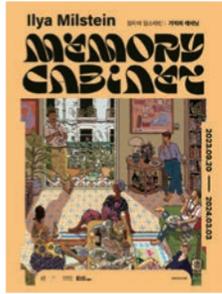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야외 공간이 새로운 풍경을 덧입는다. 이이남, 박천강 등 한국, 일본, 중국 작가 열한 명(팀)을 초대해 소방 도로와 하늘마당 미디어 큐브의 미디어 파사드 작품과 함께 설치·영상·조각 작품을 소개한다. 자연재해, 이상기후 등 눈앞에 당면한 환경문제를 돌아보고, 이에 관심을 갖자는 의미를 담았다.

장소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하늘마당 외 문의 1899-5566





what's up



• EXHIBIT •

<일리아 밀스타인: 기억의 캐비닛>

서울 09.20~2024.03.03

이탈리아 일러스트레이터 일리아 밀스타인의 작품을 총망라하는 전시다. 그는 일상에 존재하는 작은 물건을 통해 세상을 읽는다. 인형의 발에 걸린 발찌, 보도블록 틈에 핀 잡초, 책 사이에 끼운 책갈피 등 일상적이고 소소한 것들에 집중해 그림으로 생생하게 표현한다.

장소 서울 마야아트뮤지엄
문의 02-567-8878



• FESTIVAL •

2023 남구강변영화제

울산 09.01~02

바람이 술술 부는 태화강에서 시원한 맥주와 함께 영화를 감상한다. 화려한 불꽃 쇼가 영화제의 막을 열고, 하룻밤 사이 톱스타와 매니저의 인생이 바뀌는 코미디 영화 <스위치>를 개막작으로 선보인다. <극장판 도라에몽: 진구와 하늘의 유토피아>가 배턴을 이어받고, 둘째 날엔 <인생은 아름다워> <몬스터 패밀리 2>를 상영한다.

장소 울산 태화강 둔치
문의 052-226-5415



• SHOW •

<합★체>

서울 09.14~17

또래보다 키가 작아 놀림을 받는 쌍둥이 형제 합과 체. 그들은 계룡산에서 도를 닦았다는 계도사에게 키가 커지는 비법을 듣고 수련하러 떠난다. 박지리 작가의 동명 소설을 무대화한 것으로, 장애인 아버지와 비장애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쌍둥이의 성장담을 그린 배리어프리 공연이다.

장소 서울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문의 02-2280-4114



• FESTIVAL •

제18회 시흥갯골축제

시흥 09.22~24

내만갯골에 위치한 시흥갯골생태공원에서 생태축제가 펼쳐진다. 옛 염전 터와 습지가 어우러진 환경에서 쉬고, 관찰하며 즐기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특히 소금 놀이터에서는 염전 체험을 진행한다. 생태공원을 보호하기 위해 차 없는 축제로 운영하는 등 자연 보존에도 힘을 쏟았다.

장소 경기도 시흥갯골생태공원
문의 031-380-5681



• SHOW •

<더 데빌: 에덴>

서울 09.21~11.26

독일 작가 괴테의 <파우스트>를 모티프로 한 뮤지컬 <더 데빌: 파우스트>의 후속작으로, 작품 배경은 21세기 미국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다. 바이러스와 백신이라는 소재를 두고 방황하는 인간 에덴과 그의 양심을 의인화한 레브가 등장해 극을 이끈다.

장소 서울 유니플렉스
문의 1577-3363

* <KTX매거진> 인스타그램을 방문해 독자 초대 이벤트 정보를 확인하세요! (9월 6일~12일)

2023 달성 대구현대미술제

다양성 多樣性과 공존 共存
동시대 예술의 미학적 비전

DALSEONG DAEGU CONTEMPORARY ART FESTIVAL

09.15 - 10.15

강정보 디아크 광장 및 내부 전시장



053.668.4243
www.dalseongart.com

주최 | 달성군

주관 | 달성문화재단

후원 | K water

달성 100대 피아노 DALSEONG 100 PIANO

2023.9.23.Sat-24.Sun 19:00
사문진 상설야외공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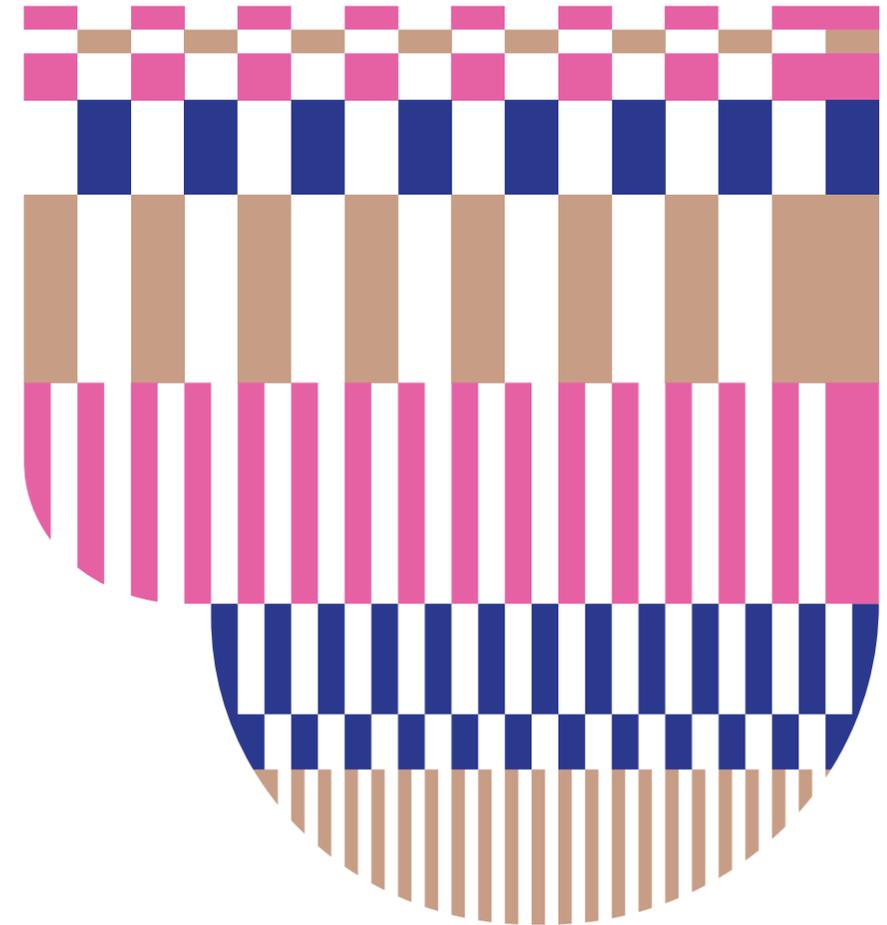
예술감독 김정원

9.23.Sat
피아니스트 김정원
고상지 퀸텟
가수 정인×기타리스트 조정치
가수 조성모
소프라노 김정아

9.24.Sun
피아니스트 김정원, 박상욱, 박종해, 허재원
피아니스트 96인
크로스오버 그룹 포레스탈라
첼리스트 홍진호
대구시티발레단

지휘자 정현
CM심포니오케스트라

문의 053-668-4251



행복 달성 축제 여행

대구 달성군의 두 축제, '달성 100대 피아노'와 '달성 대구현대미술제'를 즐기며 계절을 탐미한다.
올가을, 우리의 여행 목적지는 달성이다.

ART



MUSIC





MUSIC

피아노처럼 황홀한 사문진의 밤, 2023 달성 100대 피아노

1900년 3월, 대구 달성군 사문진 포구에 낯선 수입품 하나가 흘러들었다. 바위처럼 커다랗고 무거우며 이상하고도 아름다운 소리를 자아내는 이 물건 이름은 피아노. 인부 수십 명이 달려붙어 소달구지로 겨우 옮겼다고 한다. 전례 없던 새로운 음악이, 예술의 가능성이 이 땅에 뿌리내린 순간이다. 지역의 정체성과 역사를 계승하는 문화 예술 축제 '2023 달성 100대 피아노'가 9월 23일과 24일 이틀간 사문진 상설야외공연장에서 열린다. 달성문화재단이 주관하고 대구광역시와 아마하 뮤직 코리아(주)에서 후원하는 축제로, 한국을 대표하는 여러 아티스트가 참여해 사문진의 가을밤을 황홀한 선율로 적신다.

귀를 활짝 열고 떠나는 이틀간의 음악 여행

남다른 해석과 기획력으로 클래식 음악을 널리 알려 온 피아니스트 김정원이 이번 축제를 이끄는 예술감독으로 나선다. 축제 첫날은 김정원의 피아노 협연과 솔로 연주로 문을 연다. 이와 더불어 독보적인 음색을 지닌 소프라노 김정아의 가곡과 오페라 아리아, 반도네온 연주자 고상지를 구심점으로 한 고상지 콰텟의 매력적인 탱고 넘버, 가수 조성모와 정인의 감미로운 목소리가 귀를 사로잡는다.

100인의 피아니스트가 동시에 출연하는 이번 축제의 시그너처 공연은 축제 이틀날에 펼쳐진다. 예술감독 김정원을 중심으로 활발한 국내외 활동을 이어 온 피아니스트 박상욱·박종해·허재원, 그리고 오디션을 통해 선발한 96인의 피아니스트가 한데 모여 경이로운 연주를 선사한다. 여기에 대구 시티발레단이 울동감을 더하며 한층 풍성한 무대를 보여 준다.

TV 오디션 프로그램 우승자로 이름을 알린 반가운 뮤지션도 만난다. <슈



퍼밴드> 우승자인 첼리스트 홍진호가 선보이는 매력적인 음색, <팬텀싱어 시즌 2> 우승팀인 크로스오버 그룹 포레스텔라가 자아내는 기분 좋은 화음이 관객과 깊이 공명한다. 목포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 겸 상임 지휘자 정현이 이끄는 CM심포니오케스트라는 이를 내내 공연을 진행하면서 더 많은 이에게 클래식 음악의 매력을 전한다.

달성군 개성 100주년을 기념해 출범한 달성 100대 피아노 축제는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 예술 축제로 당당히 자리매김했다. 올해 축제는 한 발짝도 약하기 위해 여러 가지 변화를 시도한다. 피아노를 주제로 한 체험·전시 프로그램 등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부대 행사를 마련해 흥을 돋우는 것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계절이 깊어 갈수록 피아노 선율은 무르익어 가고, 사문진의 낭만이 넘실거릴 테다.

일시 9월 23일~24일 오후 7시(무료입장)
장소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사문진 상설야외공연장 문의 053-668-4251

ART

다양성과 공존을 이야기하는 시간, 2023 달성 대구현대미술제

1970년대, 대구의 젊은 미술가들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기성 미술계에 저항하는 실험적인 작품이 모여 대구현대미술제가 탄생했고, 개최 3년 차에 이르러 작가 200여 명을 결집할 만큼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당시 미술제를 개최한 현장이 바로 금호강과 낙동강의 물길이 만나는 강정보다. 그로부터 40여 년이 흐른 뒤 이 자리에 올라선 디아크문화관에서 대구현대미술제를 계승한 달성 대구현대미술제가 펼쳐진다. 9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열리는 올해 축제의 주제는 '다양성(多様性)과 공존(共存): 동시대 예술의 미학적 비전'이다. 지역 문화사에 길이 남을 역사적 장소, 두 물길이 모이는 강정보야말로 다양성과 공존을 논하기에 적합한 곳이다.

동시대 미술, 인간과 자연을 아우르다

다양성과 공존이란 화두를 이끌어 갈 이는 김영동 예술감독이다. 누구보다 대구 미술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깊이 이해하는 이로, 달성군 문화도시 지정을 기념해 국제성을 지향하는 한편 지역과 밀착해 시민과 발맞춰 나아가겠다는 것이 예술감독으로서 그의 포부다.

이번 미술제는 아티스트가 꿈꾸고 지향하는 모든 예술적 비전에 새로움, 다양성, 공존이 자리한다는 믿음에서 출발한다. 김해민, 김이박, 이배, 함혜경, 올리버 그림, 셸린 스트루거 등 국내외 작가 43명이 저마다 선보일 독창적인 예술 세계 또한 그러할 것이다. 동시대 현대미술 정신을 만방에 떨칠 다채로운 작품은 보는 이로 하여금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를 깨닫고, 일상의 평화를 지켜 낼 용기를 얻게 한다.

예술 축제라는 이름에 걸맞게 새로운 시도도 벌어진다. 야외 조각 전시 위주였던 광장 중심에 건축적 구조의 설치 작업을 전개해 주변 환경과 자연을 자연스레 받아들이는, 이른바 장소 특정적 예술의 성격을 강화한다. 한편 디아크문화관 내부로 전시 공간을 확장해 설치 작업은 물론이고 평면 작품까지 수용하니, 작품의 양식과 장르가 그만큼 풍요로워진다. 초청 작가의 면면도 마찬가지다. 국제 미술제로 발돋움하기 위해 네덜란드, 독일, 미국, 프랑스 등지에서 활동하는 작가 16인을 초청하는 등 해외 미술계의 참여를 독려했다. 신혜정의 '뭉굴 뭉굴 또로록- 공손이를 찾아라', 해미 클레멘세비치의 '소리와 언어: 나의 '음승 상자' 찾기' 등 참여 작가가 이끄는 체험 프로그램 또한 흥미진진하다. 공존하는 미적 다양성을 향유할 기회이자 전 세계 예술 지형 위에서 대구 미술의 저력을 느끼는 시간. 달성 대구현대미술제가 기다려지는 이유다.

기간 9월 15일~10월 15일(무료입장)
장소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강정보 디아크 광장 및 내부 전시장
문의 053-668-4243





한가위 보름달처럼 환하게,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파나소닉 안마의자

기쁘고 기다려지는 명절 연휴,
파나소닉 안마의자로 건강을 선물할 때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니 가을이 왔음을 실감한다. 여행이나 등산 같은 야외 활동이 즐거워지는 계절이니만큼, 선불리 몸을 움직이다가 예기치 못한 근육통을 호소하기 쉽다. 파나소닉 안마의자로 환절기 건강을 챙기면 어떨까. 외출이나 운동, 장시간 실내 근무 및 공부 등 여러 가지 활동으로 뻣근함과 결림을 호소하는 이라면 지금 바로 안마의자가 선사하는 확실한 휴식과 이완의 시간을 경험해 봐도 좋다. 뭉친 근육을 공들여 마사지하는 파나소닉 안마의자가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근사한 한가위 선물이 되어 줄 것이다.

운동하고 난 것처럼 개운한 어깨와 다리

파나소닉은 헬스케어 가진 분야에서 안마의자 기술을 선도해 왔다. 88년 동안 부단한 연구와 생산 인프라를 구축해 최고 제품을 완성했다. 마사지 볼은 파나소닉 안마의자 기술력의 정점을 보여 준다. 세밀하게 압력을 전달하고 시원하게 눌러 주어 피로를 해소하는 마사지 볼은 다채로운 주

무르기 기능으로 입체적인 안마 코스를 수행한다. 프리미엄급 제품의 경우 마사지 볼에 가해지는 압력을 감지해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맞춤형 안마까지 선보인다. 통증의 근원에 효과적으로 접근해 지압, 두드리기, 스트레칭 등 여러 기능을 실행한다. 게다가 터치 패널 컨트롤러를 탑재한 덕에 취향에 맞는 마사지 메뉴를 손쉽게 탐색하고, 원하는 부위를 고를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필드에서 펼치는 파나소닉 안마의자의 품격

파나소닉이 제안하는 건강한 생활은 필드에서도 이어진다. 9월 30일까지 파나소닉 안마의자 리얼 프로 EP-MAK1을 구매하는 고객 중 100명(50%)을 추첨해 제8회 파나소닉 고객 초청 프로암 대회에 초대하기 때문이다. 강원도 정선 하이원CC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US 여자 오픈 우승자 유소연과 이정은6 프로가 참여해 필드를 빛낸다. 당첨자에게는 대회 전날 사용할 수 있는 하이원 호텔 1박 투숙권과 조식도 제공한다.



EP-MAK1(아이보리)



EP-MAK1(베이지)



EP-MAK1(블랙)

인생 최고의 무대에 초대합니다 제8회 파나소닉 고객초청 프로암 대회

파나소닉 안마의자의 품격과 특별한 라운딩을 경험하세요



2019 US여자오픈 우승
이정은6 프로



2011 US여자오픈 우승
2017 ANA인스퍼레이션 우승
유소연 프로



EP-MAK1 (아이보리)



EP-MAK1 (베이지)



EP-MAK1 (블랙)

제8회 파나소닉 고객초청 프로암 대회

- 기간 : 2023.08.01 - 2023.09.30
- 행사내용 : 안마의자 MAK1 구매고객 중 추첨을 통해 100명(50%)을 모집한다
- 대회일정 : 대회일정: 2023년10월16일(월) Tee-Off 추후 공지예정
※전일(10월15일 일요일) 하이원 숙박권 및 조식제공
- 장 소 : High1 CC (하이원 CC 강원 정선 소재)

판매점 전국 파나소닉 공식 대리점 / 전국 유명백화점 및 대형 전자제품 전문점에서 절찬 판매중 • 파나소닉 코리아 고객 상담실 1588-8452 • 파나소닉 코리아 홈페이지 <http://panasonic.kr>

파나소닉 프라자 서초 분점 (02)542-8452 서울시 서초구 | 파나소닉 HM프라자 (02)755-8452 서울시 중구 | 파나소닉 광안프라자 (051)755-8452 부산시 수영구 | 파나소닉 동아프라자 (053)427-3794 대구시 북구 | 파나소닉 대전프라자 (042)223-8452 대전시 서구 | 파나소닉 수성프라자 (053)424-8452 대구시 중구 | 파나소닉 중인프라자 (051)255-0300 부산시 중구 | 파나소닉 명성프라자 (051)633-8452 부산시 동구 | 파나소닉 HD프라자 (062)522-2000 광주시 북구 | 파나소닉 제주프라자 (064)757-8452 제주시 구남동 | 파나소닉 천안프라자 (041)522-8452 천안시 동남구 | 롯데 백화점 본점 9층 (02)726-4545 서울시 중구 | 롯데 백화점 잠실 10층 (02)2143-7793 서울시 송파구 | 롯데 백화점 강남 8층 (02)531-2045 서울시 강남구 | 롯데 백화점 일산 8층 (031)909-3091 경기도 고양시 | 롯데 백화점 센텀 7층 (051)730-3330 부산시 해운대구 | 롯데 백화점 대전 B1층 (042)523-5322 대전시 서구 | 롯데 백화점 광주 9층 (062)-221-1932 광주시 동구 | 롯데 백화점 인천 5층 (010)5571-530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현대 백화점 무역센터 4층 (02)3467-8348 서울시 강남구 | 현대 백화점 목동 B1층 (02)2163-1843 서울시 양천구 | 현대 백화점 판교 7층 (031)5170-1835 경기도 성남시 | 현대 백화점 여의도 5층 (02)3277-0581 서울시 영등포구 | 현대 백화점 대구 7층 (053)-245-2730 대구시 중구 | 갤러리아 백화점 타임월드 10층 (042)720-6050 대전시 서구 | 신세계 백화점 본점 신관 2층 (02)310-1678 서울시 중구 | 신세계 백화점 강남 B1층 (02)3479-1628 서울시 서초구 | 신세계 백화점 의정부 8층 (031)8082-0854 경기도 의정부시 | 신세계 백화점 대구 7층 (053)661-6723 대구시 동구 | 신세계 백화점 센텀 7층 (051)745-2389 부산시 해운대구 | 신세계 백화점 경기 6층 (031)695-1467 경기도 용인시 | 신세계 백화점 대전 지하1층 (042)607-8659 대전시 유성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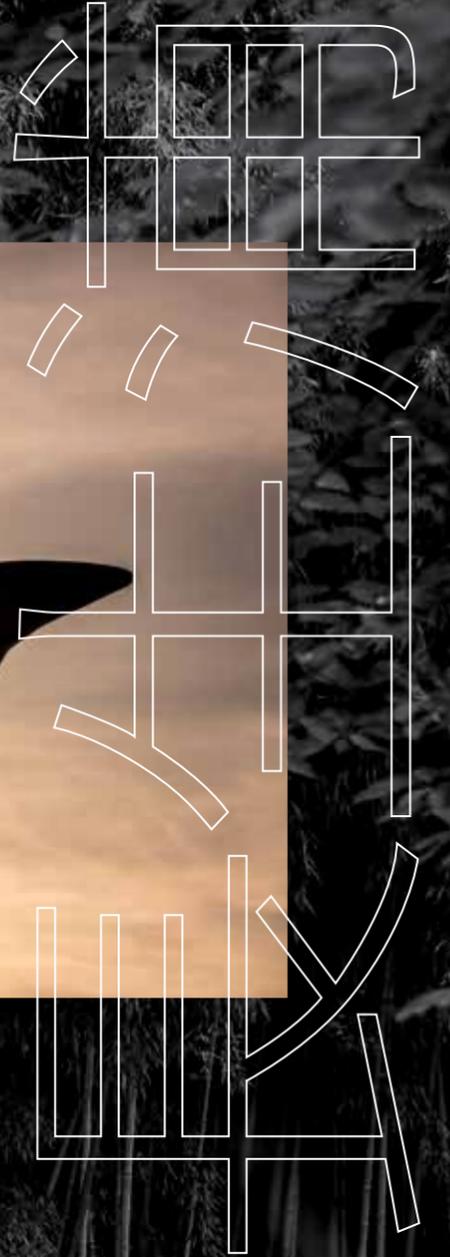
이벤트 진행 기간 9월 30일까지 대회 날짜 및 장소 10월 16일, 강원도 정선 하이원CC 문의 02-533-8452

도시를 가로지르는 물길을 따라
걸고 또 걸었다. 울산 태화강 둔치엔
맥문동이 한창이었고,
해 질 녘 장생포 하늘엔 고래를 닮은
새털구름이 어른거렸다.

태화강에서 장생포까지



울산 남구



太和江

태화강, 바람의 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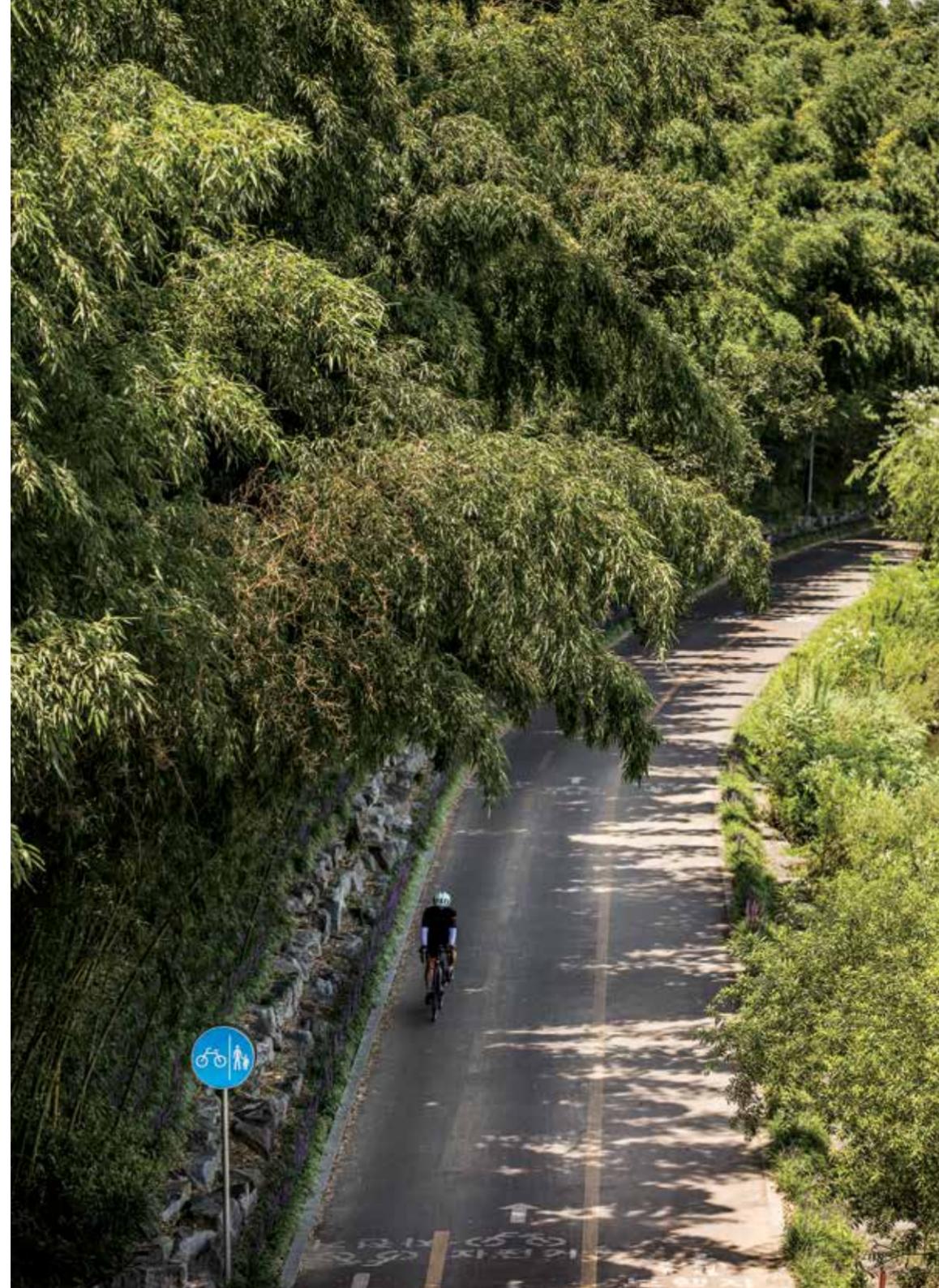
태풍이 지나가고 하늘이 말갭게 갠 날. 들썩이는 마음을 가누지 못한 채 기차에 올랐다. 목적지는 태화강과 장생포를 거느린 울산, 하고도 남구다. 물길이 바다로 이어지는 여정을 좇아 흐르고, 부유하고, 이따금 흔들리고 싶었다. 때마침 한 김 식어 서늘해진 강바람은 기분 좋게 등을 떠밀었고, 눈부신 가을별은 수면에 찰랑이며 씩 없이 귀엣말을 속살거렸다. 새로운 계절이 도착했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감각하는 순간이었다.

삶과 강이 흐르는 풍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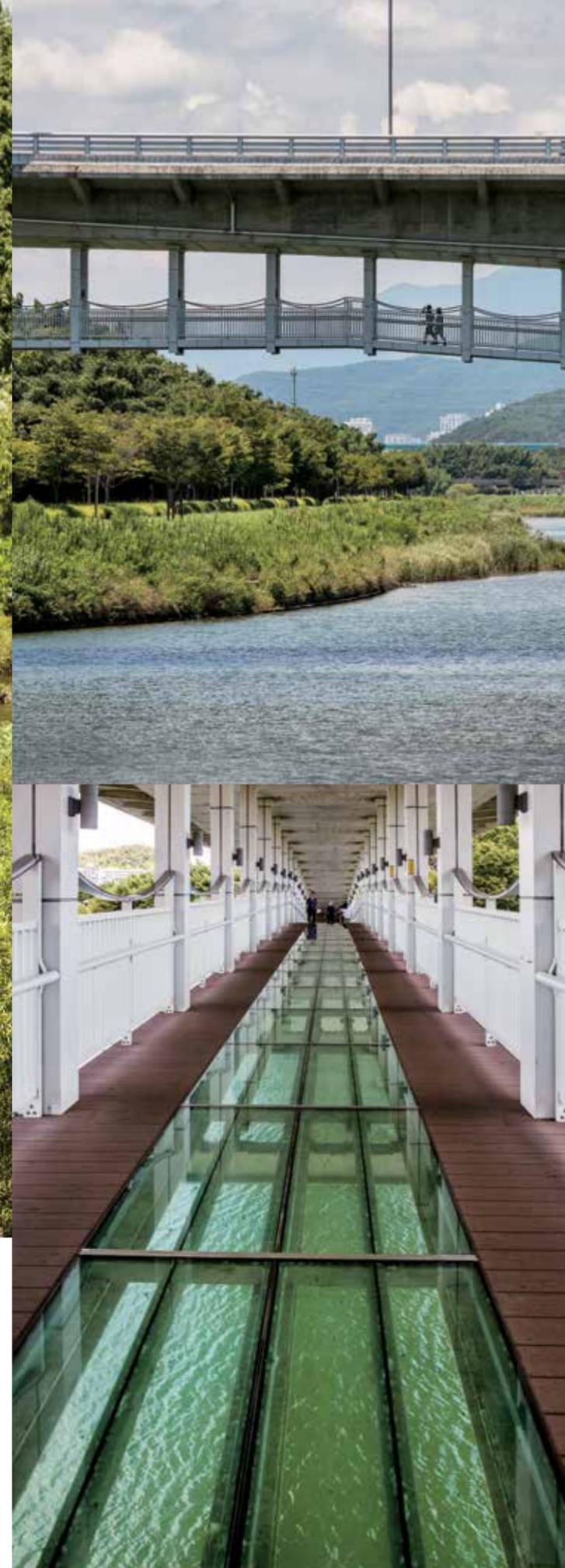
가지산 쌀바위와 백운산 탐골샘에서 발원한 47킬로미터의 역사, 태화강. 도시와 운명을 함께한 물줄기 앞에서 가슴이 벅차다. 새가 노닐고 사람이 오가는 강변 산책로를 바라보며 자연과 도시, 인간과 비인간의 영역을 구분 짓는 게 얼마나 무용한 일인지 새삼스레 실감한다.

모든 생명이 공존하는 태화강의 평화가 절로 얻어진 것은 아니다. 급격한 도시화와 경제성장에 질식한 강은 한때 불모지였다. 2000년대 들어 환경보호를 위한 각성의 움직임이 물밑듯 이어졌으며, '하천 살리기'를 목표로 기업과 시민이 일어나 수질 정화 운동을 벌였다. 그리하여 2011년, 꾸준한 복원 사업 끝에 태화강의 수질은 1등급 기준을 충족한다. 물고기가 돌아오니 철새도 날아들었다. 기적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위대한 회복력. 산림청은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해 태화강을 2019년 제2호 국가정원으로 등재했다. 현재까지 대한민국에서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곳은 태화강과 순천만뿐이다.

강을 한눈에 관망하는 태화강 전망대. 1995년 작동을 멈춘 취수탑이 2009년 전망대로 거듭나 시민의 품으로 돌아갔다. 28미터 높이 건물에 올라서니 탁



서늘해진 강바람은 기분 좋게 등을 떠밀었고, 가을별은 찰랑이며 귀엣말을 속살거렸다.



태화강은 울산을 가로질러 동해로 흐른다. 강 유역에 조성한 태화강 국가정원은 한국을 대표하는 여행지이자, 울산 시민과 수많은 동식물이 기대어 사는 삶의 터전이다. 문의 052-229-7563(태화강 전망대)



맥문동을 응시하는 사이,
걸음을 옮기는 찰나
시선이 마주친다.
청보랏빛 물결 속
꺾어보는 듯 맑은 눈길.
쉬이 사라지지 않을
잔상이다.

태화강 변에는 철새 도래지 삼호대숲과 철새홍보관, 가을에 맥문동이 만개하는 보라정원, 조명과 미디어아트를 전시한 태화강 동굴피아 등 울산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볼거리가 모여 있다.
문의 052-226-1963(철새홍보관), 052-226-0077(태화강 동굴피아)



대숲의 반딧불, 태화강에 내린 월광, 장생포 앞바다의 고래를 표현한 조명과 미디어아트가 울산의 아름답고 고단한 역사를 환하게 어루만진다.

트인 하늘과 무성한 녹음, 시원스러운 물결이 완벽한 구도를 이루어 펼쳐진다. 강 이편과 저편을 오가는 은하수다리도 어른거린다. 저 다리 아래 송어, 잉어, 은어, 연어가 펄떡인다. 물결에 섞인 달콤한 흙내음에 이끌려 헤엄쳐 온 물고기들이다.
태화강 변 동굴 깊숙한 곳에도 물고기가 산다. 어두운 동굴을 밝게 비추며 유영하는 물고기 조명은 태화강 동굴피아의 하이라이트다. 일제강점기, 신정동 남산 자락에 물자를 저장하려고 굴착한 좁은 동굴이 지금의 태화강 동굴피아로 거듭났다. 대숲의 반딧불, 태화강에 내린 월광, 장생포 앞바다의 고래를 표현한 조명과 미디어아트가 울산의 아름답고 고단한 역사를 환하게 어루만진다.

태화강, 새와 강

12만 제곱미터(약 3만 6000평) 규모의 야생 보호구역도 있다. 삼호대숲, 정식 명칭은 태화강 국가정원 내 삼호철새공원이다. 생태 보존을 위해 사람의 출입을 엄격하게 제한하지만, 날개 달린 존재는 언제나 환영이다.

백로는 봄부터 9월까지 숲을 점령하는 철새다. 해오라기·흰날개해오라기·황로·쇠백로·중백로·중대백로·왜가리에 이르는 일곱 종류의 백로 8000여 마리가 서식하며, 한낮엔 태화강과 근처 농지에서 먹이를 구하다가 어둠이 내린 뒤엔 숲으로 돌아와 잠을 청한다. 머지않아 백로가 떠나고 가을이 깊어지면 떼까마귀가 찾아온다. 무려 10만 마리에 이르는 개체가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여기 머문다. 올해도 해 질 녘 태화강 상공을 까맣게 물들인 채 훑날리는 머리칼 같은 군무를 출 것이다.

철새홍보관은 삼호대숲과 새를 관찰하기 위한 최적의 장소다. 로비 천장에 달린 스크린으로 실시간 숲영상을 감상하고, 옥상 전망대에 올라 그림처럼 날아오르는 백로의 자태를 맨눈으로 마주한다. 4층에 걸친 전시관은 삼호대숲의 생태계와 역사, 문화를 알차게 아우른다. 흰날개해오라기는 목이 길고 유연해서 제 부리로 깃털을 정리한다는 것, 울산의 옛 이름 학성이 학 마을을 뜻한다는 사실, 그래서 울주군 반구대 암각화에는 고래와 더불어 학도 새겨져 있다

는 이야기. 자칫 모르고 지나쳤을 태화강의 면모를 발견하고 감탄하는 시간이다.

삼호대숲에 들어가지 못한 아쉬움은 정원에서 달렸다. 철새광장, 잔디원, 은행나무정원, 숲속정원까지. 보기 좋게 매만진 산책로를 한 걸음씩 천천히 디디며 짙은 풀 내음에 코를 적셨다. 맥문동 군락이 펼쳐진 보라정원에 다다랐을 때는 걸음이 부쩍 더뎠다. 8월부터 개화하기 시작해 9월에 만개하는 맥문동은 어딘가 고결한 인상과 달리 산지의 그늘이나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식물이다. 뿌리가 보리와 비슷하고, 겨울에도 잎이 잘 시들지 않는다는 데서 맥문동이란 이름이 붙었다. 한들거리는 맥문동을 가만히 응시하는 사이, 슬며시 걸음을 옮기는 평과 시선이 마주친다. 오묘한 청보랏빛 물결 속 꿩을 보듯 맑은 눈길. 쉬이 사라지지 않을 잔상이다.



長生浦

장생포, 고래의 꿈

태화강은 흘러흘러 장생포항으로 유입한다. 굴곡진 역사만큼 무수한 유래를 지닌 이름, 장생포. '마을 어귀에 장승이 있는 바다 마을'을 뜻하는 '장승개'에서 왔다는 설이 유력하지만, 장승이 고래를 은유한다는 해석에 한 표를 던지고 싶어진다. 한자어대로 장수하는 삶을 의미한다고도 하는데, 이러나저러나 오늘도 장생포 앞바다는 깊고 푸르다.

응답하라, 장생포

그 아득한 물속에 고래가 산다. 울주군 반구대 암각화가 증명하듯, 고래 생태계에 밝아 포경을 행하던 이들이 떠나면 과거부터 이곳에 살았다. 장생포의 고래잡이 전통은 울산을 고래 도시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국제포경위원회가 1986년 포경업을 금지하기 전까지 이 고장을 먹여 살린 건 고래잡이였다. 1960~1970년대, 포경업은 장생포의 경제를 오롯이 떠받치며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했다.

오늘날 장생포는 이 역사적 자산으로 고래 마을의 명맥을 이어간다. 이름하여 고래문화특구. 고래박물관에서 장생포 모노레일을 타고 울산대교와 공업 단지가 어른거리는 바다를 지나, 고래문화마을에 내려 골목을 둘러보는 것이 대표적인 탐방 코스다. 고래문화마을은 장생포의 옛 풍속과 생활사를 그대로 옮겨 놓은 테마 공원이다. 학교, 식당, 이발소 등 세트장 처럼 꾸민 공간과 고래 해체장 등 고래잡이에 얽힌 볼거리가 빼곡하게 늘어선다. 언덕바지에는 새로운 이정표, 웨일즈 판타지움이 우뚝 섰다. 최근 5D 입체 영상 체험관이 몰입형 인터랙티브 미디어 전시관으로 진화해 눈을 즐겁게 한다.

“장생포 포수는 울산 군수하고도 안 바꾼다.” 골목을 살피다 걸음을 멈추게 한 문구다. 고래문화마을 한편엔 포수 전시실이 자리한다. 포수는 포경선에서



<KTX매거진> x MBC 라디오 <노중훈의 여행의 맛>

울산 남구에 다녀온 <KTX매거진>이 MBC 표준FM <노중훈의 여행의 맛>을 통해 독자, 청취자 여러분과 만납니다. 기자의 생생한 목소리로 취재 뒷이야기, 지면에 미처 소개하지 못한 여행 정보를 함께 들려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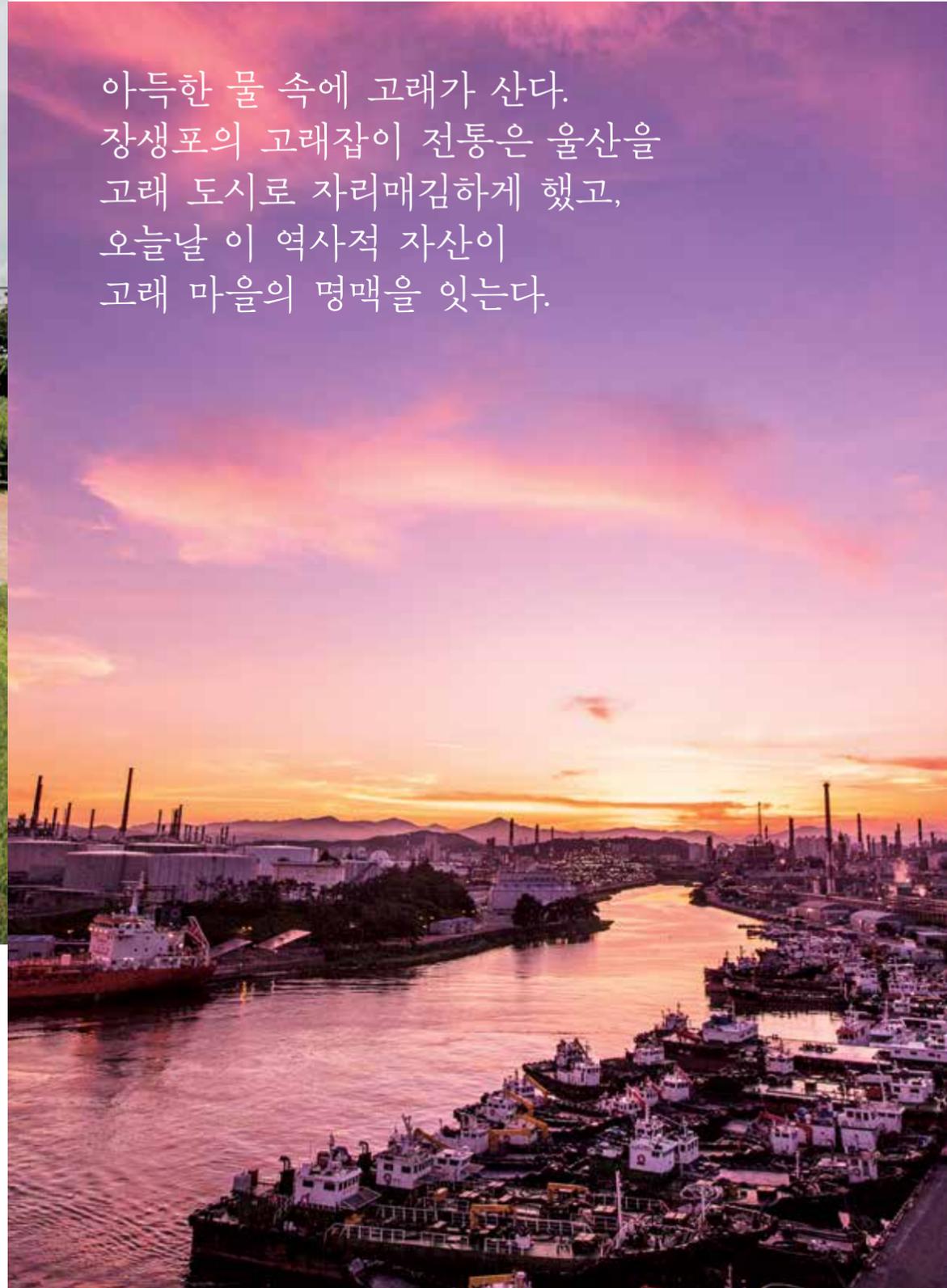
- * 9월 2일 오전 6시 5분(수도권 95.9MHz)
- * QR코드를 스캔하면 방송을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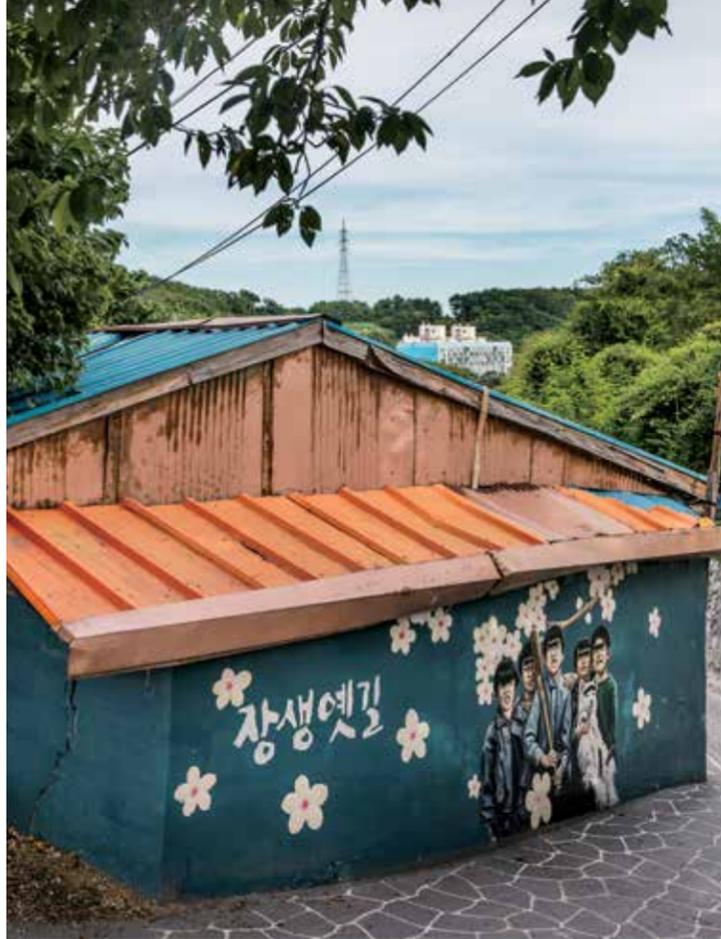
QR코드를 스캔해 포수세진



장생포 고래문화특구에는 고래잡이 역사를 구심점으로 다양한 볼거리를 마련했다. 고래박물관 앞에서 장생포 모노레일을 타고 고래문화마을을 둘러본다. 고래바다여행선을 타고 바다를 유람해도 좋다. 문의 052-256-6301 (장생포 고래문화특구)

아득한 물 속에 고래가 산다.
장생포의 고래잡이 전통은 울산을
고래 도시로 자리매김하게 했고,
오늘날 이 역사적 자산이
고래 마을의 명맥을 잇는다.





“내 고향 바닷가 외딴섬 하나/ 뽀오얀 물안개 투명한 바닷속/

바위에 앉아서 기타를 튕기면/ 인어 같은 소녀가 내 곁에 다가왔지”

-윤수일, '환상의 섬' 중에서



장생포문화창고는 지역 문화, 역사, 예술을 두루 살필 수 있는 공간이다. 커다란 창문 너머로 장생포 앞바다를 마주하면서 여러 갤러리와 전시실, 북 카페 등을 천천히 둘러본다.
문의 052-226-0010
(장생포문화창고)



선장보다 높은 위상을 자랑하던 직업인이다. 급여가 두둑한 건 물론, 포획한 고래를 나눌 때 가장 큰 몫은 포수에게 주어지곤 했다. 전시실 한편에는 고래잡이에 사용한 포와 함께 포수로 활약한 실존 인물 추소식 선장에 대한 자료도 놓였다. 1959년 처음 포경선에 오른 그는 15년간 포수로 일했고, 상업 포경 금지령이 내린 후엔 유조선을 이끄는 선장이 되어 2015년까지 바다를 누볐다고 한다. 지금은 고래문화마을 해설사로 활동한다니, 골목에서 그와 마주치는 기회에 바다에서의 삶을 청해 들어 볼 일이다.

한 발짝 더, 장생옛길과 장생포문화창고

고래문화마을에서 발길을 돌린다면 장생포를 온전히 살펴봤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장생포의 속살, 장생옛길은 1940년대 번듯한 길이 닦이기 전 마을에서 읍내로 나가는 유일한 통로였다. 이곳엔 미니어처나 재현품이 아닌 진짜 삶의 흔적이 그대로 남았다. 고래 사당이라 불리던 신위당과 기우제를 지내던 천지먼당, 장생포 아트 스테이로 거듭난 옛 신진여인숙 건물, 그리고 장생포초등학교를 찬찬히 지난다. 특히 이 작은 초등학교는 걸출한 두 인물을 배출했는데, 한 명은 전 롯데 자이언츠의 투수 윤학길이고 다른 한 명은 지금도 많

은 이가 애창하는 노래 '아파트'의 가수 윤수일이다. 그가 1985년 발표한 노래 '환상의 섬'은 현재 매립된 장생포 앞바다의 섬 죽도를 배경으로 한다. "내 고향 바닷가 외딴섬 하나/ 뽕요안 물안개 투명한 바닷속/ 바위에 앉아서 기타를 통기면/ 인어 같은 소녀가 내 곁에 다가왔지". 시적인 필치로 써 내린 가사와 몽환적인 멜로디가 마음을 일렁이게 한다.

장생포초등학교 맞은편, 외벽에 커다란 고래를 그려 넣은 건물이 우뚝 솟아 있다. 냉동 창고를 재활용한 복합 문화 시설, 장생포문화창고다. 갤러리와 미디어아트 전시관, 울산공업센터 기공식 기념관 등 지역 문화사와 예술을 망라한 공간이다. 최고의 전망을 품은 곳은 6층에 자리한 북 카페 지관서가다. 서가 앞쪽에 모아 둔 울산 문인들의 저서를 집어 들었다. 반구대, 대숲, 포구, 공장, 방과제, 파도 그리고 무수한 고래... 책장 위로 튀어 오르는 단어들을 반갑게 주워섬긴다. 그 사이 푸르던 하늘과 바다가 금세 노랗게, 다시 발짱게 물들어 간다. 그러고는 금세 밤이다.

해가 수평선으로 넘어가는 찰나에 우연히 보았다. 고래를 닮은 새털구름을. 분홍빛 하늘을 미끄러져 가는 지느러미가 하도 고와서, 모든 것이 어둠에 잠긴 뒤에도 눈에 섰다. 고래가 꾸는 꿈이 이런 풍경일까. 꿈꾸는 고래를 그리는 밤이었다. 유난히 청정한 달밤. ㉞

대숲, 포구, 공장,
방과제, 파도 그리고
무수한 고래... 책장 위로
튀어 오르는 단어들을
주워섬긴다.

서울 출발을 기준으로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울산역까지 2시간 15분 정도 걸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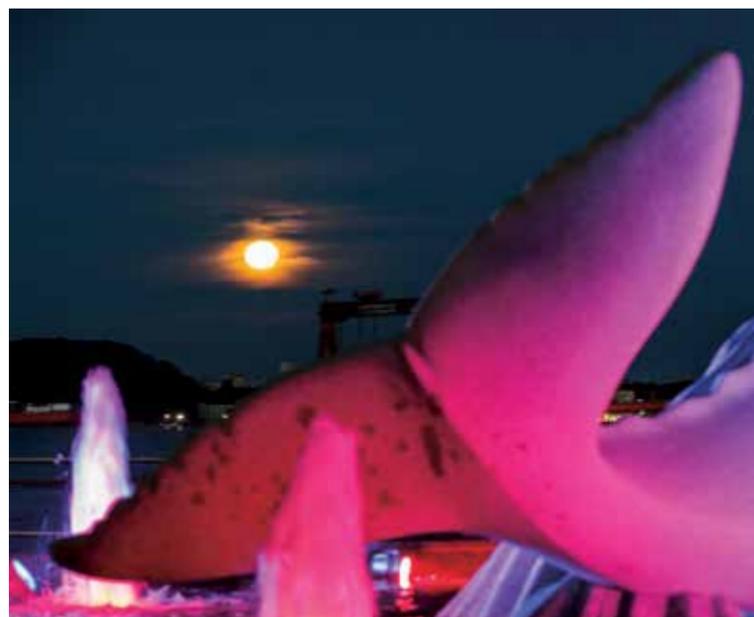




Ulsan Nam-gu, From Taehwagang River to Jangsaengpo

I walked along the waterway that cuts through the city. Along the banks of Taehwagang River, lilyturfs were in full bloom. At sunset, the sky over Jangsaengpo was filled with whale-like cirrus clouds.

Taehwagang River has a history spanning 47 kilometers from its origins at Ssalbawi Rock on Gajisan Mountain and Tapgolsam Spring on Baegunsan Mountain. From the observatory, you can enjoy a panoramic view of the river, clear sky, and lush greenery that come together in perfect harmony. The river is home to catfish, carp, trout, as well as salmon. The highlight of Taehwagang Donggulpia is the illuminations of fish swimming gracefully on the cave walls. The narrow caves were excavate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to store materials on the slopes of Namsan in Sinjeong-dong. The illuminations of the industrial district, the fireflies of the bamboo forest, the moonlight shining on Taehwagang River, and the media art representing whales in the waters off Jangsaengpo brightly embrace Ulsan's sad and arduous history.



Taehwagang River, a Home for Birds

Within the Taehwagang National Garden, there is a 120,000-square-meter wildlife protection area. Known formally as Samho Migratory Bird Park, it aims for ecological conservation. Human access is restricted, but creatures with wings are always welcomed. White herons occupy the forest from spring to September. Seven species of white herons, around 8,000 in total count, call this place home. During daytime, they forage for food in the Taehwagang River and nearby fields, returning to the forest to rest after darkness falls. The garden, a carpet of purple lilyturfs, makes me naturally slow my steps. Despite their elegant appearance, lilyturfs thrive in shady mountainous areas and on arid land. They have roots that look similar to barley, and retain their leaves even in winter. As I admire the lilyturfs, I notice a quail moving stealthily amid the enigmatic bluish-purple waves. The charming scene gets deeply imprinted in my mind.

Jangsaengpo, the Dream of Whales

The Taehwagang River flows through the Port of Ulsan and into Jangsaengpo Port. Massive whales reside in the deep waters. The tradition of whale hunting in Jangsaengpo solidified Ulsan's identity as a whale city. Until the International Whaling Commission banned whaling in 1986, it was this practice that sustained the town. Today,

Jangsaengpo carries on this legacy as a cultural heritage of the whale village, aptly named the Whale Culture Zone. A recommended route is to ride the Jangsaengpo Monorail from the Whale Museum, and then alight at the Whale Cultural Village to explore the alleys. However, turning back from the Whale Cultural Village would be an incomplete experience of Jangsaengpo. Continue to Jangsaeng Old Path to find traces of actual life, not mere miniatures or reproductions. Sinwidang Shrine, Jangsaengpo Art Stay, and Jangsaengpo Elementary School are some of the places worth visiting.

On the opposite side is a building adorned with a large whale mural. It is the Jangsaengpo Cultural Warehouse, a multipurpose cultural facility repurposed from a cold storage warehouse. Jigwanseoga, a book café on the 6th floor, is not to be missed. The café overlooks the shimmering sea, and becomes more enchanting at sunset, when the sky is painted with hues of yellow and orange. The whale-shaped cirrus cloud that delighted my eyes will definitely be a moment to cherish in the days to come. 🐋





울산 남구에서 여기도 가 보세요



즐길 거리



울산대공원 공업 발전으로 눈부신 성장을 이룬 울산은 보다 나은 환경과 도시 생활의 질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물이 바로 도심 속 허파, 울산대공원이다. 이름처럼 드넓은 풍요의 못이 정문에서 방문객을 반긴다. 산림 놀이 시설을 따라 안쪽 깊숙이 발을 디디며 잔디 광장과 메타세쿼이아 숲길, 자연학습원과 느티나무 산책로를 둘러본다. 동문으로 진입한다면 울산대중과 연못에, 남문으로 진입한다면 생태여행관과 사계절 꽃밭에 조금 더 쉽게 다다를 수 있다. 울산박물관과 공업탑이 멀지 않은 곳에 자리하니 두루 살핀다.

문의 052-271-8818



선암호수공원 선암저수지 주변에 조성한 둘레 4킬로미터 산책로를 따라 명상 하듯 걷는다. 봄에는 벚나무와 수선화가, 여름에는 창포가, 가을에는 꽃무릇이 흐드러지게 피어나 눈을 즐겁게 한다. 벚꽃 터널과 장미 터널, 꽃창포 섬터, 연꽃지와 물레방아, 수변 꽃단지와 야생화 단지, 전망대 등 사진으로 기록해 남기기 좋은 풍경이 내내 펼쳐진다. 버드나무 섬터, 습지생태원, 소나무 섬터는 언제나 찾아가는 여유롭고 평온한 모습으로 곁을 내려 준다. 신선산으로 이어지는 가벼운 등산로를 따라가다 보면 눈 깜짝할 새 정상 신선정에 닿을 것이다.

문의 052-226-4853

먹거리



올드 헤리티지 남구청 옆으로 펼쳐진 아기자기한 골목에 눈길을 끄는 카페가 하나둘 생겨나더니 지금의 달동카페거리를 이뤘다. 그중 '올드 헤리티지'는 고유하고 확실한 매력으로 단골을 거느린 카페다. 이호걸 대표는 상호처럼 세월에 낡은 근사한 물건을 좋아한다. 따뜻한 원목과 빛바랜 서프보드, 취향을 집착하게 하는 빈티지 제품이 카페 한편에 자리해 그만의 정취를 자아낸다. 농밀한 달콤함이 매력적인 헤리티지 라테와 미량의 위스키를 넣고 차가운 크림으로 풍미를 살린 아이리시 커피, 보드라운 바나나푸딩은 이곳에서 반드시 맛봐야 할 메뉴다.

문의 0507-1306-4789



삼호돌곱창 울산 우시장은 영남 지역 상인들이 다 모여들 만큼 대단한 규모를 자랑했다. 1970년대에는 도축장이 현재의 무거동에 들어섰는데, 이때 부산물을 활용한 곱창 요리 전문점 네댓 곳이 문을 열어 먹자 골목을 형성한 게 오늘날에 이른다. '삼호돌곱창'은 유서 깊은 터줏대감 사이에서 '나만 알고 싶은 가게'로 입소문 난 식당이다. 권선희 대표는 그날그날 도축한 한우를 공수해 신선과 청결을 최우선으로 관리한다. 곱창구이로 시작해 곱창전골로 넘어갔다가 볶음밥으로 마무리하면 더없이 만족스럽다. 막걸리 태화루를 곁들여 감칠맛을 더한다.

문의 052-223-2727

2023년 대덕연구개발특구 50주년

대덕이 담은 50년
미래를 잇는 50년

50th Anniversary
1973 INNOPOLIS 2023

50년 역사의 기억과 담대한 미래 가치가
공존하는 대덕연구개발 특구





강소연구개발특구가 여는 과학 세상

기업의 성장을 돕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는 강소연구개발특구에서 첨단 기술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한다.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을 이끄는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대덕연구단지)가 조성 50주년을 맞았다. 대덕연구개발특구는 지난 시간 동안 과학기술 발전의 역사를 차근차근 쌓았다. 일인당 국민소득이 270달러에 불과하던 1973년, 대전 유성구 일원에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카이스트, 민간 연구소 등을 모아 조성한 연구 단지가 대한민국 과학기술 성장의 씨앗 역할을 한 것이 시작이었다. 대덕연구단지의 기술과 인력이 1980~1990년대 경제 성장기에 없어서는 안 될 물과 영양분이 되었고, 이를 발판 삼아 무력 무력 성장한 대한민국은 과학기술 강국이라는 열매를 맺는다.

첨단 기술의 요람인 연구개발특구는 전국 곳곳에 소재한다. 2005년 대덕연구단지를 대덕연구개발특구로 확대 개편한 뒤 광주, 대구, 부산, 전북까지 다섯 개의 연구개발특구가 잇따라 지정되었다. 여기에 2018년 관련 제도가 정립되면



서 소규모·고밀도 연구개발특구인 강소연구개발특구가 기술 개발에 힘을 보탤다. 강소연구개발특구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대학·연구소·기업 등 지역에 위치한 주요 거점 기술핵심기관을 중심으로 연구, 주거, 산업, 문화를 집적한 공간이다. 현재는 열네 개의 거점별 강소연구개발특구까지 포함해 총 열아홉 개 연구개발특구에서 첨단 바이오, 이차전지 등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힘쓰는 중이다. 특히 강소연구개발특구는 2020년부터 현재까지 기술 이전 909건, 특구 내 기업 투자 유치 3671억 원 등의 성과를 올리며 지역 경제 생태계 조성에 기여했다. 특구 소속 기업이 한 단계 도약함에 따라 지역의 경제 및 기술 수준이 함께 향상한 것이다. 연구개발특구는 우리 삶과 밀리 떨어져 있지 않다.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것뿐 아니라 다양한 과학기술을 느끼고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강소연구개발특구를 소개한다.



① 울산 울주강소특구

미래형 전자



울산과학기술원은 미래형 전자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울주강소특구의 기술핵심기관이다. 해수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해 친환경 에너지 저장 장치를 연구하는 해수전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울산과학기술원을 방문해 북큐레이션, 문화 프로그램 등을 체험한다.

📍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유니스트길 50, 113동 101호
☎ 052-217-2921(울산과학기술원 해수전지센터)



② 경북 포항강소특구

첨단 신소재



창업에 관심 있는 이에게는 포항강소특구를 둘러볼 것을 추천한다. 포항공과대학교 교내에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포스코에서 운영하는 스타트업 공간 '체인지업 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이다. 연구는 물론 포스코 벤처 지원 프로그램 등 창업 과정을 돕는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센터다.

📍 경북 포항시 남구 청암로 87
☎ 054-221-3800(체인지업 그라운드)



③ 경북 구미강소특구

스마트 제조 시스템 활성화



R&BD(연구 개발 및 사업화) 특성화 대학인 금오공과대학교를 중심으로 조성했다. 스마트 제조 시스템 특화 육성을 목표로 교내에 스마트 팩토리 테스트 베드를 구축한 데다 레이저 커팅기, 3D 프린터, 드론 등을 체험하고 연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경북 구미시 대학로 61
☎ 054-478-6797(금오공과대학교 강소특구육성사업단)



④ 서울 홍릉강소특구

바이오 및 디지털 헬스케어



바이오 기술,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금급증을 말끔히 해소한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이 핵심 기관으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운영하는 과학 탐방 프로그램에 참여해 연구실을 견학하고 과학기술과 과학자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실험 실습에도 직접 참여할 수 있다.

📍 서울시 성북구 화랑로14길 5
☎ 02-958-6892(한국과학기술연구원 커뮤니케이션팀)



⑤ 전남 나주강소특구

지능형 태양광과 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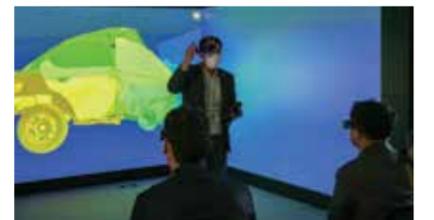
공기업 한국전력공사가 기술핵심기관이다. 뛰어난 연구 개발 인프라를 활용해 지능형 태양광,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특화 분야 기업을 육성한다. 한국전력공사가 위치한 빛가람 혁신 도시에 분사 홍보관을 운영 중이며, 스마트그리드를 비롯한 다양한 테마가 눈길을 끈다.

📍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 061-345-8891(한국전력공사 분사 홍보관)



⑥ 경남 창원강소특구

지능 전기 기술



'똑똑한 전기'가 미래 세상을 밝힌다. 이는 인공지능, 시물레이션, 스마트 팩토리, 정보통신기술(ICT) 등 지능 전기 기술을 일컫는 것으로, 한국전기연구원(KERI)이 단체 방문객을 위한 견학 프로그램과 초·중·고·대학생이 반길 교육 기부 프로그램 등을 준비했다.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전기의길 12
☎ 055-280-1071(한국전기연구원 대외협력실)

3-5-19*의 미래

모든 직무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역량은?

*미래 세대는 평생 3개 영역에서 5개 이상의 직업을 갖고 19개 이상의 직무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미래학자의 예측

교육부가 주관하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시행하는 직업기초능력평가는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에게 현재의 직무 역량을 가능하도록 돕는다.

직업계고등학교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고 직업계열 학과에서
신산업·신기술을 포함한 다양한 직업 교육을 실시합니다.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꿈꾸는 직업계고 학생에게 꼭 필요한 능력은 직업기초능력이다.
모든 직업인에게 요구되는 공통적이고 핵심적인 역량(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등)인 직업기초능력을 어느 정도 함양했는지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이 대한상공회의소의 '직업기초능력평가'다.
직업기초능력평가는 현실감 있는 직무 상황을 바탕으로 실무에서 요구하는 직업 역량을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현재 역량을 평가하는 공정한 수단이다. NCS(국가직무능력표준) 직업기초능력의 10개 평가 영역을 의사소통 국어, 의사소통 영어, 수리 활용, 문제 해결, 직무 적응의 5개 영역으로 연계하여 구성하였다.



eenup

Test for Enhanced Employability & Upgraded Proficiency

직업기초능력평가 체험하기 →



예를 들어, NCS 직업기초능력 영역 가운데 '문제해결능력, 정보능력, 기술능력, 자원관리능력, 조직이해능력'은 직업기초능력평가의 '문제 해결' 영역에 해당한다.
직업기초능력평가는 의사소통 국어, 의사소통 영어, 수리 활용, 문제 해결, 직무 적응의 5개 영역에서 총 342개 문항을 출제한다.
대학교수와 직업계고 교사, 기업의 인사·채용 담당자가 매년 평가 문항을 점검하고 개발한다. 이에 따라 각 평가 문항은 직무 맥락 속에서 실무와 맞닿았을 뿐 아니라 내용의 체계성을 완성하는 구성요소라 할 수 있다.
특히 '무엇을 알고 있는가'를 물어 지식수준을 평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어진 상황에서 아는 것을 활용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파악한다.
직업계고 학생들만 응시하는 직업기초능력평가의 평가 결과는 자기개발과 취업에 직결된다. 전국 직업계고 학생 1·2학년은 자기진단평가를 통해 부족한 직업기초능력을 파악하고 이를 향상하기 위한 자기주도적인 노력을 할 수 있고, 3학년은 본평가를 통해 영역별 수준을 개인별 인증서로 받아 본다. 그리고 인증서는 고졸 채용 시 서류·필기·면접 전형에서 활용한다.



취업을 향한
똑똑한 발걸음

JOB

직업기초능력평가, 이런 점이 궁금해요

대한상공회의소 직업기초능력평가 사업 담당자와 일문일답을 나누었다.

Q. 직업기초능력평가는 왜 필요한가요?

A. 다양한 직업, 직무를 경험할 때 공통적으로 필요한 핵심 역량인 직업기초능력 수준을 평가를 통해 확인하고 기를 수 있고, 그 결과를 취업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직업기초능력평가의 장점이 있다면요?

A. 직업계고 1·2학년은 자기진단평가를, 3학년은 본평가를 봅니다. 1학년부터 체계적으로 현재의 직업기초능력 영역별 수준을 확인하고, 차근차근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Q. 직업기초능력평가 후 발급되는 인증서는 어떻게 활용되나요?

A. 고졸 채용 시 서류·필기·면접 전형에서 직업기초능력평가 인증서가 활용됩니다. 서류 전형에서는 가점 항목으로 적용되기도 합니다. 기업은 개인별 인증서를 통해 지원자의 직무 적합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kcci_education teenup.or.kr



문의 1833-6543



횡성

휴식의 완성

호수 길을 걷고, 루지를 탄 채 도로를 내달렸다. 강원도 횡성에서 두 가지 방법으로 쉬었다.

호흡이 긴 마라톤에서는 속도를 조절해 결승점까지 갈 힘을 남겨 둔다. 달력의 절반 이상이 넘어간 지금, 삶에도 '천천히' 구간이 필요하다. 산으로 둘러싸인 강원도 횡성을 찾은 이유다. 횡성은 섬강이 흐르는 서쪽을 제외하면 주변이 온통 산이다. 다른 말로는 온전하게 쉴 수 있는 자연의 품 안이라는 뜻이다. 마침 입추라는 계절의 문턱을 지나 선선하고, 더위의 기세가 누그러지자 시원한 바람도 불어온다. 이맘때 횡성은 휴식을 즐기기에 더없이 알맞다.

가까이에 조성해 자연이 자세히 들여다보인다. 게다가 길이 험하지 않아 무리 없이 완주한다. 각각 4.5킬로미터인 A코스과 B코스를 천천히 거닐기로 하고,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끊는다. 두 코스는 숫자 8 모양으로 서로 이어져 출발점과 도착점이 같다. "한 방향 코스이니 길 잃을 염려가 없습니다. 그래도 걱정이라는 분에게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내 왼쪽에 호수가 있다면 맞는 길입니다. 절대 오른쪽에 호수를 두

진행 방향 반대쪽에 자리하는데, 마치 물속으로 향하는 듯하다. 그들이 길 뒤편에 위치한 사연은 호수 아래에서 찾을 수 있다. 1990년 횡성 갑천면에 댐을 만들기 위해 첫 삽을 뜬다. 횡성읍에서부터 흐르는 남한강의 지류, 섬강을 막아 농업용수 공급과 홍수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이었다. 댐은 무려 1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완성된다. 한 가지 서글픈 점은 횡성댐이 들어서 그 자리에 존재하던 다섯 개 마을이

년 10월에 이곳에서 망향제가 열린다. 고향을 마음껏 그리워하는 장소를 마련해 그들에게 작은 배려를 한 셈이다. 누군가의 기억을 품은 호수라는 사실이 먹먹하다. 일렁이는 기분을 안고 호수길 깊숙이 들어간다. 사람 형상의 나무 조형물을 설치한 포토 존에서 걸음을 멈춰 이 순간을 기록한다. B코스 진입을 알리는 원두막 쉼터가 나오자 한숨 돌린다. 여기서부터는 이전보다 한층 우거진 숲이 여행자를 맞이한다. 은회색 나무껍질이 오묘한 분위



섬의 정석, 횡성호수길

머릿속이 복잡하고 가슴이 답답해질 때 하염없이 걷는 상상을 한다. 걷는 일에 집중하면 잡념이 사라지고, 문득 마주친 고운 풍경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힘을 주기 때문이다. 횡성호수길 5코스 가족길에서 상상을 현실로 옮긴다. 횡성호수길은 여섯 개 코스를 모두 합쳐 31.5킬로미터에 달하는데, 9킬로미터를 차지하는 5코스는 특히 횡성호

지 마세요!" 윤병철 문화관광해설사의 유용한 설명을 새기며 횡성호수길 탐방에 나선다. A코스의 시작점인 코뚜레 게이트를 지나 자박자박 흙길을 밟는다. 이른 오전임에도 길 위에 여행자들이 삼삼오오 떼를 지었다. 주인의 발걸음을 따라 종종거리느라 열심인 강아지도 눈에 띈다. 반려동물도 입장 가능하다니, 가족이라는 다정한 단어를 5코스에 붙인 이유를 알 것 같다. 오래지 않아 갈림길이 나타나고 '장터 가는 가족' 동상이 눈에 들어온다. 작품은



수몰되었다는 것. 먹고 자던 집이, 매일같이 들락거리던 학교가, 누군가의 고향이 물 아래 고요히 잠겼다. 5코스 매표소 근방에 '망향의 동산'이 세워진 까닭도 여기에 있다. 터전을 잃은 이들을 위해 그곳에 놓였던 중금삼층석탑, 화성정 등을 물으로 옮겼다. 아련한 마음을 달래듯 매

+ 서울 출발을 기준으로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횡성역까지 1시간 20분 정도 걸린다. 둔내역에도 정차한다.

기를 자아내는 은사시나무 군락지, 소나무 사이에 조성한 뱃머리 전망대가 발걸음을 재촉한다. B코스의 매력은 구불구불한 길에서도 느껴진다. 인위적으로 산책로를 조성하지 않고 지형을 따라 길을 닦았기 때문이다. 볼록 나온 부분은 물과 가까워 호수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땀을 식히고, 안쪽으로 난 길에서는 숲속 풀벌레들의 합창이 들린다. 자연을 누비는 것이 이리도 달콤한 일이었던가. 횡성호가 건네는 소박한 선물에 미소가 지어진다.



폐도로의 변신, 황성루지체험장

이번 목적지는 산속에 난 폐도로다. 인적이 끊긴 도로가 여행지로 거듭났다는 소식이 퍼져 근방이 사람으로 북적인다. 여느 여행지와 비슷하지만 방문자 대부분이 황성 마스코트 ‘한우리’가 그려진 귀여운 헬멧을 쓴 게 특이하다. 그제야 ‘루지체험장’이라는 간판이 보인다. 바퀴를 단 썰매를 타고 트랙을 달리는 스포츠 루지를 실제 도로에서 경험 하도록 한 것이다.

트랙으로 변신한 폐도로는 본래 국도 42호선이라는 이름을 가졌다. 조선 시대부터 수도와 강릉을 이어 ‘관동옛길’이란 별명으로 불린 길목이기도 했다. 하지만 현대에 와서 관동옛길은 그만 쓰임을 잃는다. 교통이 발달하면서 근방에 터널이 생겨서다. 황성은 방치된 도로를 현명하게 이용했다. 기존 도로와 산을 그대로 보존해 친환경 유원 시설을 조성한 것이다. 포장도로 일부를 활용해 2.4킬로미터 길이의 트랙으로 만들고 트릭 아트, 우주 터널 등 테마를 정해 구간을 나누었다. 노력 끝에 2020년, 황성루지체험장이 개장한다. 루지를 타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니 그 결과는 말로 듣지 않아도 알겠다.

전기 카트에 몸을 싣고 도로를 올라가 차례대로 썰매에 올

라탄다. 한우리 헬멧을 착용하고, 운전법과 안전 교육을 귀 기울여 듣는다. 이제는 정말 달릴 시간. 힘이 저절로 꿀꺽 넘어간다. 안전 요원의 신호에 따라 운전대를 힘껏 잡아당기자 썰매가 스르륵 움직이면서 서서히 속도가 붙는다. 한우리와 운전자, 썰매가 하나 되어 도로를 쏘살같이 내달린다. 짜릿한 쾌감에 웃음이 마구 터져 나오더니, 속도에 익숙해진 후 아예 콧노래를 부른다. 이 순간만은 세상에서 제일가는 베스트 드라이버다.

즐거운 시간은 왜 이리 짧게 느껴질까. 아쉬운 건 모두가 같다. 탑승자들은 루지에서 눈을 떼지 못한다. 하지만 2회권 표를 구매했다면 걱정 없다. 전기 카트를 기다렸다가 다시 출발지로 돌아가 한 번 더 탑승할 수 있으니까. 전기 카트가 빨리 도착하기를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린다. 루지를 따라 아래에 다다른 건지 잔잔한 바람이 일순 머리카락을 흩트린다. 아마도 곧, 가을이 오려나 보다. ☺

황성한우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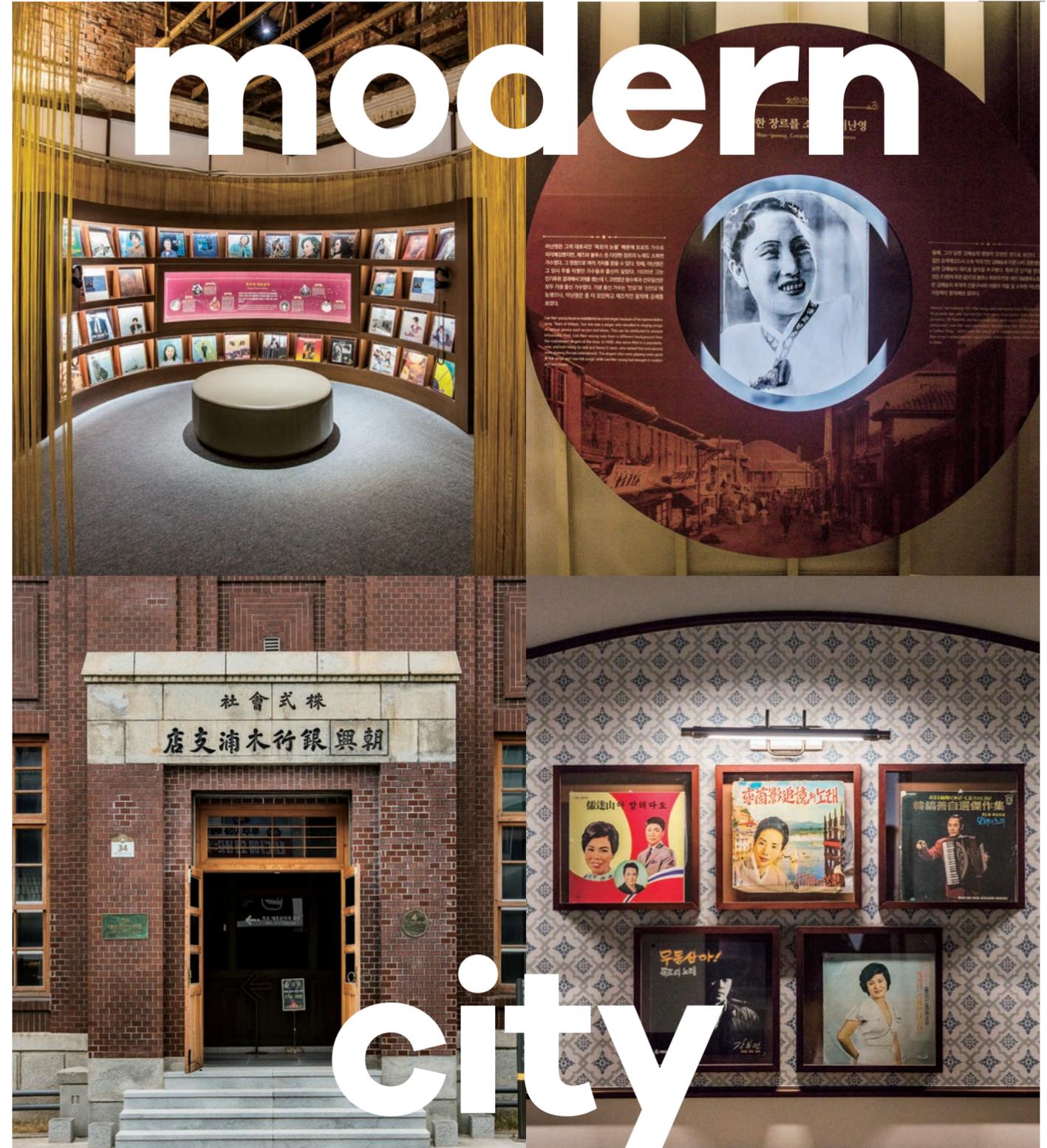
황성 하면 역시 한우다. 질 좋은 명품 한우를 맛보고,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자연에서 쉬어 간다. 지역 농·특산물 판매장은 물론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해 흥미진진하다.
기간 10월 6일~10일 문의 1522-1099



썰매와 하나 되어 도로를
쏘살같이 내달린다.
짜릿한 쾌감에 웃음이
터져 나오더니,
속도에 익숙해지자
아예 콧노래를 부른다.



seaport



modern

city

목포의 시간 속으로

켜켜이 쌓인 시간의 흔적 위에 새로운 오늘을 펼친다. 세월을 간직한 도시, 전남 목포를 걷는다.



서울 출발을 기준으로 용산역에서 KTX를 타고 목포역까지 2시간 40분 정도 걸린다.

는 응접실, 대기 장소, 사무실, 은행원실, 비서실, 관장실이 있었으나 지금은 그 자리에 사람 대신 풀만 자란다. 본관 터 뒤로 창고가 보인다. 세관은 수송 화물을 보관·선별하거나 통관 절차를 완료하기까지 수출입품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가 필요하다. 이곳에 자리했던 여러 동의 창고 건물은 6·25전쟁 때 모두 소실됐고, 남은 두 동은 1955년 준공한 것이다. 세관 역사관으로 쓰이는 작은 창고로 발걸음을 옮긴다. 목포는 부산·원산·인천에 이은 네 번째 개항지다. 이전의 개항과 다른 점은 자주 개항지라는 것이다. 목포항은 고종 칙령으로 문을 열었다. 일본과 협의하지 않고 선포로 사실을 알렸

기차가 마지막 역인 전남 목포역에 도착한다. 이른 아침 길을 나선 까닭은 목포의 화려한 시절을 상상해 보고 싶어서다. 목적지는 1897개항문화거리다. 근대에 형성된 거리와 건물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 '지방 없는 박물관'이라 부르는 곳이다. 근대도시의 막을 올린 1897년과 대중음악이 성행한 1935년의 목포를 걸어 볼 작정이다.

자주 개항 도시

타임머신 없이도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다. 달고자 하는 시간대를 머릿속에 입력하고 특정 장소에 이르면 되니까. 박공지붕을 인 공장, 나직한 단색 건물이 정감 가는 1897개항문화거리를 걷다가 '목포미식문화갤러리 해관1897'을 여정의 시작점으로 삼는다. 1897이라는 숫자와 해관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다. 해관은 항구를 드나드는 선박과 유통 물품에 세금을 부과하고 수출입을 관리하던 관청이다. 목포해관은 1897년 목포 개항과 동시에 업무를 시작했다. 이후 1907년 세관으로 명칭을 바꾼 뒤 이듬해 목포진에서 이 자리로 옮겨 왔다. 목포미식문화갤러리 해관1897은 구 목포세관의 창고 두 동을 각각 세관 역사관, 미식 문화 공간으로 개조했다. 한편에는 구 목포세관 본관 터가 자리한다. 건물 형태는 사라지고 없다. 다만 벽돌이 도면처럼 남았다. 직사각형으로 열을 지은 벽돌이 구획을 나눈다. 크고 작은 사각형을 바라보며 각 공간의 쓰임새를 유추한다. 붉은 벽돌과 화강석으로 치장한 건물 내부



목포미식문화갤러리 해관1897 국가등록문화재인 구 목포세관 본관 터와 창고가 2022년 새롭게 태어났다. 큰 창고는 미식 문화 공간으로, 작은 창고는 세관 역사관으로 사용한다. 문의 061-270-8860

개항 1897

10월 1일은 목포 개항일이자 목포 해관 업무 시작일이다. 같은 달 12일, 조선의 국호가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오는 배경이다. 고종의 칙령으로 선포한 자주 개항지인 목포가 더욱 의미가 깊어진다.

다. 1897년 10월 1일, 목포항과 해관을 같은 날 열 수 있었던 건 해관 입지 조건 조사 등 사전에 준비를 했기 때문이다. 같은 달 12일, 조선의 국호가 대한제국으로 변경됐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목포는 대한제국의 꿈이 담긴 국제무역항이었다. 해관을 통해 선박 조사와 조선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금지 물품 단속은 물론, 관세를 부과해 정부 수입원으로 사용하고자 했다. 강제 개항과 자주 개항의 차이점은 거류지에서 명확해진다. 거류지는 항구 내 마련된 외국인 거주 지역을 뜻한다. 앞서 개항한 항구들은 일본과 청국에 전관 거류지를 내줬다. 각 나라의 거류지를 마련해 준 것이다. 자주 개항지인 목포항은 일본의 단독 거류지 요구를 거절한다. 그 대신 모든 외국인이 한 지역에서 공동으로 머무는 각국 거류지를 도입한다. 치외법권이 적용되는 특성을 악용해 한국 해안을 측량하거나 군사적 의도로 활용할 우려가 있는 전관거류지의 문제점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거류지였던 만호동 일대의 바둑판식 거리와 상가 건물, 시가지는 이때 생겨났다. 이제 미식 문화 공간인 큰 창고를 둘러본다. 주로 요리 강습, 디저트 페어 같은 행사에 사용한다. 창고 한쪽은 지역자활센터가 입점해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목포 시목인 비파나무로 만든 음료가 대표 메뉴다. 새콤달콤한 비파에이드는 언뜻 복숭아 혹은 살구가 떠오른다. 미식의 도시 목포에서 만나는 색다른 맛이다.

목포는 항구다

다시 1897개항문화거리로 나선다. 목포의 잘 닦인 도로가 새삼 애통하게 다가온다. 과거 일들이 떠올라서다. 근대도시의 반듯한 길 위로 일본 기관이 들어서고, 1910년부터 본격적인 수탈이 시작된다. 상념 속에 이리저리 거닐다 목포 대중음악의 전당을 맞닥뜨린다. 구 호남은행 목포지점 건물을 새롭게 단장해 올해 문을 연 곳이다. 붉은 벽돌로 감싼 외관이 견고한 인상을 준다.

출입문 위 회색 벽돌에 새긴 글자를 천천히 읽어 본다. '조흥은행 목포지점' 가 만히 바라보니 '조흥' 두 글자만 벽돌 크기가 다르다. 호남은행이 조흥은행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나머지 글자는 그대로 둔 채 은행 이름만 교체해서 그렇다. 눈여겨볼 것은 포(浦) 자다. 점 하나가 없다. "호남은행을 설립한 현준호가 독립이 되거든 점 찍겠다고 남긴 것인데, 여태 그대로네요." 이옥희 문화관광해설사가 친근하게 말을 붙인다. 획 하나에도 독립을 염원하며 의미를 부여하던 시절이 애절하고, 또 애뜻하다.

목포는 개항 이후 상업 도시로 크게 성장했다. 당시 목포에는 일본계 은행이 이미 들어와 있었지만 민족 은행은 없었다. 이에 현준호 등 지역 유지가 모여 자본금 150만 원으로 호남은행을 설립했고, 상권의 중심지였던 오거리 한복판에 호남은행 목포지점이 들어섰다. 1926년 일이다. 이 건물은 민족자본의 지방은행이라는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2002년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안으로 들어선다. 목포 대중음악의 전당으로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상량문이 눈에 띈다. 건축 시기와 축원하는 글이 나무패에 새겨져 있다.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일본 계열의 식산·십팔·조선은행 사진도 전시했다. 지계를

목포의 역사 1935

'목포의 눈물'이 발표됐다. 애환을 달래는 가사와 구슬픈 곡조로 목포뿐 아니라 전국에서 인기를 얻었다. 오랜 시간 사랑받아 1980년대 프로야구단 해체 타이거즈의 응원가로 사용되기도 했다.

깊어진 남성, 아이를 업은 아낙이 건물 앞을 지나가는 모습이 담겼다. 오래지 않은 과거, 한국이 주권을 빼앗긴 시절이다. 잠시 서늘한 기분을 느낀다.

2층은 본격적인 대중음악 공간이다. 최초의 대중가요, 목포 대중음악 연표 등을 살핀다. 걸출한 목포 출신 음악가도 소개하는데, 가수 이난영을 빼놓을 수 없다. 1935년에 발표한 노래 '목포의 눈물'은 전 국민적 사랑을 받았다. 애환을 위로하는 가사 덕분이다. "2절 가사 가운데 '삼백 년 원한 품은 노적봉 밑에 남 자취 완연하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임진왜란부터 이 노래가 나올 때까지 세월이 삼백 년입니다. 오랜 시간



목포 대중음악의 전당 구 호남은행 목포지점을 색다른 공간으로 조성했다. 올해 문을 연 이곳 1층은 호남은행의 역사를 알리며, 2층은 목포에서 발전한 한국 대중음악의 흐름과 이난영 등 대중음악 가수를 소개한다. 문의 061-270-8455



일본에 원한을 품었다는 것이지요. '노적봉 밑에 남'은 목포 바다에서 활약한 이순신 장군을 의미하고요. 간드러지면서도 애달픈 음색에 귀 기울인다. 목포를 수식하는 말 가운데 하나는 '1흑3백'이다. 3백은 호남·나주평야 일대의 쌀과 신안의 소금, 고하도의 면화를, 1흑은 김을 뜻한다. 풍부한 자원이 모여든 목포항을 빚낸 표현이다. "당시 목포항에는 일본으로 이출되는 쌀, 소금, 면화가 하얗게 쌓여 있었다고 해요. 수탈이 극심했기에 저장도 컸던 곳이 목포입니다. 목포 사람들은 쟁의와 노동운동으로 맞서기도 했습니다." 탄압에도 굴하지 않는 그 시절 청년들이 거리에서, 식당에서 목 놓아 '목포의 눈물'을 부르는 모습을 그려 본다. 이난영의 노래는 힘든 세월을 함께한 가요였을 것이다. 모진 시간을 씩씩하게 살아온 목포 시민과 목포는 꼭 닮았다. 역사를 품고 내일로 나아가는 목포는 뜨거운 항구다. ㉔



2023 목포 항구축제

항구도시 목포에서는 파도 위의 시장, 즉 파시가 수시로 열리고 있다. 목포 파시의 전통을 잇는 목포 항구축제가 가을에 열린다. 축제장을 방문해 파시 특별 경매에 참여하고, 어물전 수라간에서 수산물을 바로 요리해 이색 체험을 즐긴다.

기간 10월 20일~22일 장소 목포항, 삼학도 일원
문의 061-270-8441



미술에 빠진 대한민국

Art in Korea
2023.9.1.(금)-9.11.(월)

이번 가을, 미술주간 기간 동안 KTX타고 전시와 행사를 만나볼까요?
전국 9개 지역에서 290개의 참여기관이 미술주간과 함께합니다.



Into the Time of Mokpo

A new day unfolds upon the traces of accumulated time. I walk through Mokpo, a city that holds the passage of years.

The train arrives at its final stop, Mokpo Station in Jeollanam-do Province. I had left early in the morning to step back into the city's golden days. My destination is 1897 Open Port Culture Street, often referred to as the "roofless museum." I plan to explore Mokpo as it was in 1897, when it first encountered modernization, and 1935, when popular music flourished.

Opened Independently to Foreign Trade

Here, you can embark on a journey through time even without a time machine. My starting point is Mokpo Gourmet Culture Gallery Haegwan 1897, which can be found along the 1897 Open Port Culture Street.

"Haegwan" is the Korean word for an office that imposes taxes on ships and goods entering the port. Mokpo Haegwan commenced its duties simultaneously with the 1897 opening of the Port of Mokpo, and was renamed Mokpo Customs Office in 1907. Haegwan 1897, featuring a customs history museum and a space for culinary culture, was actually converted from two former customs warehouses.

I step into the small warehouse that now serves as the customs history museum. Mokpo is the fourth open port after Busan,

Wonsan, and Incheon. What sets it apart from previous open ports is that it was opened independently on the orders of King Gojong, without negotiations with Japan. The customs office was responsible for conducting ship inspections and imposing tariffs to generate government revenue.

The distinction between forced opening and independent opening becomes clearer in the context of place of settlement, which refers to the designated residence area for foreigners. Ports that had opened earlier provided government residences to Japan and China, but the Port of Mokpo implemented a policy for all foreigners to reside collectively in a common area. This prevented foreigners from taking advantage of their extraterritorial status to survey the Korean coastline or harbor military-related intentions.



- 차세대 작가 프로모션 지원
- ▲ 미술여행
- 무장애 프로그램
- ★ 작가미술장터
- ♣ 체험·창작 워크숍
- ♣ 미술주간 참여기관

숲이라는 치료제

오랜 역사가 어린 아름다운 섬, 인천 강화.
이름도 거룩한 마니산에서 숲의 처방을 받았다.

마니산 치유의숲



자동차로 접근하기 좋은
마니산 관광지 초입에
치유의숲을 조성해 놓았다.
1킬로미터 구간이라
부담 없이 걸을 만하다.
토·일요일에는 숲해설사가
안내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한다.
문의 032-930-3563



치유의숲이라 했다. 살아 있기에 누구나 어디가 아프다. 이름 붙은 병이든, 명확한 병명은 없지만 몸과 마음의 불편함이나 어그러짐이든. 의무의 연속인 도시의 일상에서 하루하루 닳아 가는 사람에게 숲이 어떤 진단을 내리고 처방을 해 줄까? 강화 바다의 유혹을 뒤로하고 이번엔 숲으로 든다. 신령하기로 으뜸이라는 마니산 치유의숲이다.

신령하고도 편안한 마니산 치유의숲

뽕뽕이 솟은 나무, 바닥의 흙. 치유의숲 입구에 선 순간, 자동차를 타고 몇 분 전 밟은 인공의 도시가 지워진다. 벌써 치유되기 시작한 기분이다. 마니산 치유의숲은 강화도에서 가장 높은 해발 472.1미터 마니산 아

래쪽에 산책하기 좋게 조성했다. 1킬로미터 거리라, 오늘 운동 좀 하겠다고 큰마음 먹고 나서지 않아도 괜찮다. 자연이 주인이자 의사인 숲을 찾은 손님으로서 겸손하고 고마운 마음을 갖는 정도가 준비라 할까. 숲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해 제대로 숲을 누려 볼 참이다. “나무는 물과 햇볕으로 살아가는 존재지요. 여기에 꼭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바람이에요.” 초입에서 나무가 내준 그늘에 서서 조윤희 숲해설사의 설명을 듣는다. 안내에 따라 눈을 감으니 시각을 제외한 나머지 감각이 생생해진다. 아롱지는 햇살, 땅 아래 흐르는 물, 그 물을 향해 흠을 헤치고 뚫어 나가는 나무의 뿌리. 숲과 사람에게 오늘 치 바람이 불어온다. 바다를 건너온 바람, 나무 사이를 누빈 바람이 섞여 폐에 스민다. 물과 햇볕과 바람보다 소중한 것은 없구나.

드디어 치유의숲에 들어선다. 첫 장면부터 키 큰 소나무가 시야를 꽉 채운다. 보통 거대한 무언가를 맞닥뜨릴 때 사람은 자연스럽게 위축될 텐데 나무만은 예외라는 사실이 신기하다. 보호받는 느낌, 나무에 다가가면 오히려 나무가 안아 주는 느낌. 사람 키의 열 배쯤 되는 커다란 나무는 바람이 건드리는 대로 그늘 모양을 바꾸며 걸을 지킨다. 먼저 눈길을 끈 소나무 말고도 숲에는 여러 종류 나무와 풀, 곤충과 동물이 공존한다. 숲해설사와 함께하니 걸음걸음마다 볼거리다. 그냥 산책만 해서는 몰라서 지나쳤을 사연이 쏟아진다. “향기는 식물의 방어수단이거든요. 사람에게 이롭다는 피톤치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공격하는 곤충 같은 대상에 대응하는 거지요.” 해설사가 산초나무 잎을 떼어 볼에 붙여

숲의 처방을 따라 치유의숲을 걸은 뒤 한겨레 얼 체험관에 들른다.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러 왔다는 단군의 따스한 기원 설화를 흥미진진하게 만나는 곳이다.

주자 상큼한 향이 퍼진다. 벌레가 기피하는 향이라고 한다. 음, 이렇게 향기로운데? 역시 내가 좋다고 다른 이도 좋아하라는 법은 없다. 이파리를 붙인 채 서로 쳐다보고 웃는 사람 사이를 호랑나비, 산제비나비가 팔랑팔랑 날아서 지나간다.

작은 개울가 습터에서는 잠시 쪼그리고 앉아 흙 체험을 했다. 나무별로 그 아래 흙 냄새도 차이가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이제야 알았다. 흙을 손에 움켜쥐고 냄새를 맡는 체험은 그 자체로 치유다. 지구를 이루는 흙을 만진 다음에는 지구의 또 다른 요소인 물에 손을 담가 씻는다. 졸졸 흐르는 물에 나무 지팡이를 대어 소리도 들어 본다. 기억은 없지만 무의식엔 남았을지 모를, 태아 시절 엄마 배 속의 소리가 이랬을 듯싶다. 마음이 평화로워져 얼굴에 절로 미소가 떠오른다. 불과 1킬로미터 숲길에 품은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느라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1시간 30분이 짧게만 느껴진다. 그냥 걸어서는 20분이면 충분할 거리. 세상은 빠른 게 재미있다 하지만, 숲에서는 속도를 늦출수록 흥미진진하다. 느리고도 짜릿한 즐거움에 가슴이 뒹다. 손톱만 한 산초나무 잎은 여전히 향긋하다.

시원을 찾으며 놀기, 한겨레 얼 체험공원

마니산 치유의숲을 한 바퀴 돌고 원점에 오면 한겨레 얼 체험공원이 기다린다. 정상 부근에 단군이 제를 올렸다는 참성단이 있는 신령한 마니산을 남녀노소 누리게 하는 곳이다. 이름도 거룩한 단군놀이터는 놀러 나온 아이들로 웃음이 한창이다. 나라를 연 조상이라 하여 근엄하기만 했으랴. 누구나 어린 시절을 지나왔고, 단군 할아버지도 이 아이들을 보면서 흐뭇해하시겠다. 참성단도 원형 그대로 재현해 산 정상으로 오르지 않아도 그 위엄을 '예습'한다. 한겨레 얼 체험관은 한민족의 시원과 강화의 이야기를 담은 전시관이다. 로비에는 전국체전 역대 성화봉



단군이 하늘에 제를 올렸다는 참성단이 있는 마니산에 한겨레 얼 체험공원이 문을 열었다. 단군 이야기와 강화의 역사·풍경을 담은 체험관, 단군놀이터, 천부인광장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실물 그대로 재현한 참성단도 눈길을 끈다.



을 나란히 놓았다. 지금도 체전 때 마니산 참성단에서 자연 채화해 성화를 붙이는데, 이름에 빛을 지닌 섬강화와 잘 어울린다. 고대부터 현대까지 체전 의례를 소개하는 제1전시실에 이어 제2전시실은 모니터 속 단군 할아버지를 인터뷰하거나 웹툰 형식으로 신화와 전설을 감상하는 등 인터랙티브 시설이 호기심을 자극한다. 누군가와 싸워 이긴 영웅담이 아닌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러 왔다는 기원 설화가 새삼 따스하다. 제3전시실은 강화의 역사와 풍경을 환상적인 미디어 아트로 상영한다. 평면의 옛 지도에 산이 솟으며 입체 지도로 변화하고, 항쟁의 역사와 오늘날 강화의 풍경이 교차한다. 화면에 빨려 들어갈 듯 감상하고 나오는 길, 소사나무 한 그루가 배웅한다. 실제 참성단에는 돌 틈을 비집고 소사나무 한 그루가 자란다. 거기서



어떻게 싹을 틔우고 자리 잡았는지 인간은 감탄할 뿐이다. 터를 탓하지 않고 묵묵히 제자리에 서서 주변을 빛내 주는 생이 아름답다.

숲이 사람을 치유하는 시간

짧은 구간이지만 치유의숲은 오르막 내리막이 이어진다. 오르막일 땀 올라가고, 내리막일 땀 내려간다. 그 안 온갖 동식물의 모습과 그들의 흔적을 관찰하고 이야기를 듣는다. 깊이 호흡해 향기를 맡고 물과 흙을 만진다. 이게 숲이 내린 처방이다. 사람이 걷는 동안 치유의숲은 사람을 진단하고 치료하고 있었나 보다. 어느새 몸과 마음이 싱그러워졌다. 물, 햇볕, 바람이 완벽한 날의 나무 같은 기분이다. ㉞

힐링
폴링
수원화성



Healing Falling SUWON

정조의 숨결이 살아 있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수원화성에서 무려
축제 4개가 열린다. 경기도 수원에
폭 빠지고 힐링하는 가을이 되겠다.

문의 www.swcf.or.kr/hif1

Festival

01

09.23~10.14

2023 세계유산축전 수원화성: 의궤가 살아 있다



조선의 위대한 왕, 정조. 그의 수많은 업적 가운데 가장 빛나는 것이 바로 수원화성 건설이다. 원대한 꿈을 갖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계획도시를 구상한 정조는 수원을 무대로 삼는다. 당시 첨단 기술을 총동원해 1796년 2년 9개월 만에 완공한 약 5.7킬로미터 둘레의 성은 <화성성역의궤>에 전 과정을 기록했으며, 세계에서 가치를 인정해 199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이 자랑스러운 유산을 기념하는 축제가 올해 3회째를 맞은 '세계유산축전 수원화성: 의궤가 살아 있다'. 개막 공연 <정조의

소망이 이어지다: 기억의 축성>은 화서문을 배경으로 경기시나 위오케스트라, 이희문 등과 시민 공연자가 협연해 진행한다. 화성 축성에 참여한 장인의 노동을 돌아보는 <장인의 광장>, 인형극 <어여차 장인과 모군>, 추석 특별 공연 <완월연, 함께 빛나는 소망의 밤>도 기대를 모은다. 최고 인기 프로그램 <수원화성, 기억을 걷다>는 낮과 밤 세 개 경로와 주제로 확대 편성하는데, 축제 기간 매주 토요일에 동북공심돈을 개방하니 절대 놓치지 말 것. 그 외 전시 <여기, 지금을 보라>, 행궁동 주민이 기획하고 참여한 <성안 사람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기다린다.

기간 9월 23일~10월 14일 장소 장안공원, 수원화성 일원

2023 수원화성 미디어아트



세계의 자랑스러운 유산인 수원화성이 미디어아트 무대로 거듭난다. 올해 세 번째로 진행되는 '수원화성 미디어아트'는 '만천명월; 정조의 꿈, 빛이 되다'를 주제로 한층 빛나는 프로그램과 함께 돌아왔다. 일반 스크린이 아닌 세계유산을 스크린 삼아 펼쳐는 화려한 미디어아트가 눈을 사로잡는다. '만천명월'은 정조가 스스로 지은 호 만천명월주인옹(萬川明月主人翁)에서 따 왔다. '온 시냇물에 비친 밝은 달의 주인'이라는 뜻으로, 강력한 왕권을 갖고 작은 시냇물에게까지 밝은 영향력을 퍼졌다는 정조의 정치적 포부가 담겼다. 이번 미디어아트는 개혁 군주 정조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수원화성 행행을 다채로운 빛으로 표현한 초대형 작품이다.

메인 무대인 창룡문에서는 수원화성 행행을 '준비' '출정' '행렬' '수원화성'으로 스토리텔링한 네 작품을 연작으로 선보인다. 임금이 궁 밖을 나서는 행행에는 1000여 명이 동행했다 하니 실로 엄청난 행사였을 터다. 국궁장·동장대·동북공심돈에서도 다양한 미디어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이 펼쳐지며, 창룡문 성곽길과 수원시 미디어센터도 미디어아트 작품을 선보인다. 나만의 관광 MBTI를 알아보는 체험 또한 깜짝 재미를 선사한다.

기간 10월 6일~11월 4일 장소 창룡문, 동장대 등 수원화성 일원

제60회 수원화성문화제

시민이 주도하고 세대가 공감하는 수원 대표 축제가 60주년을 맞았다. 올해는 혜경궁 홍씨 회갑을 기념한 잔치 진찬연을 연계해 시민 배우 100명이 주제 공연에 참여하며 뜻깊은 시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연은 드론 라이트 쇼와 접목해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과거의 축제를 기억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인터뷰하는 아카이빙 프로그램은 어제와 오늘, 내일을 잇는 기획이다. 모든 방문자가 자유롭게 숨쉬를 뽐내는 '행궁광장 대형 바닥그림'을 비롯해 체험과 참여·공연·전시 프로그램을 풍성하게 준비했다.

기간 10월 7일~9일(전야 경축 타종은 10월 6일 오후 6시 30분, 여민각)
장소 수원화성 일원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 재현



정조대왕은 아버지 장조(사도세자)의 묘소를 화성 현릉원(용릉)으로 옮기고 11년간 열세 번 원행을 떠났다. 그중 1795년 어머니 혜경궁 홍씨 회갑을 맞아 8일간 진행한 을묘년 행차를 수원, 서울, 화성, 경기도가 힘을 합쳐 재현한다. 정조는 재위 기간에 무려 66회 행행을 했는데, 백성을 직접 만나고 소통해 여민동락의 여정으로 만들었다. 능행차 재현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함께하는 하이라이트가 수원 구간. 10월 8일에는 화성 행궁에서 출궁식이, 10월 9일에는 노송지대에서 장안문, 화성행궁을 지나 연무대까지 이어지는 능행차 거리 퍼레이드가 진행된다.

기간 10월 8일(화성행궁 출궁식)~9일(노송지대~연무대 거리 퍼레이드)
장소 화성행궁~대왕고동(8일), 노송지대~수원종합운동장~장안문~여민각~연무대(9일)

이을 프로젝트

×

여행자와 여행지를 잇다



I U L L



P
R
O
J
E
C
T



로컬 관광 산업체, 학교와 연구소, 지자체가 마음을 잇고 뜻을 모아 지역 고유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여행 혁신 사업 '이을 프로젝트'를 펼친다. 어디든 떠나고 싶은 계절, 이을 프로젝트의 제안을 따라 길을 나섰다.



지속 가능한 여행, 여행자와 여행지가 상생하는 여행

이

이들 프로젝트는 산업체·학교·연구소·지자체가 힘을 합쳐 하나의 사업단을 조성하고, 지역이 상생하기 위한 여행 상품을 개발하도록 독려하는 사업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019년부터 이들 프로젝트 공모전을 통해 관광자원이 상대적으로 덜 발굴된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단을 선정, 지원 사업을 전개해 왔다. 프로젝트의 목표는 명료하다. 잠재된 여행 콘텐츠를 발굴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 이로써 여행자에게 다채롭고 색다른 경험을, 지역민에게 전에는 없던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며 상생의 가치를 실현한다.

높고 푸른 하늘, 맑고 시원한 바람이 흐르는 계절. 다채로운 기획으로 성장을 거듭해 온 이들 프로젝트를 만나러 부산, 경남 남해, 전남 해남으로 떠났다. 부산 광안리해수욕장에서 패들보드에 오른 채 영화를 감상하고, 남해 미조항에서 바다를 배경으로 한 공연을 즐기다가, 해남 구석구석을 캠핑카로 누비며 더없이 눈부신 풍광을 마주했다. 이들 프로젝트가 있기에 가능한 최선의 여행, 최고의 순간이었다.



이



이을 프로젝트
체험기
#1

물결 따라 찰랑이는 광안리의 낭만

아스라한 노을빛 바다를 패들보드로 누비고,
검푸른 하늘에 드리운 스크린과 드론 쇼를 마주한다.
일본일초가 아까운 광안리의 밤이 흐른다.

BUSAN



부산수영
야간 레저 & 문화 관광,
광안리 바다영화관



말간 하늘과 질푸른 바다, 그 사이를 가르는 장쾌한 광안대교. 역시 부산에 오길 잘했다며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풍경이다. 느긋한 파도에 두 발을 참방거리고 민락항에서 회 한 그릇 비우는 것으로도 제법 충만한 여정이지만, 과연 이것이 광안리의 전부일까? 광안리해양레포츠센터를 베이스캠프 삼아 다양한 해양 체험 활동을 선보이는 '블루윙'의 장대운 대표는 우선 패들보드에 몸을 실은 채 바다로 나가기를 권한다. "광안리해수욕장은 광안대교 덕분에 여느 바다보다 비교적 파고가 낮고 수면이 잔잔합니다. 패들보드를 즐기기에 이만한 바다도 없죠. 수영구도 광안리해수욕장과 패들보드를 여행 콘텐츠로 육성하고자 아낌없는 지원과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가을엔 한국 최초 SUP(스탠드 업 패들보드) 국제 대회를 이곳에서 유치하기도 했으니까요."

이을 프로젝트에 참여한 지 올해로 2년 차에 접어든 블루윙의 주력 프로그램은 수영구와 협력해 완성한 야간 레저 상품 '광안리 바다 영화관'이다. 저물녘 바

다에 나가 패들보드를 즐기고, 어둠이 내리면 거대한 플로팅 스크린 앞에 모여 영화를 관람하는 낭만적인 코스다. "2021년 제26회 부산국제영화제 '동네방네 비프'에서 진행한 일회성 행사를 상설 프로그램으로 만든 겁니다. 호응도 대단했고, 바다에서 영화를 하는 장면은 그 자체로 영화 같더군요. 근사한 아이디어라도 여행 상품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일몰 이후 야간 무동력 해상 레저 활동을 자체 해 온 기존 규범을 완화하기 위해 수영구와 해경의 협조가 필요했고, 블루윙과 영산대학교 스포츠공무원학부(레저스포츠관광전공)는 물 썰 틈 없는 프로그램과 안전 조치를 마련했지요. 여러 주체의 선의와 도움이 값진 결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장 대표는 자랑스레 말을 이었다. "이제 바다로 나가 보시겠어요?" 블루윙이 마련한 다채로운 해양 레포츠 연계 프로그램 중 유독 눈에 띄는 두 글자, '요트'를 따라 뱃놀이에 나선다. 패들보드 체험과 영화 감상에 앞서 요트로 광안리 앞바다를 유람하는 패키지다. 하얀 햇살 아래, 그

보다 더 하얀 요트가 파란 물살을 가르며 시원스럽게 질주한다. 광안대교를 통과한 요트는 동백섬과 민락항의 눈부신 풍경 앞에서 한참 머물며 승객들에게 '인생 사진' 남길 순간을 선사한다. 불과 다섯 시간 전만 해도 책상에 매인 신세였는데, 별안간 요트에 누워 신선놀음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니. 과연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게 인생이다.

어느덧 하늘이 붉어지고, 초현실적 행복은 이어진다. 짧은 강습을 마친 뒤 패들보드에 앉아 노를 저을 차례. 요령껏 두 발로 서서 SUP를 즐겨도 좋겠지만, 마음의 여유가 없는 뱃사공은 그저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뿌듯하다. 수면을 둥둥 떠다니는 게 꼭 구름을 타고 노는 기분일까. 사위가 검푸른 빛으로 물들자 눈 깜짝할 새 드론 수심 대가 은하수처럼 반짝이며 창공을 수놓는다. 한편에선 본격적으로 영화를 시작한다. 빛이 모여 영상이 되고 이야기가 되어 흐르는 순간. 불어오는 부드러운 해풍에 스크린이 흔들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마음도 출렁인다. 영화처럼 감미로운 어둠이 깊어 가고 있다.



블루윙 + 수영구

블루윙은 광안리해양레포츠센터에서 패들보드를 타고 즐기는 야간 해양 레저 프로그램 광안리 바다 영화관을 운영한다. 수영구와 영산대학교의 협력으로 보다 안전하고 믿음직한 프로그램을 완성했다. 요트, 밴드 왜건, 바나나보트, 비치 폴장 '워터 플레이 그라운드' 등 여러 가지 액티비티와 연계하면 더 즐겁다. 올해 부산국제영화제 기간에도 광안리 바다 영화관에서 영화를 상영할 계획이니, 영화 팬으로서 특별한 경험을 하고 싶다면 프로그램을 예의 주시해야겠다.

📍 부산시 수영구 광안해변로54번길 222
☎ 051-622-0027

이을 프로젝트
체험기

#2

감각 세포를 깨우는 미조항에서의 하루

갈매기도 어선도 느릿느릿 움직이는 남해 미조항.
고막을 황홀하게 하는 클래식 음악 연주와 허끝을 간질이는 진미를 즐긴다.
스페이스 미조가 선사하는 공감각적 즐거움이다.



경남 남해
지역 자원을 경험하는
여행 상품, 미조와

NAMHAE

미륵이 도운 마을, 미조. 조도와 호도를 거느린 눈부신 바다와 맛 좋은 멸치로 이름난 미조항은 경남 남해군 동남쪽에 걸친 호젓한 어촌이다. 바람과 파도, 햇빛과 물살마저 느긋한 이곳에 문화적 자극과 활기를 불어넣는 공간이 생겨났다. '스페이스 미조'가 그 이름이다. 오래전 쓰임을 다한 냉동 창고를 살뜰히 개조해 다채로운 문화 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점으로 되살린 결과다.

건물 내부와 동선은 미로처럼 이루어졌으나 그저 몸과 마음이 내키는 대로 움직이다 보면 한붓그리기 하듯 곳곳을 살필 수 있다. 우선 입구에 들어서면 남해 특산물로 만든 음식과 음료를 선보이는 카페 겸 다이닝 '플랫폼'의 환대를 받는다. 싱그러운 토마토와 마늘종을 넉넉하게 썰어 넣은 '토마토마쫄쫄 파스타'부터 멸치를 주재료로 사용한 '미조 & 초비 월넛 파스타', 블랙베리 향이 흐드러지는 '남해 블랙베리 모히토'에 이르는 여러 메뉴가 미각의 즐거움을 일깨운다. 한편에선 남해에서 나는 물건을 그려모아 판매한다.

특히 남해 멸치로 제조하고 스페이스 미조만의 근사한 패키지를 입힌 멸치 액젓과 안초비 절임은 여행 기념품으로, 나를 위한 선물로도 더할 나위 없다.

창고 시절 쓰던 냉동 코일이 늘어선 좁은 통로를 통과하니 전시실 '워프'에 닿는다. 타임 워프한 것처럼 낯설고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는데, 그 중심엔 예술 작품이 자리한다. 국내외에서 활동하며 독창적 세계를 일궈 온 미술가들이 번갈아 가며 워프를 점유하는 중이다. 위층으로 이어지는 공연장 '워프 플러스'에선 정상급 뮤지션이 자아내는 황홀한 무대가 열린다. 마침 첼리스트 최민지, 클라리네티스트 김길우, 피아니스트 이승연의 공연을 감상할 수 있었다. 이때, 미조 앞바다가 어른거리는 거대한 창문이 강렬한 감흥을 불러일으켰다.

"남해 미조면의 도서 지역 활성화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도시건축연구소 양지가 스페이스 미조의 운영 주체를 물색하던 남해군과 협력해 이 공간을 기획했습니다. 동시에 남해군의 지역 기업으로서 활동할 주식



회사 아랑지를 설립해 공간을 이끌어 갑니다. 충남 공주의 제민천 변 복합 문화 공간에서 로컬 기반 콘텐츠를 개발해 온 마을호텔과 손잡고 다양한 이야기거리와 즐길 거리를 개발하고 있어요." 스페이스 미조의 양승희 대표는 공간과 지역이 지닌 가치를 알리는 일에서 큰 보람을 느끼는 기획자다. "지역과 상생하며 여행 자원을 구축하려면 물리적·경제적 여건을 두루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프로젝트 같은 든든한 지원과 관심이 필요한 이유죠."

이를 프로젝트 선정 2년 차. 아랑지는 지역 기반 콘텐츠를 발굴하고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경제 기반을 닦고자 다양한 사업을 궁리한다. 여행자는 이 노력의 달콤한 결실을 누리기만 하면 된다. "스페이스 미조의 모든 프로그램을 느긋하게 즐겨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 점심에 방문해 음식을 맛보고, 고요한 바다와 천천히 움직이는 고깃배를 마주한 채 공연과 전시를 감상하는 거예요. 건물을 천천히 거닐며 역사와 공간을 음미해도 좋아요." 온화한 남해 바다가 우리에게 어서 오라 손짓한다.



아랑지 + 남해군

문화 체험 거점 공간 '스페이스 미조'의 프로그램은 가을에 한층 무르익는다. 9월에는 독일에서 활동하는 키네틱 아티스트 고현정 작가의 새로운 전시가 열린다. 부대 행사로, 아이들과 움직이는 장난감을 만드는 참여형 프로그램을 기획 중이다. 반도네온 연주자와 함께하는 열정적인 탱고 음악 콘서트도 준비하고 있으니, 방문 전에 스페이스 미조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space.mijo)을 꼼꼼히 살피길 권한다.

📍 경남 남해군 미조면 미조로 254
☎ 055-867-8072

이을 프로젝트
체험기
#3

홀가분하게 즐기는 해남 차박 여행

캠핑카 '꿈카'를 타고 도로를 시원하게 내달린다.
꿈카 이용 안내서의 추천에 따라 전남 해남의 대표 여행지를 둘러보고,
바다 옆 캠핑장에 여장을 푼다. 꿈같은 하루다.



전남 해남
캠핑카 시티 투어,
해남으로 가는 꿈카

HAENAM



표지판에 '해남'이라는 글자가 보이기 시작한다. '해남으로 가는 꿈카', 일명 꿈카를 타고 목포역에서 출발해 부지런히 달려왔다. 한반도 육지 최남단에 다다랐다는 사실만으로 가슴 벅찬 곳, 전남 해남을 캠핑카로 누비면서 근사한 풍경을 두 눈 가득 담을 작정이다. 여장을 여느 때보다 단출하게 꾸려 몸도 마음도 가볍다. 계획은 세우지 않았다. 믿는 구석은 오직 꿈카 홈페이지의 '꿈카 이용 안내서'다. 해남의 대표 여행지와 맛집, 카페를 망라한 데다 이를 포털 사이트 지도와 연동해 거리를 손쉽게 가늠한다. 일단 해남에 왔으니 울돌목은 빼놓을 수 없을 터. 첫 번째 여행지, 명량해상케이블카를 경유하기로 한다. 밀바닥을 유리로 만든 케이블카에 아슬아슬한 기분으로 몸을 신는다. "음력 보름과 그믐 무렵 밀물이 높을 때를 사리라고 합니다. 엇그제 사리에도 센 물살에 배가 못 올라왔죠. 소용돌이가 심한 날은 케이블카 안쪽까지 우우웅, 하고 파도 소리가 들립니다". 안전 요원의 설명이다. 그의 말처럼 케이블카가 명량해협 상공

을 가르는 순간 발아래로 용솨음치는 물결이 펼쳐졌다. '물이 우는 길목'이란 뜻에서 유래했다 전하는 울돌목의 지명을 되새긴다. 치열했을 명량해전의 장면도 눈에 선하다. 숨 가쁘게 달렸으니 쉬어 갈 차례다. 꿈카 연계 캠핑장 가운데 울돌목과 가까운 오시아노 스테이션에 머문다. 캠핑 사이트에 들어서자 해변이 한눈에 들어온다. "꿈카 이용자는 총 세 곳의 캠핑 스테이션을 무료로 이용합니다. 오시아노 스테이션은 해수욕과 차박을 동시에 즐길 수 있어 가족 여행자에게 인기가 좋습니다." 꿈카를 기획·운영하는 주식회사 파라의 송도영 대표는 올해부터 이을 프로젝트의 지원으로 사업을 전개해 왔다. "캠핑카로 시티 투어를 하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정해진 일정이 아닌, 내 맘대로 장소를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야영하는 거죠. 교통 문제로 여행을 주저하실까 봐 목포역 근방에 꿈카를 수령하는 '꿈카존'도 마련했습니다. 조금 더 편리하게 해남으로 놀러 오시길 바라면서요."

기발한 아이디어지만 사업이 안착하기까지 순탄하지 않은 않았다. "캠핑카와 시티 투어를 결합한 여행 상품은 전례가 없어 기관을 설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때마침 이을 프로젝트 공모에 운영 주체로 뽑혀 해남군의 협조를 얻게 됐죠." 해남군은 꿈카 이용 안내서에 게재한 여행지·맛집·카페 목록을 구성했을 뿐 아니라 꿈카 여행자가 관내 캠핑장인 황토나라 테마촌, 땅끝 오토 스테이션을 무료로 이용하도록 여러 가지 행정적 도움을 주었다. "해남군의 협조 덕에 꿈카 프로그램을 합리적 가격에 책정했습니다. 현재는 해남군과 투어 패스를 기획 중이에요. 해남군에서 관리하는 여행지는 무료로, 민간 관광지는 할인가로 방문 가능한 패스죠." 꿈카는 나날이 활동 영역을 넓힌다. "머지않은 미래에 기차와 연계한 여행 상품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지역 축제를 함께 즐기는 프로그램도요." 조만간 더 풍성해질 꿈카 여행을 상상해 본다. 꿈카에 설치한 천막 아래 앉아 일렁이는 바다를 응시하다가, 빔 프로젝터를 켜고 영상과 음악을 감상한다. 꿈같은 순간, 꿈결 같은 풍경을 마음에 새긴다. 1



파라+해남군

'파라'는 캠핑 전문 회사다. 캠핑 유통을 시작으로 캠핑장, 캠핑 행사 기획, 꿈카 사업 등을 펼치고 있으며 전문성을 살려 해남군과 긴밀히 협력한다. 올해 10월 7일부터 9일까지 오시아노 관광단지 일대에서 열리는 전남캠핑박람회 공모 사업에 주요 참여 기관으로 해남군이 선정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파라의 협력이 주요했다. 올해 행사에서는 캠핑 장비, 캠핑 관련 체험을 할 수 있으며 동호회 600여 팀이 참가한다. 파라가 꿈꾸는 목표는 해남 관광 활성화다.

📍 전남 목포시 삼합로 35번길 24(꿈카존), 영산로 93-1(파라)
☎ 1668-1141



도산서원-안동

울긋불긋 물든 단풍이 서원을 감싼다. 도산서원은 퇴계 이황이 학문을 연구하며 후학을 양성한 곳이다. 퇴계가 거처하던 공간도 남아 있다. 작은 방에 머물면서도 '완상하여 즐긴다' 하여 '완락재'라 불렀다. 소박한 삶의 태도를 마음에 새긴다.

주소 경북 안동시 도산면 도산서원길 154
문의 054-856-1073



내연산 보경사 시립공원-포항

지난 2월, 보경사 군립공원이 내연산 보경사 시립공원이라는 새 이름을 얻었다. 내연산에서 반드시 들러야 할 곳은 폭포 12개를 만나는 청하골. 관음폭포와 연산폭포를 눈에 담고, 천년 고찰 보경사의 템플스테이에 참여해 쉬어 간다.

주소 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 중산리 622
문의 054-262-2371



한반도지형-영월

굽이치는 한천이 침식과 퇴적을 반복해 작은 한반도를 빚었다. 800미터 정도 걸어 올라가면 나오는 전망대에서 한반도지형을 한눈에 굽어본다. 평당의 동쪽에는 백두대간을 닮은 숲이 이어지고, 서쪽으로는 서해처럼 넓은 모래사장이 펼쳐진다.

주소 강원도 영월군 한반도면 한반도로 555
문의 1577-0545

추석 연휴에 떠나는 가을 여행

황금 같은 명절과 가을, 가족과 함께 또는 혼자 가도 좋은 여행지를 소개한다.



정안천생태공원-공주

자연에서는 몸만 아니라 마음도 쉰다. 정안천생태공원은 공주시와 시민이 힘을 합쳐 조성했다. 유유히 흐르는 정안천 변에 꽃이 흐드러진다. 근처 메타세쿼이아길은 필수 방문 코스. 가을빛을 머금은 큰 메타세쿼이아길이 인생 사진을 약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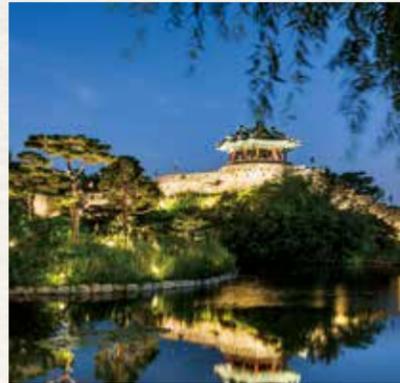
주소 충남 공주시 의당면 의당로 257
문의 041-840-8558



화개정원·모노레일-인천 강화

수도권 유일의 지방정원인 화개정원은 약 18만 본의 식물로 가득하다. 울분 문을 연 이곳은 강화와 맞닿은 물, 역사·문화, 추억, 평화, 치유를 주제로 조성했다. 모노레일을 타고 전망대 스카이워크를 방문하면 서해와 섬, 멀리 북녘땅까지 들어온다.

주소 인천시 강화군 교동면 교동동로471번길 6-60
문의 032-932-2336(화개정원)
032-933-3300(모노레일)



수원화성-수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수원화성은 역사적·건축적 의미도 뛰어나지만, 산책하기도 좋다. 가을엔 일대가 노란색, 붉은색 옷으로 갈아입는 데다 은빛 억새꽃이 만발한다. 야경도 빼놓을 수 없다. 연못과 어우러진 방화수류정의 밤이 낭만적이다.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천로392번길 44-6
(방화수류정)
문의 031-290-3600

+ 더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KTX매거진>과 함께 꽂혀 있는 특별 부록을 펼쳐 가을 나들이를 위한 여행 정보를 얻어 보세요!

2023년 강화 DMZ

평화의 길

레마노션 프로그램

DMZ PEACE TRAIL



당다, 만나다, 이어가다

일 시 | 2023년 5월 ~ 11월 오전10시

진행 요일 | 목, 금, 토, 일 (1일 1회)

참가비 | 1인당 1만원 / 참가인원 : 회당 20명 이내

신청 방법 | 온라인-두루누리사이트(www.dmzwalk.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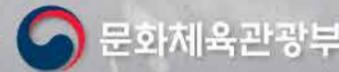
DMZ 평화의 길 고객센터 | 1588-7417 / 평일 09:00~1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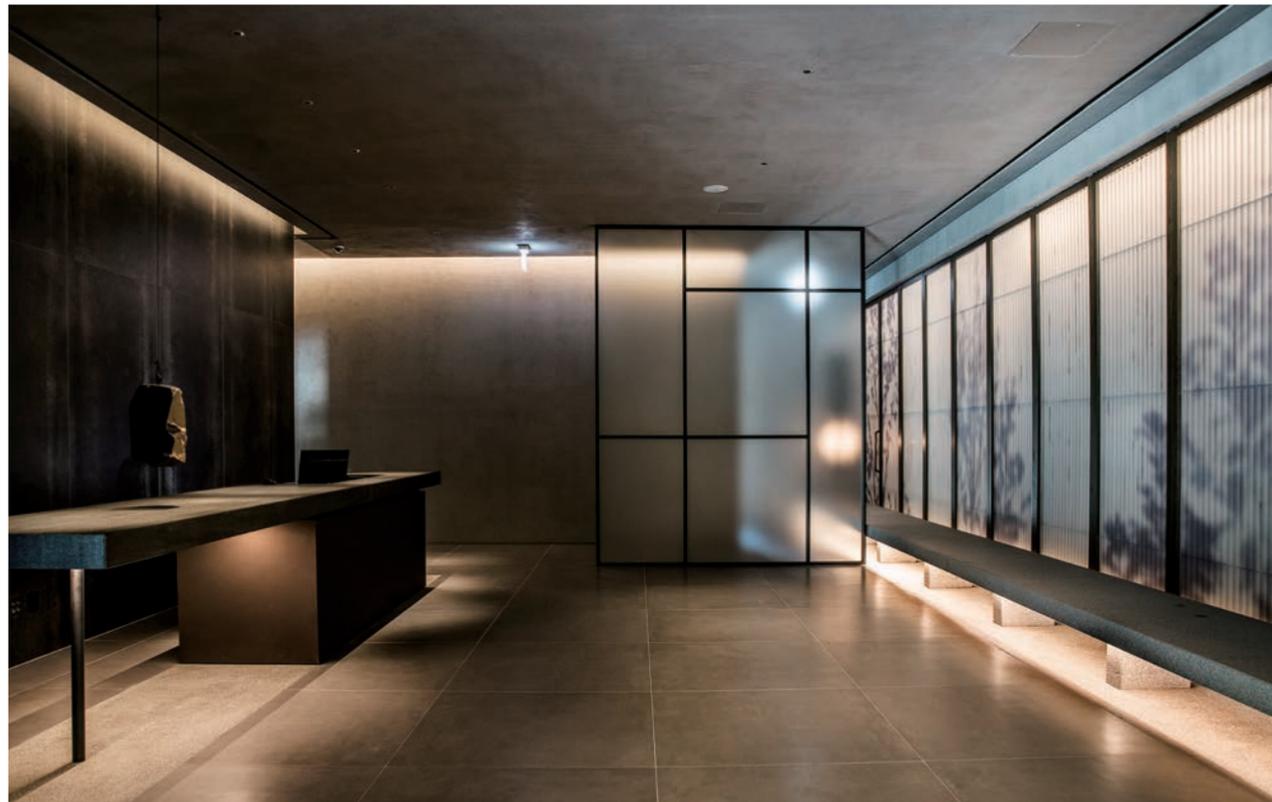


두루누리
DMZ 평화의 길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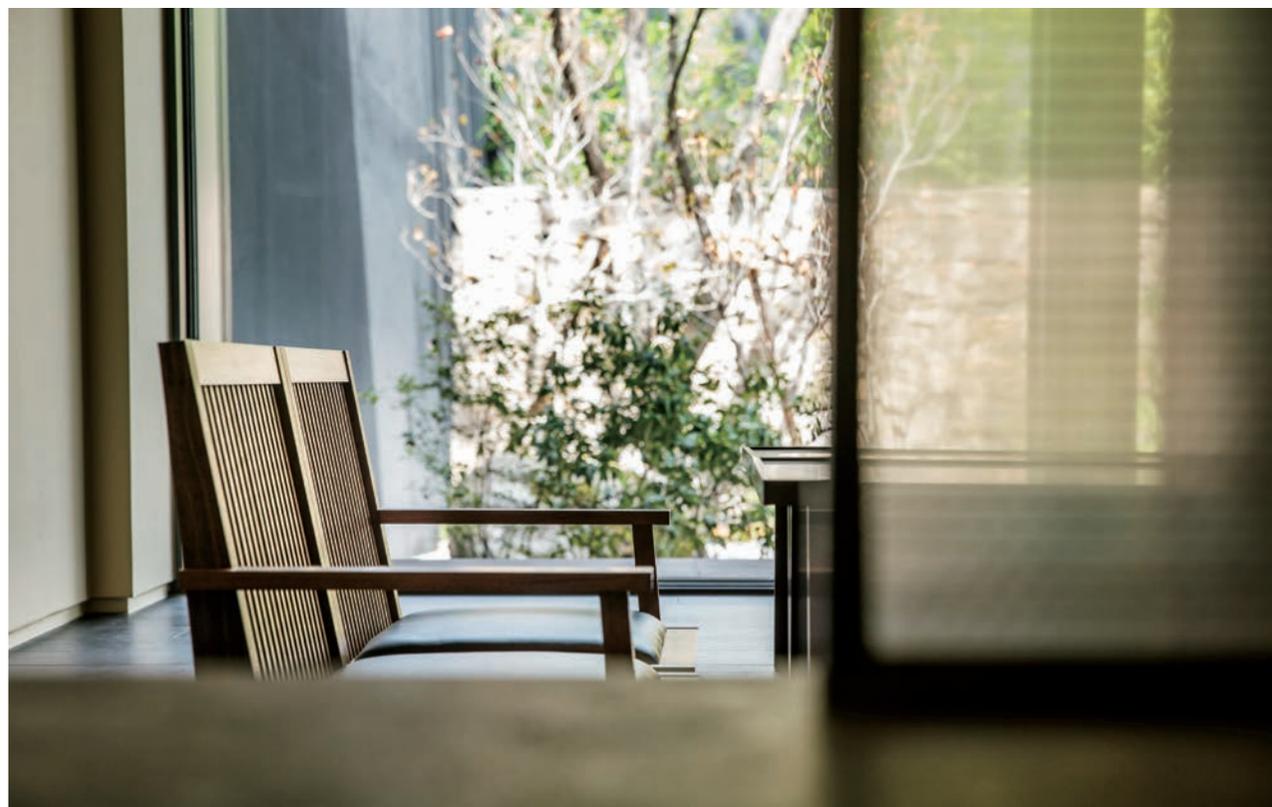
강화 DMZ
평화의 길 전용
카카오톡 채널





자연 안의 침, 유원재

충북 충주의 유원재 호텔&스파가 문을 열고 손님을 맞는다. 오롯한 휴식을 이곳에서 발견한다.



유순 柔順

부드럽고 순하라



거실, 침실, 노천탕 구성에 마당을 갖춘 객실이다. 한지 창호의 흰색과 어두운 목재, 금속 톤이 조화를 이룬 차분한 인테리어가 특징이다.

청심 淸心

마음을 맑게 하라



거실, 노천탕, 현관으로 나뉜다. 안쪽에 배치한 침실은 문을 닫아 독립 객실로 사용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겸화 謙和

겸손하고 화목하라



거실과 침실 일체형으로, 여기에 노천탕까지 연결해 동선이 편리하다. 밝은 원목을 사용해 화사한 분위기가 인상적이다.

수정 守靜

번뇌를 쉬고 본마음을 지키라



거실, 침실, 다실, 바를 포함해 면적이 가장 넓은 객실이다. 중앙 거실의 통창을 열면 곧바로 정원에 자리한 노천탕과 이어진다.

고요한 공간에서 아무 걱정 없이 쉬고, 자신에게 온전히 집중한다. 이번 9월에 문을 연 유원재가 선사하는 휴식의 모습이다. 로비에 들어서면 무채색으로 꾸민 공간이 차분하게 손님을 맞는다. 반대편에는 정봉기를 비롯한 김명식, 김남희 등 지역 작가의 작품을 전시한 갤러리가 자리한다. 그 덕분에 로비에 머무르는 시간도 지루하지 않다. 체크인을 마친 고객은 '라운지 수'를 먼저 방문해 정갈한 웰컴 차와 과자를 건네받고 객실 이용에 대한 안내 사항을 듣는다. 이제 객실로 향한다. 총 열여섯 개 객실은 '유순' '겸화' '청심' '수정' 네 타입으로 나뉜다. 유원재는 단층 구조라 계단이 없어 로비, 레스토랑, 테라피실 등 누구나 수월하게 이동이 가능하다. 장애인을 위한 객실도 별도로 마련했다. 배경음악처럼 줄곧 들려오던 물소리의 근원을 방으로 가는 길목에서 발견한다. 본관과 카페를 잇는 중정인데, 이 공간에 연못을 만들었다. 중간에 놓인 돌다리를 건너 카페로 출입할 수 있다. 맑은 하늘과 충주의 자연이 연못에 데칼코마니처럼 그려진다. 가만히 바라보기만 해도 마음이 정화된다. 눈길이 닿는 구석구석을 고심해 설계했다는 게 느껴진다.

햇살이 비껴 들어오는 복도를 지나 드디어 객실 문을 연다. 기본 2인, 최대 4인이 이용할 수 있는 방은 나무를 주제로 꾸며 따뜻하고 아

늑한 분위기가 감돈다. 소파, 수납장, 침대 등 꼭 필요한 가구만 두어 공간이 복잡하지 않고 여유롭다. 객실마다 정원이 딸려 베란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충주의 맑은 공기를 한껏 들이마신다. 유원재 객실의 하이라이트는 깔끔한 다실이다. 도자기와 다기 세트를 방 안에 갖춰 원하는 시간에 오붓하게 티타임을 즐긴다. 명성 높은 수안보에 자리한 호텔이니 온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다. 객실의 개별 노천탕에서 방해받지 않고 목욕을 즐겨도 좋지만, '라운지 온'의 넓은 탕에서 뜨거운 물로 온몸의 피로를 녹여 낼 것을 권한다. 만족스러운 온천욕을 마친 뒤에 테라피실에서 향긋한 아로마 오일과 함께 전신 마사지를 받으며 하루를 마무리한다. 퇴실하는 날엔 라운지 수 맞은편의 기프트숍을 둘러본다. 이곳에선 객실의 에메니티나 다기 세트는 물론 지역 작가의 작품도 판매하니, 마음에 드는 것을 눈여겨본다. 이토록 평안하게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또 어디에 존재할까. 고민 않고 내일을 맞이해도 좋은 곳, 유원재다. **K**

유원재 호텔&스파
주소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온천리 305
문의 043-820-8100 www.youonejae.com

자연과 맞닿은 삶, 울산 남구

울산 남구를 지켜 온 사람, 울산 남구가 사랑한 사람. 서동욱 울산 남구청장이 애뜻한 애향심과 자부심을 눌러 담은 여행 코스를 제안한다. 강과 호수, 산과 바다를 아우르는 여정이다.

Q. 울산에서 나고 자랐으며 지금도 울산을 지키고 계십니다. 구청장님이 각별히 사랑하는 울산의 풍경이 궁금합니다. 과거와 현재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들려주세요. A. 도시 구석 구석이 모두 아름답지만, 하나만 꼽으라면 장생포의 해넘이입니다. 낡은 냉동 창고를 리모델링한 장생포문화창고에 자리한 북 카페 '지관서가'에서 바라본 노을은 어디서도 보기 어려운 장관이지요. 항구와 공단이 어우러진 장생포는 울산의 역사와 정체성이 집약된 장소이기도 합니다. 울산은 제가 태어났을 때만 해도 인구 8만여 명 규모의 소도시였습니다. 폭발적 성장을 거듭한 오늘날 110만 명 넘는 시민이 거주하는 대한민국 산업 수도로 자리매김했고, 동시에 태화강 국가정원을 품은 친환경 생태 도시의 면모도 갖추었지요. 울산을 생각하면 언제나 가슴이 벅차옵니다.

Q. 5대, 7대 그리고 8대 울산 남구청장으로 재임하면서 지역 상권 살리기를 비롯해 풍성한 여행 콘텐츠를 만드는 데 기여하셨습니다. 그중 기꺼이 자랑하고 싶은 콘텐츠는 무엇인



가요? A. SNS에서 울산을 가리켜 '노잼 도시'라고 놀리는 글에 울산 사람으로서 적잖이 속상하더군요. 울산처럼 매력적인 도시도 흔치 않은데 말이죠. 봄에는 궁거랑 벚꽃 한마당이, 여름엔 영남권에서 손꼽히는 규모의 장생포 수국 페스티벌이 열려 도시를 아름답게 수놓습니다. 1995년 고래대축제로 출범해 오랜 세월 명맥을 이어 온 울산고래축제는 도시를 대표하는 콘텐츠로 자리 잡았지요. 드넓은 철새 도래지, 야간 경관을 활용한 체류형 여행 콘텐츠도 새롭게 만들어 가는 중입니다.

Q. 그리고 보니 축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언제나 축제 분위기로 흥겨운 울산 남구이니만큼, 하반기에 기대할 만한 축제를 소개해 주세요. A. 올가을 태화강 둔치에서 남구강변영화제가 펼쳐집니다. 에어 베드와 평상이 늘어난 캠핑 존에서 느긋하게 영화를 감상하고,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과 먹거리 부스 등을 둘러보며 흥겨운 분위기와 가을밤 정취를 느끼는 축제가 될 거예요. 여기에 태화강 빛 축제가 흥을 더할 예정입니다. 빛으로 환상적인 풍경을 그려 낼 드론 쇼가 이번 축제의 하이라이트죠. 지난해보다 규모를 확대해 다채로운 구성으로 완성도 높은 공연을 선보이도록 준비했습니다. 눈부신 조명이 드리운 강변을 바라보는 동안, 일상의 시름은 내려놓고 근사한 추억을 만들어 남기세요.

Q. 올가을, 울산 남구를 방문할 여행자를 위해 구청장님의 취향을 담은 여행 코스를 추천해 주세요. A. 솔마루길을 따라 걸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선암호수공원에서 출발해 신선산과 울산대공원, 문수국제양공장과 삼호산, 남산과 태화강 둔치로 이어지는 도심 순환 산책로인데, 총 4개 코스 중 신선산 솔숲 산책로를 거닐며 선암호수공원의 절경을 마주하는 1코스는 누구나 가벼운 걸음으로 수월하게 둘러보기 좋습니다. 신선이란 이름이 아깝지 않은 전망이죠. 장생포 고래문화특구도 빼놓을 수 없는 남구의 자랑입니다. 고래박물관에서 모노레일을 타고 고래문화마을에 닿아 울산의 역사, 저마다 추억이 깃든 골목골목을 살펴보세요. 새롭게 단장한 웨일즈 판타지움에서 감각적인 미디어아트를 즐기는 것도 있

지 마시고요. 거대한 고래가 울산의 스카이라인을 유영하는 모습을 담은 몽환적인 영상이 흐른답니다.

Q. 삼호곰창거리를 비롯해 울산 남구엔 여행자의 발길을 끌어당기는 먹거리가 넘쳐납니다. 지역 사람들이 즐기는 숨은 먹거리가 또 있을까요? A.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삼호곰창거리는 한우 특유의 고소하고 쫄깃한 맛이 매력적인 곰창구이로 이름이 높습니다. 태화강 국가정원을 신나게 둘러본 뒤 삼호곰창거리에서 곰창과 맥주로 여독을 씻는다면, 완벽한 하루의 마침표가 될 겁니다. 남구 지역 사람들이 사랑하는 맛집도 알려 드릴게요. 1970년부터 이어진 신정시장 먹거리 골목이 그 주인공입니다. 울산 사람은 물론 여행객으로 북적이는 가게가 여럿이죠. 주문과 동시에 반죽하고 썰어서 면을 만들고 깨, 시금치, 김, 양념장 등을 얹어 맑은 육수에 말아 내는 손칼국수가 대표 먹거리입니다. 쫄깃한 면발과 진한 국물이 마음을 따뜻하게 하거든요. 고래를 품은 울산 남구의 대표 간식, 장생포 고래빵도 안 먹어 볼 수 없습니다. 귀신고래를 형상화한 빵에 호두와 무화과를 듬뿍 넣은 '단디만주'는 만둣새도, 맛도 훌륭해서 여행 기념품이나 선물로 추천하고 싶네요.

“고래박물관에서 모노레일을 타고 고래문화마을에 닿아 울산의 역사와 저마다 추억이 깃든 골목골목을 살펴보세요.”

Q. 여행하기 좋은 울산 남구, 앞으로 어떤 볼거리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A. 2005년 이후 여행자 800만여 명이 방문한 장생포 고래문화특구를 확장하고 콘텐츠를 보강할 예정입니다. 고래문화마을 시즌 2, 고래등길, 장생 고래바람길 조성 등 하드웨어를 축적하는 한편 추억의 만물상, 온나! 장생포 등 맞춤형 콘텐츠로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할 계획인데, 최종 목표는 거대한 복합 체류형 여행지로 확대해 울산을 넘어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하는 것이지요. 자연과 도시와 사람이 공존하는 울산 남구,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고 기쁘게 여행하시기 바랍니다. 📷



PHOTO PICK

울산 남구 여기서 한 컷



장생포 고래바다여행선 야간 연안 투어

- 📍 9월 30일까지 고래바다여행선 야간 연안 투어 운행!
- 📍 매주 토요일 야간 연안 투어를 운영하며, 금요일엔 정박 중인 여행선 선상 무료 개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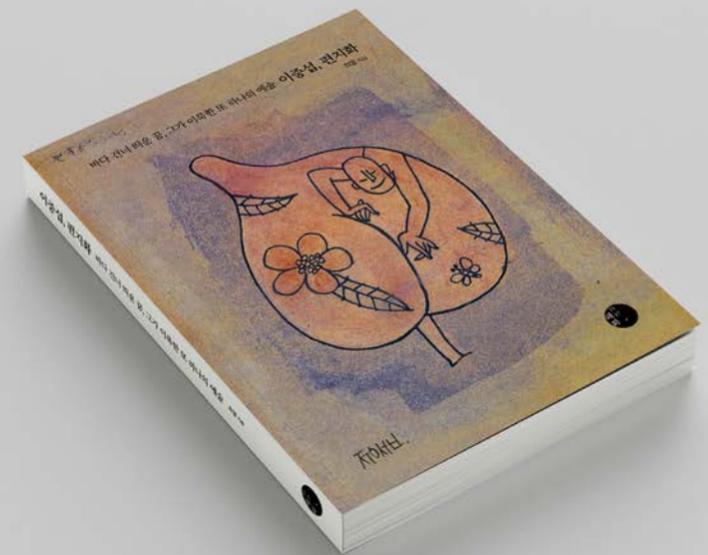
- ↪ 금요일 오후 6시~8시: 여행선 선상 무료 개방
- ↪ 토요일 오후 6시 30분~8시: 야간 연안 투어

* 야간 운항 시 수제 맥주 시음 및 공연 관람!

#울산남구 #행복남구 #장생포 #고래바다여행선 #남구관광 #장생포고래문화특구

<이중섭, 편지화>

“늘 내 가슴속에서 나를 끝없이 따스하게 감싸 주고 용기를 주는 나의 귀중하고 유일한 사람 천사 남덕 씨. 건강하게 잘 지내나요. (중략) 더욱 힘을 내어 추위에도 지지 않고 굴하지 않고 이른 새벽에 일어나 전등을 밝히고 그림을 제작하고 있어요. (중략) 빨리 만나고 싶어 죽겠소.” 화가 이중섭은 6·25전쟁 당시 난민이 되어 생활고와 병마 때문에 아내, 두 아이와 떨어져 지내며 편지를 쓴다. 특유의 그림도 곳곳에 그려 넣었다. 미술사학자인 저자 덕분에 이 아름다운 편지들이 '편지화'라는 장르로 인정받는다. 끝내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세상을 등진 화가의 예술이 된 편지를 차곡차곡 정리했다. 감동이 사무친다. **최열** 지음 **혜화1117** 펴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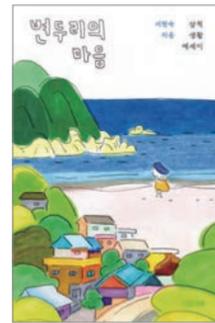
<매우 예민한 사람들을 위한 상담소>

나만 이런가, 솔하게 묻는다. 내가 왜 그랬을까, 자책하길 반복한다. 첫 책 <매우 예민한 사람들을 위한 책>으로 수많은 독자의 내면을 어루만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이번에는 불안·우울·분노·트라우마를 주제로 41가지 상담 사례를 들고 돌아왔다. 공감 가는 사례와 깊이 있는 분석을 읽으면서 나와 타인의 마음을 곰곰이 살핀다. 예민함을 장점으로 만드는 실천 방법을 수록해 더욱 유용하다. **전홍진** 지음 **한겨레출판** 펴냄



<몽글했던 날들의 기록>

경북 예천에서 태어나 세상의 낮고 약하고 자연스럽고 떨리는 모든 것을 사랑하고 글로 써 온 시인이 말한다. “눈을 뜨면 이야기가 시작된다”라고. 맞다. 세상엔 매일 이야기가 쌓인다. 시인은 알고 지내던 사람들에게 마음에 저장해 둔 몽글한 이야기를 꺼내 달라고 졸랐다. 저명한 이부터 난생처음 자신의 사연을 들려주는 이까지, 20대 청춘부터 70대 어르신까지. 각별하고 소중한 글의 향연이 펼쳐진다. **안도현** 엮음 **물결** 펴냄



<변두리의 마음>

교사인 저자는 삼척의 한 고등학교로 발령받고 50년 인생 최초의 독립생활을 시작한다. 낯선 곳에서 출근하기 전날, 노부부가 운영하는 작은 식당에 갔다가 갑작스러운 깨달음을 얻는다. 낯설지만 정 일상을 이어 가는 이 삶이 경건하면서도 유쾌하다는 사실이다. 경계인의 시선으로 삼척을 탐구하다 보니 어느새 삼척도, 사람도 애뜻해진다. 제목대로 변두리의 마음.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다. **서현숙** 지음 **세계출판사** 펴냄

2023 인동국제 **탈춤** 페스티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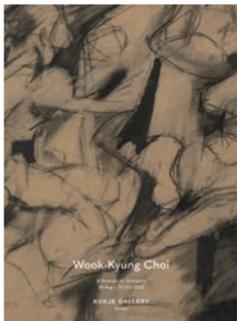
2023.10.2. MON - 10.9. MON
구안동역, 원도심, 탈춤공원 일원



<Velvet Armor>

낯설지만 기억해야 할 또 하나의 이름, 루수단 히자니슈빌리를 만난다. 조지아 트빌리시 출신인 그는 트빌리시 국립 예술 아카데미에서 회화와 영화를 공부하며 건축, 신화 그리고 여성 정체성을 중심으로 한 작품 세계를 구축해 왔다. 신비로우면서도 독창적인 색감이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그의 작품은 신화적 요소를 도입해 여성이 지닌 힘과 기운을 발산하고, 자연물의 도상을 활용해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 준다. 전시 개막일에 아티스트 토크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문화 행사가 함께 열려 감상을 한층 풍부하게 한다.

기간 9월 6일~10월 30일
문의 1644-1454(서울 서정아트 강남)



<낯설은 얼굴들처럼>

한국 추상회화를 대표하는 작가 최옥경의 미국 유학 시절 흑백 드로잉, 판화, 크로키를 모아 소개한다. 자신만의 미술 언어를 고민하던 시기, 그는 의식의 흐름에서 건져 올린 생각의 파편을 진술하고 대담하게 표현했다. 작품 전반에 드러나는 예술가의 고뇌가 묘한 위안으로 다가온다. '낯설은 얼굴들처럼'이라는 전시 제목은 1972년에 작가가 출간한 동명의 시집에서 따 왔다. 기간 10월 22일까지 문의 051-758-2239(국제갤러리 부산)



<SeMA 앤솔러지: 열 개의 주문>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이 개관 10주년을 맞아 과거와 미래를 관통하는 전시를 마련했다. 기술기, 권혜원 등 미술가 아홉 명과 시인 최재원까지 총 10인의 작가가 회화, 설치, 영상, 텍스트 등 다양한 매체로 펼친 예술적 상상을 마주한다. 박이소의 '당신의 밝은 미래'를 제외한 모든 작품이 이번 전시를 위해 마련한 신작이다. 콘서트, 심포지엄 등 연계 프로그램도 다채롭다. 기간 10월 25일까지 문의 02-2124-5201(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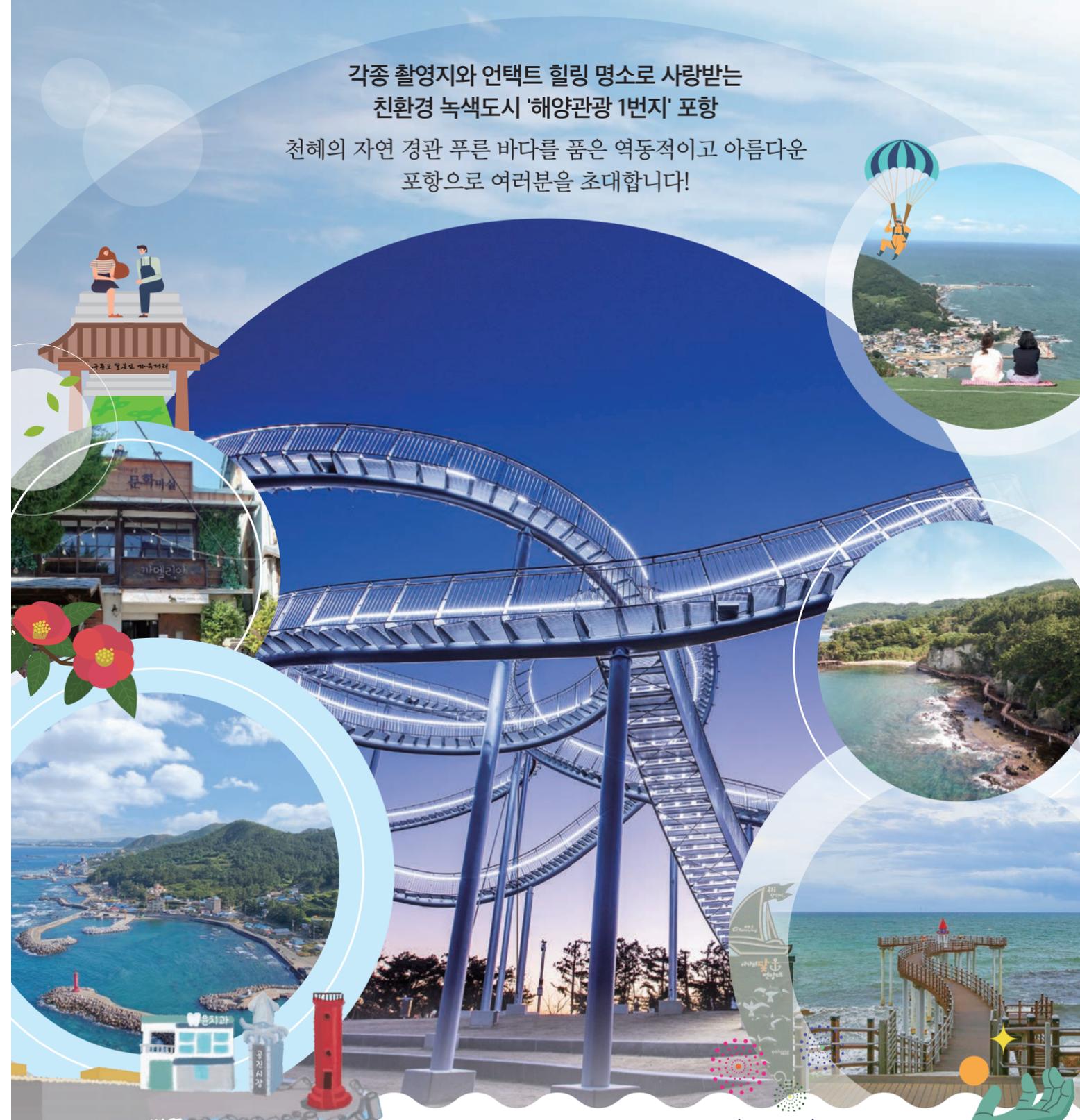
<브라보! 내 안의 풍경>

지역 작가 전시 프로젝트를 이어온 갤러리단정이 경기도 가평에서 활동 중인 이민아 작가 초대전을 연다. 지천명의 나이에 비로소 붓을 쥔 작가는 유년의 추억과 자연의 생명력을 소재로 삼는다. 캔버스 표면에 색색의 띠를 올려 완성한 '컬러 플레인(Color Planes)' 작업에서 독특한 질감이 느껴지는데, 반복적 구성이 자아내는 조형미가 보는 이를 사색과 명상으로 이끈다. 기간 9월 2일~24일 문의 02-6104-0058(서울 갤러리단정)

해양관광도시 1번지 포항

즐거움과 특별함으로 가득한 팡팡!

각종 촬영지와 언택트 힐링 명소로 사랑받는
친환경 녹색도시 '해양관광 1번지' 포항
천혜의 자연 경관 푸른 바다를 품은 역동적이고 아름다운
포항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KBS교향악단과 함께하는 제7회 여수음악제>

낭만과 문화의 도시, 여수에 흐르는 클래식 선율이 마음을 잔잔하게 한다. 8일 동안 이어지는 음악제는 공연을 총 열 번 준비했다. 마에스트로 정명훈이 지휘하는 브루크너 '교향곡 제7번'과 하이든 '첼로 협주곡 제1번'으로 화려한 문을 연다. 그 뒤 정경화·정명훈 남매와 첼리스트 지안 왕이 함께하는 트리오, KBS교향악단 단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콰텟 피날리(Quartet FINALLY)의 연주회가 이어진다. 테너 존노, 색소포니스트 브랜든 최 등 세계적인 음악가들의 무대도 준비했다. 시청 등 여수 일대에서는 '찾아가는 음악회'가 무료로 열린다. **기간** 9월 2일~9일 **장소** 전남 여수 GS칼텍스 예올마루 문의 1544-76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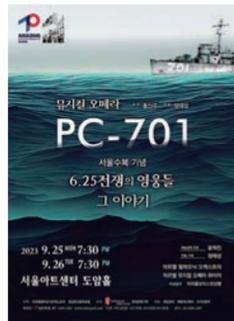
<마리오네트>

한국 국가대표 비보이팀 '익스프레션 크루'가 선사하는 창작 뮤지컬이다. 마리오네트 인형과 빨간 모자 소녀의 순수한 사랑 이야기를 담았다. 사람이 조작하는 줄에 매달려 움직여야만 하는 인형의 슬픔과 환희, 만남과 이별, 좌절과 도전 등 다양한 감정을 서정적인 춤으로 표현한다. 퍼포먼스 중심이던 기존 비보이 공연 방식을 탈피해 신선하다. **일시** 9월 16일 오후 4시 **장소** 경기도 수원 SK아트리움 문의 031-250-5300



<여민락 콘서트>

눈부신 오전, 현대무용을 활용한 신나는 춤 한마당으로 감각을 깨운다. 몸을 사용해 선율을 표현하는 앰비규어스댄스컴퍼니와 안무가이자 예술 감독인 김보람이 뭉쳤다. 춤의 언어화를 지향하는 이들이 '바디 콘서트' '볼레로' '공존' '인간의 리듬' 등 대표 레퍼토리의 주요 장면을 콘서트 형식으로 선보인다. 공연 후 관객과 대화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일시** 9월 20일 오전 11시 **장소** 세종예술의전당 문의 044-850-8921



<PC-701 6-25전쟁의 영웅들 그 이야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 바다로 향했던 영웅들의 이야기가 절절하다. 6-25전쟁 정전 70년을 맞아 제작한 옴니버스 뮤지컬 오페라로, 해군 창설 주역 손원일 제독과 인천상륙작전을 모티브 삼아 한국 최초의 해군 전투함 'PC-701(백두산함)'의 활약을 그렸다. 아르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아르텔 뮤지컬 오페라 콰이어, 미라클보이스앙상블이 합을 맞춘다. **기간** 9월 25일~26일 **장소** 서울 아트센터 문의 02-2266-1307

2023 Great Baekje Festival

대백제전

대백제, 세계와 통(通)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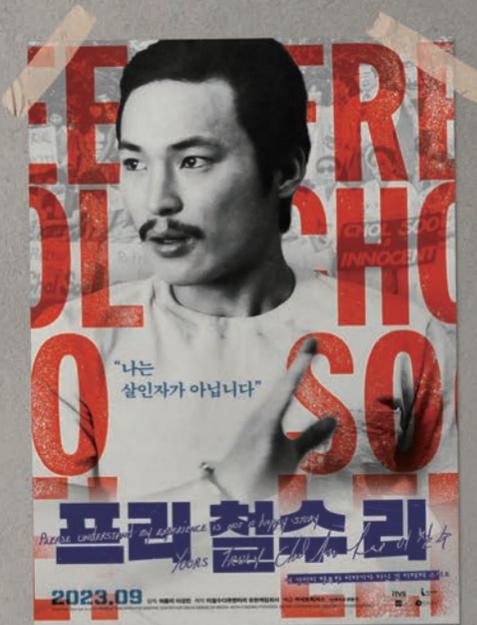
2023. 9. 23.(토) - 10. 9.(월)

개막식 공주 | 폐막식 부여



<프리 철수리>

굴레를 벗어나고자 고군분투한 인물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 영화로 제작했다. 1973년 미국. 살인 사건 용의자로 지목된 한인 청년 이철수는 백인 목격자들의 엉터리 증언으로 교도소에 수감된다. 1978년 한인 기자가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동양인의 공분을 사고, '프리 철수리' 운동이 벌어진다. 동양계 미국인 사회에서 승리의 영웅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그는 예기치 않은 살인을 저지른다. 10년간의 재판 끝에 출소한 이철수 앞에 놓인 삶은 녹록지 않다. 마약에 빠져들기도 하지만, 그는 일어서기 위해 노력한다. 영화는 진정한 자유란 무엇인지, 영웅의 삶이란 무엇인지 묻는다. 9월 13일 개봉. 감독 하줄리, 이성민 출연 이철수, 이경원



<안녕, 내일 또 만나>

평행 우주 속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이런 상상을 스크린으로 옮겼다. 학창 시절 유일한 친구 강현의 추락 이후 20여 년이 지나 40대가 된 동준은 세 가지 평행 우주 속에 존재한다. 각기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동준들이 겪는 사건은 묘하게 겹치고 얽히는데, 동준은 또 다른 나에게서 위로를 얻는다. 작품은 평행 우주 속 나를 그려 보여 현재를 더욱 의미 있게 여기도록 한다. 9월 13일 개봉. 감독 백승빈 출연 심희섭, 홍사빈



<도적: 칼의 소리>

국권을 잃은 1920년대, 일제의 손길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조선인이 하나둘 간도 땅으로 모여든다. 혼란스러운 시절에도 사람들은 각자의 인생을 살아간다. 누군가는 이곳에서 독립군으로 활동하고, 생계를 이으려 마작이 되거나 청부업을 한다. 정체를 감춘 조선총독부 철도국 직원도 있다. 삶의 터전을 지키려 총부리를 겨누는 조선인의 통쾌한 활극이 펼쳐진다. 9월 22일 공개. 제공 넷플릭스 연출 황준혁 출연 김남길, 서현



<인생은 오답노트>

어머니의 부패한 정치 거래 때문에 재산을 압류당한 음발리 하데베. 경찰의 급습으로 구겨진 체면을 회복하고, 부정한 집안의 영향에서 벗어나 삶을 재창조하기로 한다. 인플루언서가 되겠다고 결심한 그는 교내 가십 소에 출연하지만, 명성을 좇을수록 그보다 중요한 게 더 많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10대의 성장통을 그린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드라마 시리즈다. 9월 15일 공개. 제공 넷플릭스 연출 캐서린 쿡 출연 분투 셋세, 룡가 샤발랄라

강한 체력이 필요한 환절기, 보양식 대신 프리주비네이션

급격하게 변화한 날씨에 지치지 않도록 대비할 때다. 환절기, 보양식 대신 든든한 노화 예방 주사 프리주비네이션에 도전해 본다.



아침저녁으로 몸에 닿는 공기가 서늘하게 느껴진다. 환절기일수록 달라진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기력을 끌어 쓰니 보양식 같은 든든한 음식이 입에 당긴다. 하루가 다르게 기운이 없고 온몸이 물에 빠진 듯 무겁게 느껴진다면, 날씨 탓만 하기보다는 체력 저하를 의심해 봐야 한다는 게 조찬호 청담셀의원 대표원장의 조언이다. 조 원장은 건강한 체력을 오래 유지하도록 돕는 프리주비네이션이 근본적인 노화 예방에도 주효하다고 설명한다. "최근 단순히 노화를 늦추는 안티에이징 개념을 넘어 노화를 예방하는 프리주비네이션이 떠오르고 있다"라고도 부연한다. 프리주비네이션이란 일종의 '노화 예방 주사'다.

만성질환과 통증, 미리미리 관리하는 프리주비네이션
누구나 태어난 순간부터 성장하고, 일정 시기에 접어들면 노화가 진행된다. 체력이 예전 같지 않은 것도 더위가 아닌 세포 손상, 혈액순환 저하, 단백질 합성 저하로 인한 근육 감소 등 노화 현상과 연관이 깊다. 이런 증상은 당연히 해가 갈수록 더 크게 와닿을 수밖에 없다. 간헐적으로 섭취하는 보양식에 의존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것이다. 평상시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는 식단과 근육량을 유지하는 꾸준한 근력 운동이 필요하다. 노화 부스터인 만성질환을 적극적으로 관

리하고, 활동을 힘들게 만드는 통증을 초기에 잡아야 한다. 프리주비네이션이 건강관리의 열쇠인 이유다. 대표적인 프리주비네이션 시술은 줄기세포 정맥 주사다. 줄기세포는 자가 재생 능력과 분화 능력을 지닌 원시세포다. 손상된 세포를 회복시키고, 새로운 혈관을 형성해 혈액순환을 도우며, 단백질 합성 효과를 높여 기초 체력을 끌어올린다. 여기서 나아가 난치병 치료, 치매 예방 등의 효과로 의료계에서 주목받고 있다. 조 원장은 "프리주비네이션 시술은 줄기세포를 충전함으로써 몸을 젊게 깨우는 것"이라며, 건강한 상태를 오래 유지할수록 노화가 가속화하는 시점도 더 늦춰진다고 설명한다.

건강한 생활을 유지해 주는 줄기세포 효과
줄기세포를 정맥에 주사하면 체력 증진 효과를 볼 수 있다. 청담셀의원은 이 같은 줄기세포 효과에 주목, 체력 저하와 노화된 몸을 개선하기 위한 줄기세포 정맥주사 '청셀(淸Cell)'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성체 줄기세포를 채취해 링거로 주입, 전신 재생 작용을 촉진한다. 이 밖에 줄기세포를 타겟 부위에 집중 투여해 젊음을 잃어 가는 국소 부위 회복도 기대해 볼 만하다. 성 기능을 증진하는 '성셀(性Cell)', 피부 탄

력을 높이고 주름을 개선하는 '미셀(美Cell)', 두피에 주사해 탈모를 치료하는 '모셀(毛Cell)', 약해지기 쉬운 인대를 더 탄탄하게 해 주는 '활셀(活Cell)' 등이 여기 속한다. 조 원장은 이와 함께 건강을 과신하지 말고 1년에 두세 번 병원을 찾아 정기적으로 건강 상태를 체크하라고 조언한다. 유전자 검사로 취약점을 미리 인지하고, 바이오마커 검사를 통해 현재 상태를 파악하면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내 몸을 잘 아는 '단골 의사'를 만드는 것도 현명한 건강관리 비결이다. "미래 의학은 발병하고 난 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젊음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선제적 안티에이징에 집중하고 있다. 건강한 몸과 아름다운 외모를 오래 유지함으로써 활기찬 인생을 설계하는 게 건강은 물론 경제적인 면에서도 유리할 것"이라고 조 원장은 말한다. 청담셀의원은 '헬스케어 디자인'을 지향하는 의료 기관으로 줄기세포를 활용한 전신 항노화 치료에 특화됐다. 특히 한국에서 골수·지방 줄기세포를 모두 활용하는 극소수 의료 기관 중 하나다. 조선일보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메디컬 헬스케어 대상' 항노화 줄기세포 치료 부문에서 5년 연속 수상하기도 했다. 병원을 이끄는 조찬호 원장은 줄기세포에 관한 연구로 의학 석·박사 학위를 받은 항노화 의학 전문가다.

Treasure of Korea



천 개의 강을 비추는 달과 같이
- 수월관음도

넘실대는 물결 위로 솟은 바위에 관음보살이 앉아 있다. 짙은 푸른색 천의를 걸치고 화려한 붉은색 보관을 쓴 보살 뒤편으로 둥근 보름달 같은 파란 두광과 달빛을 닮은 흰색 신광이 드리운다. 관음보살 옆에는 동자 한 명이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존경의 마음을 담아 보살을 바라보고 있다. 화면 밖의 우리를 고요한 눈빛으로 응시하는 관음보살을 가만히 마주하노라면 어느새 마음이 차분해진다. 하나의 달이 떠서 천 개의 강을 고루 비추듯 어려움에 빠진 중생에게 두루 미치는 관음보살의 자비심을 상징하는 수월관음(水月觀音)은 관음보살의 또 다른 이름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한 보물 '수월관음도'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 긴 여정을 떠난 선재동자가 정토(淨土)인 보타락가산에 머무는 관음보살을 만난 장면을 그린 그림이다. 가을밤, 하늘 높은 곳에서 빛나는 달을 구경하면서 선재동자와 관음보살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자.

Like a Moon Shining on a Thousand Rivers
-Water-moon Avalokiteshvara

The bodhisattva is seated on a rock rising above the rippling waves. Behind her is a circular blue aura resembling a full moon and a white radiance akin to moonlight. In one corner, a pilgrim is gazing at the bodhisattva with his hands clasped together. The Water-moon Avalokiteshvara symbolizes the compassion for sentient beings in hardships, similar to how a single moon shines on a thousand rivers. This painting, part of the vast collection at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depicts the scene of the pilgrim Sudhana meeting the deity on Mount Potalaka. May the moonlit night of autumn let you recall the tale of the pilgrim Sudhana and the Water-moon Avalokiteshvara.

2023 YEONGJU PUNGGI GINSENG FESTIVAL
경북영주

풍기
인삼
축제

2023.10.07. 토
9일간 10.15. 일

주최·주관 | 영주시·(재)영주풍기인삼축제조직위원회
문의 | (재)영주풍기인삼축제조직위원회 (054) 635-0020
www.ginsengfestival.co.kr

Puzzle

<수확을 배우는 숨은그림찾기(자연탐구)>
다섯 종류의 숨은그림찾기가 담긴 채로 집중력과 관찰력을 기른다. 똑같이 보이는 쿠키 중에서 다르게 생긴 것을 찾고, 동물 친구가 어디 숨었는지 둘러본다. 복잡한 규칙을 풀어나 보물 상자를 발견하는 기쁨도 누린다. 아기자기한 그림 덕에 퍼즐을 풀고 나서도 자꾸만 책을 들여다보게 된다.
노란우산 유아 콘텐츠 연구소 지음 노란우산 펴냄
editor. 남혜림 자료 협조 노란우산



농장의 동물 친구들에게요. 다음의 방향 규칙을 따라가면 어떤 동물을 만날 수 있을까요?



*다음 영역에서 타는 친구도 도전할 수 있게 눈으로만 찾아봐 주세요.

*정답면 136쪽에 있습니다.



구궁 방문의 달

로컬 매력

부산 영도구

골목투어

어디까지 해 봤니?

부산대교, 영도대교, 남항대교, 부산항대교 등 부산시 중심가와 4개의 교량으로 연결된 섬마을 영도구! 부산관광공사가 구궁 방문의 달을 맞아 9~10월 부산 로컬 여행지를 영도로 선정했다.

근대 조선 산업 발상지인 부산 영도는 녹슨 배를 벗겨 내는 망치 소리를 빚대어 강강이 마을이라 불렀다. 옛 도선장과 강강이길은 한국 최초의 조선소가 자리하던 영도의 살아 있는 역사를 느끼게 해 준다. 도시 재생 프로젝트는 영도를 예술 마을로 탈바꿈했다. 구석구석 아기자기한 골목을 찾아보는 재미도 빼놓을 수 없다. 역사와 예술의 마을, 하늘과 맞닿은 바다를 보면서 영도만의 감성을 느껴 보자.

KTX 편도 + 렌터카

여행일	2023년 9월 ~
포함 내역	서울 - 부산 1인 편도 KTX 승차권, 렌터카
불포함 내역	여행자 보험, 식대, 개인 기타 경비 등
추천 코스	영도다리 - 옛도선장 - 강강이길 - 용신당 - 옛영도전차종점 - 최초조선소 - 흰여울 문화마을



대여지점안내: KTX 부산역 아스티호텔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214번길 7-8 아스티호텔 1층 106호
차종: 아반떼, K3
차량업그레이드(쏘나타, K5): + 30,000원
자차보험: 현장 결제



KTX 공식 협력 여행사 ☎ 전화 문의 1899-2550
카카오톡 채널 상담 '기차여행센터'

* 기차 시간, 일정 변경 및 인원 조정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 기차 운행 조정, 기차 잔여 좌석 사정으로 인해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천 코스에 맞추어 여행자가 철도 이용 일정 등을 조정할 수 있는 자유 여행 패키지 상품입니다.



Letters from Readers



<KTX매거진>을 보고 나서



쉬엄쉬엄, 치악산 둘레길

이달의 '테마 여행'은 강원도 원주네요. 원강수 시장님이 안내하는 원주, 치악산 둘레길 모두 흥미로웠습니다. '칼만'도 맛보고 싶어요! 만두 마니아인 제가 놓칠 수 없죠. 10월에 열리는 만두 축제에 꼭 가려고 합니다.

송현수 경기도 광주시 순암로



우리 같이 광명나들이

여름방학을 맞아 아이와 함께 서울 가는 길. <KTX매거진>을 열심히 보던 아이가 도덕산공원 사진을 가리키며 말하네요. "엄마, 우리 다음에 여기 꼭 가자!" 아이 눈에도 청량하고 푸른 도덕산이 멋졌나 봐요.

임빛나 대전시 서구 대덕대로

독자 편지를 보내 주세요!

<KTX매거진>을 읽은 소감과 독자님의 여행 사진을 기다립니다. KTX@seoulmedia.co.kr로 독자 평가 들려주고픈 이야기, 추억이 담긴 사진을 보내 주세요(사진은 600KB 이상). 메일에 이름, 연락처, 주소를 꼭 기재해 주세요. 마감은 9월 15일입니다.

기차로 여행하면서



해외에 거주하다 6년 만에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아홉살, 일곱살 남매와 처음으로 KTX 타고 울산 바다 구경하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KTX 덕분에 편안하고 쾌적하게 여행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선 경기도 시흥시 정왕대로

독자 편지에 선정된 분께 선물을 드립니다!

<KTX매거진> 독자 편지에 선정된 분께는 자연에서 온 100퍼센트 천연 유기물질 풀빅산을 함유해 두피 탄력 및 모공 관리,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약산성 풀빅 헤어 샴푸 & 토닉 세트(7만 원 상당)를 선물로 드립니다. 하수오 뿌리, 병풀, 창포 뿌리, 어성초 등 식물성 원료 6종이 예민해진 두피 건강에 도움을 주어 가늘고 힘없는 모발을 튼튼하게 해 주는 기능성 제품입니다.



제품 문의 1522-9158



Information



제13회 철도사진공모전
'가을 속으로 떠나요'

© 김경화



- 122
코레일 소식
- 130
편의 시설 및 부가 서비스
- 132
열차 이용 안내
- 134
비상시 행동 매뉴얼





태풍 대비 수도권 현장 점검



지난 8월 한국철도공사 한문희 사장이 서울역을 찾아 태풍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 열차 서행, 운행 조정 등에 대해 세심한 고객 안내를 당부하고, 승강 설비 등 이용객 편의를 위한 시설도 꼼꼼히 확인했다.

폭염 대비 특별 야간 작업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철도공사가 폭염에 대비해 지난 8월 선로 유지 보수 상태를 선제적으로 살폈다. 야간에 열차 진입을 통제하고 궤도 높낮이 조정, 도상 저항력 확보 등 안전 대비 작업을 진행했다.

'필리핀 메트로' 기관사와 관제사 코레일이 양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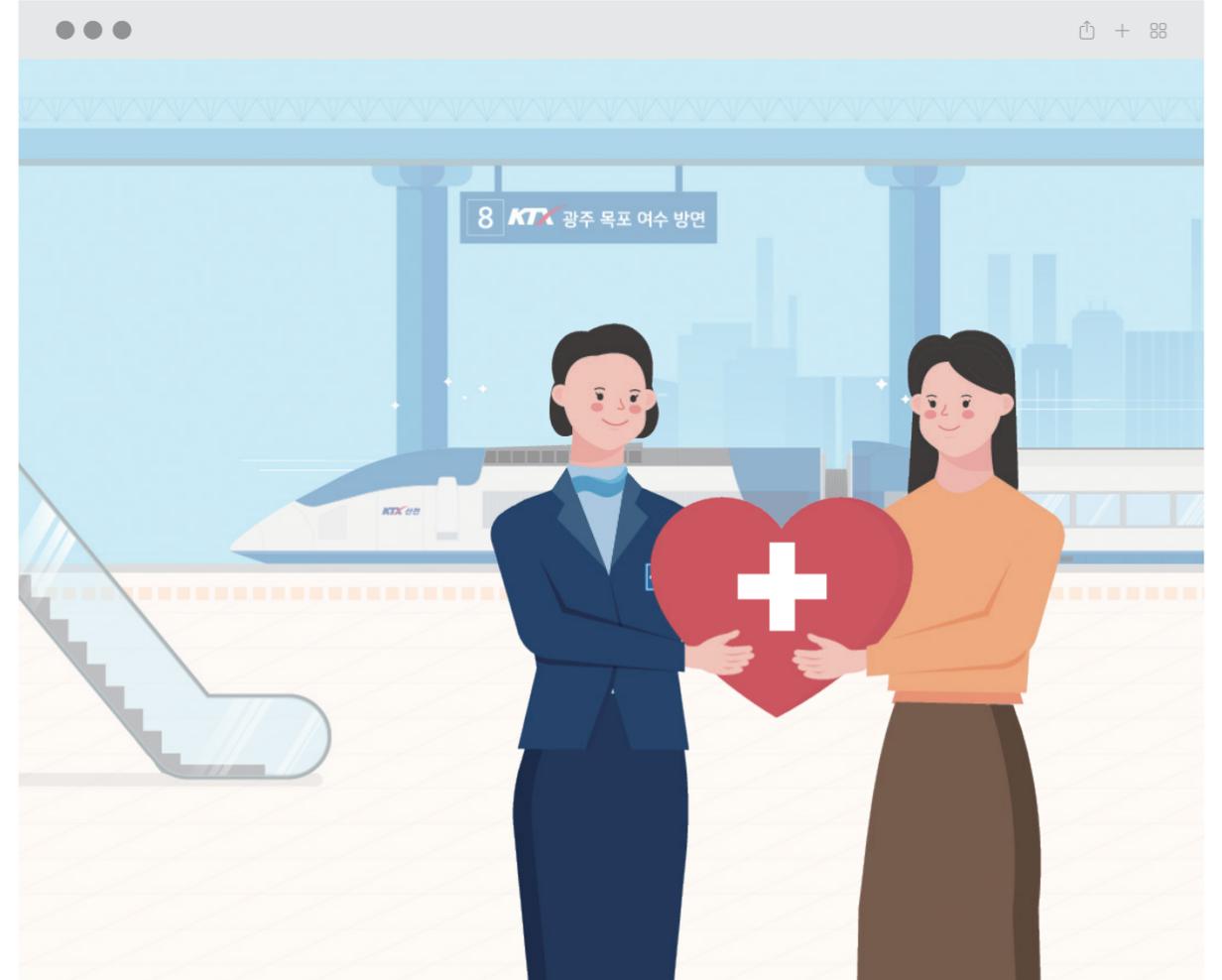


필리핀 메트로에 기술을 전수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가 핵심 철도 인력 양성 사업을 추가로 맡아 2025년 개통 예정인 필리핀 마닐라 메트로 7호선을 운영할 기관사와 관제사 등에게 교육을 진행 중이다.

코레일, '올해의 녹색상품' 12년 연속 수상



한국철도공사가 공공 기관 최초로 소비자가 뽑은 '2023 대한민국 올해의 녹색상품' 상을 12년 연속 수상했다. 이번 심사에서는 동해선 KTX가 친환경 경성, 안전성과 편리성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빠른 속도로 생명을 살리는 KTX KTX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장기 이송 지원

2년 전, 많은 이의 마음을 훈훈하게 한 'KTX가 이룬 3분의 기적' 사건이 있었다. 심장이식수술을 위해 뇌사자에게서 적출한 심장을 서울로 이송해야 했는데, 기상 악화로 항공기가 운행하지 못했다. 일본일초가 아쉬운 위기 상황, 의료진은 코레일에 협조를 요청했고 마침 역에 진입한 KTX의 출발을 3분가량 늦춰 의료진을 태우고 장기를 이송했다. 코레일의 적극적인 협조로 심장이식수술은 무사히 진행되었고,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기적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코레일이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해 뇌사자 장기 이송을 지원한다. 장기 이송과 관련한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의료진 등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KTX에 탑승하도록 도울 뿐 아니라 동선 안내, 좌석 배치 등에 힘쓰기로 했다. 구급차나 항공기는 교통 상황이나 날씨 등에 영향을 받는데, 이러한 환경에 비교적 강한 KTX가 대안으로 꼽힌 것이다. 코레일은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장기 이송 과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KTX를 활용해 최우선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독립기념관 - 한국철도공사 협력전시

역무원 이봉창의 독립운동 이야기

The Story of
Station Worker
Lee Bongchang's
Independence
Activism



전시를 열며

전국 주요 5대 KTX역 순회전시 일정

용산역	강릉역	오송역
8. 4.(금) ~ 8. 20.(일)	8. 21.(월) ~ 9. 3.(일)	9. 4.(월) ~ 9. 17.(일)
부산역	여수엑스포역	
10. 4.(수) ~ 10. 17.(화)	9. 18.(월) ~ 10. 3.(화)	

주최 독립기념관 KORAIL 한국철도공사

※ 전시 일정은 운영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친절 직원을 소개합니다



고객의 편지

안녕하세요, 경남 김해에 사는 70대 부부입니다. 7월 8일 토요일, 서울에 갈 일이 있어 여행 20일 전에 왕복으로 승차권을 예매했습니다. 당일 용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열차에 올랐는데, 예약 좌석에 다른 분이 앉아 있었습니다. 승차권을 다시 확인해 보니 토요일이 아닌 일요일로 예매되어 있더군요. 열차 출발 2~3분 전이라 당혹감은 커져 갔습니다. 열차에서 내려 어찌할지 몰라 우왕좌왕하던 때, 승객 안내 중이던 전미숙 열차팀장님이 다가와 상황 설명을 듣고 우선 열차에 탑승하라며 이끌어 주신 덕에 간신히 승차했습니다. 기차가 출발하자 팀장님은 열차 승무원을 호출해 입석 승차권을 끊어 주셨습니다. 진영역까지 오는 중에도 불편한 점은 없는지 신경 써 주셨지요. 그런 덕분에 저희 일행은 진영역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서툰 저희를 대신해 승차권 취소와 재예매까지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서울고속철도열차승무사업소 전미숙 열차팀장

열차 출발 전, 어르신 두 분과 일행 한 분께서 승차권을 잘못 예매한 것을 알고 다급히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시골에 계신 부모님 생각이 나 세 분을 진정시킨 후 승차권에 대해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입석 승차권이지만 경남 진영역까지 거리가 멀어 복도 간이 의자로 안내한 후 물을 갖다드리고 중간중간 불편한 점은 없으신지 확인했습니다. 승무원으로서 업무에 임한 것뿐인데 고객님의 감동하셨다니 저야말로 감사드립니다.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화내면 한 번 늙는다"라는 말을 언제나 마음에 새기곤 합니다. 미소 띤 얼굴로 고객님과 만나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코레일을 이용하며 기억에 남는 친절 직원이 있다면 코레일 홈페이지(info.korail.com) 고객의 소리로 언제든지 알려 주세요.



해외로 나가는 가장 빠른길

KTX - 공항버스

광명역에서 27인승 공항버스를 이용하시면 가장 빠르게 인천국제공항으로 갈 수 있습니다.

KTX 공항버스(6770번) 운행노선도



KTX 공항버스(6770번) 운임

- 광명역-인천공항(T1,T2) : 15,000원
- 인천공항(T1,T2) - 송도국제교 : 8,000원
- 송도국제교-광명역 : 7,000원

승차권 구입

- 광명역 → 인천공항행 : 전국 철도역, 코레일톡 모바일 앱에서 구입 가능
- 인천공항 → 광명역행 : 인천공항 매표창구, 티머니 go 모바일 앱에서 구입 가능

유의사항

- 송도국제교는 광명행인 경우에만 정차합니다. (인천공항행 무정차)
- 어린이의 경우, 운임의 50%를 할인해 드립니다.
- 운행 간격은 약 20~40분이며, 교통상황에 따라 운행시간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항버스는 도착한 고객 순서대로 탑승하는 자유식으로 운영합니다.

KORAIL SNS



넷플릭스 <D.P. 2> 코레일과 함께했습니다. 배우 정해인과 드라마 <D.P. 2>가 편안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코레일을 응원합니다.



용산역 근처 여행지, 용산역사박물관_용산철도병원 이 용산역사박물관으로 거듭났다는 소식! (코레일 명예기자 @이얏 Next Travel Project)



코레일에서 근무한 사회복무요원의 코레일 입사기! 코레일 사회복무요원을 거쳐 입사까지! 어릴 때부터 철도를 좋아했던 두 직원을 지금 바로 만납니다.



열차 모바일 예매 어렵지 않아요, 코레일톡 완전 정복! 열차표 모바일 예매? 영상 하나로 해결하세요. (이 영상은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함께합니다)



서울역 바로 옆, 문화역서울284_다채로운 문화 예술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문화역서울284'를 둘러보세요. (코레일 명예기자 @우물안개구리)



그거알아? 생수, 쿠키 주는 KTX 특실 & 코레일 열차 서비스! 무선 인터넷, 개우미 서비스 등 KTX 열차 서비스를 확인하세요. (코레일 명예기자 @빠빠로드)



* QR코드를 스캔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보리암

흥미진진하고 매력적인 여행지를 가득 품어 '보물섬'이란 별명을 얻은 경남 남해 12경 중 하나다. '비단을 두른 산'이라는 뜻의 금산 남쪽 봉우리 절벽에 자리한 암자로, 신라 시대에 원효대사가 창건했다 전한다. 한려해상국립공원을 내려다보는 웅장한 경관이 여행자를 맞이한다. 특히 이른 새벽 이곳을 찾으면 두 번 감탄하게 된다. 구름을 비집고 떠오르는 태양과 그 아래 서서히 드러나는 다도해의 모습 때문이다. 절을 상징하는 해수관세음보살이 소원 하나는 반드시 들어준다고 하니, 신비로운 풍경에 기대어 원하는 것을 간절히 빌어 본다.

보물섬 향기에 취하다, 경남 남해 탐방



독일마을

남해의 산과 바다가 어우러져 동화 속으로 들어온 것 같은 착각이 든다. 전통 독일 건축 기법으로 주택을 지어 이국적인 분위기다. 1960년대 독일에 파견되었다가 귀국한 이들을 위해 조성한 곳으로, 아기자기한 산책로를 걸으며 풍경을 감상하노라면 즐거움에 마음이 두근거린다. 마을 레스토랑에서 독일식 소시지도 맛본다.



원예예술촌

길 곳곳에 예술가의 조각 작품과 설치물, 그림 등을 전시해 마치 야외 미술관 같다. 배우 박원숙을 비롯한 원예인이 작은 꽃 한 송이까지 심혈을 기울여 가꾼 예술 마을이다. 시골벽적인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곳에서 휴식하고 싶은 이에게 추천한다. 향기로운 커피 한 잔 들고 마을을 거닐어도 좋다.

한국철도 연계 기차 여행 상품



1박 2일

보물섬 남해·순천만국가정원 기차 여행

첫째 날은 경남 남해의 대표 여행지를, 둘째 날은 전남 여수해상케이블카와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습지 등을 방문하는 일정이다. 금액에 KTX 왕복 열차 및 전용 차량 비용, 숙박비, 케이블카 요금, 식사비, 입장료 등이 모두 포함되어 편리하다. 예약 인원 여덟 명 이상이면 출발한다.

1일차 남해 보리암 → 독일마을, 원예예술촌

2일차 여수해상케이블카 → 오동도 →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습지



1박 2일

통영케이블카·동피랑 마을, 남해 보리암·독일마을 기차 여행

경남 통영 미륵산에서 출발해 총길이 1975미터에 이르는 케이블카를 타고 한려수도 풍경을 감상한다. 산양해양도로를 따라가 통영 달아공원에 닿고, 이순신공원과 동피랑 벽화마을도 둘러본다. 다음 날은 바다가 보이는 남해의 사찰 보리암과 동화 같은 독일마을을 방문한다. 예약 인원 여덟 명 이상이면 출발한다.

1일차 통영케이블카 → 달아공원, 이순신공원 → 동피랑 벽화마을

2일차 남해 보리암 → 독일마을, 원예예술촌



2박 3일

남도 별미 6식 제공·구석구석명소 탐방 기차 여행

전남 담양 메타세쿼이아길에서 여정을 시작한다. 걸음은 죽녹원과 곡성 기차마을로 이어진다. 하루 자고 일어나 전남 순천드라마촬영장에서 명장면을 회상하고, 점심으로 경남 남해의 별미 멸치쌈밥과 멸치회무침을 맛본다. 마지막 날은 전남 여수와 순천이 장식한다. 오동도와 순천만국가정원이 멋진 자연경관을 선사한다. 예약 인원 여덟 명 이상이면 출발한다.

1일차 담양 메타세쿼이아길 → 죽녹원 → 곡성 기차마을

2일차 남해 보리암 → 독일마을, 원예예술촌

3일차 여수해상케이블카 → 오동도 →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습지

편의 시설

일반 객실

Passenger Compartment

좌석 간격
Seat Space



KTX
930mm

등받이와 시트 조절
Seat Adjustment



의자 팔걸이 버튼을 누르면서
등받이를 뒤로 젖히고
시트를 앞으로 미십시오.

이동통신망
Free Wireless Internet Service



열차 내에서 무선 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충전용 콘센트 & USB 포트
Socket & USB Port



열차 내에 콘센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실 서비스

First Class Service

좌석 간격
Seat Space



KTX
1120mm

등받이와 시트 조절
Seat Adjustment



의자 팔걸이 버튼을 누르면서
등받이를 뒤로 젖히고
시트를 앞으로 미십시오.

식음료
Refreshment



특실 이용객을 위한 셀프 서비스
물품은 KTX 3, 4호차와
KTX-산천 4, 14호차에 있으며
특실 생수 자판기는 KTX
3, 4호차 지정 장소에 있습니다.

KTX 미니 도서관
KTX Mini Libr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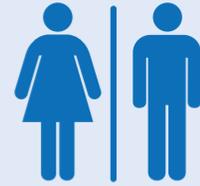
단행본은 KTX 4호차와
KTX-산천 3, 13호차,
잡지·신문은 KTX 3, 5호차와
KTX-산천 3, 13호차 지정
장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AMENITIES

편의 시설

Amenities

화장실
Restroom



KTX 1, 2, 4, 6, 8, 11, 13, 15,
17, 18호차와 KTX-산천 3, 5,
6, 8, 13, 15, 16, 18호차와
KTX-이음 1, 6호차와
ITX-새마을 1, 4, 6호차와
ITX-청춘 3, 6호차에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관련 시설
For the Handicapped



전동휠체어석과 장애인용
화장실은 KTX 2호차와
KTX-산천 1, 11호차와
KTX-이음 3호차와
ITX-새마을 3호차와
ITX-청춘 3호차에 있습니다.

수유실
Breast-Feeding Room



유아 동반 고객을 위한 수유실이
KTX 8, 16호차와
KTX-산천 4, 14호차와
KTX-이음 4호차와
ITX-새마을 6호차와
ITX-청춘 6호차에 있습니다.

물품 보관소
Luggage Storage Section



각 객차에 위치한
수화물 보관대에
여행용 가방 등 큰 물건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AE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자동심장충격기는
KTX 4, 10, 15호차와
KTX-산천 4, 14호차와
KTX-이음 3호차와
ITX-새마을 3호차와
ITX-청춘 3호차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동판매기
Vending Machine



음료 및 스낵 자판기가
KTX 5, 9, 11, 13, 16호차와
KTX-산천 2, 6, 12, 16호차와
KTX-이음 3, 4호차와
ITX-새마을 3, 4호차 지정
장소에 있습니다.

의약품
First-Aid Medicine



KTX 열차 내에
상비약이 준비되어 있어
승무원에게 요청하면 필요한
약품을 제공합니다.

금연
No Smoking



역 승강장과 열차 안은
모두 금연 구역입니다.
안전한 열차 운행과 건강을 위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열림 버튼
Open-Button(1mins)

1분 열림 버튼 The Button to Open the Door for 1 Minute
각 객실 출입문 위쪽에 위치하며, 누르면 1분 동안 문이 열립니다.

열차 지연 배상 안내

천재지변을 제외한 한국철도공사 귀책 사유로 KTX 및 일반 열차 (ITX-새마을, 누리로, 무궁화호, ITX-청춘)가 20분 이상 지연된 경우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서 정한 금액을 배상해 드립니다(지연 승낙 승차권 제외).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지연 발생 시 익일 자동 배상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지연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전국 역 또는 레츠코레일 홈페이지·코레일톡 계좌 이체 신청

KTX 및 ITX-청춘 N카드 이용 안내

모바일 앱 할인 카드인 N카드를 구간과 횟수를 지정해 구입하면 승차권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KTX 및 ITX-청춘을 자주 이용하시는 고객님의 해당 할인 카드로 교통비를 절감해 보세요!

구입 경로 및 이용 안내
코레일톡 앱 → 하단 할인·정기권 탭 → N카드(안내는 ①참고)

* 자세한 사항은 철도고객센터(1544-7788, 1599-787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TX 공항버스



6770번, 광명역 ↔ 인천국제공항(T1, T2)

운행 시간
(광명역) 오전 5시 20분~오후 8시(20~30분 간격)
(인천국제공항 T2 기준) 오전 6시~오후 10시(20~30분 간격)
소요 시간 (T1↔광명역) 약 55분, (T2↔광명역) 약 80분
타는 곳 (광명역) 서편 4번 출구 4번 정류장
(인천국제공항) T1 1층 8B번, T2 지하 1층 45번 정류장
승차권 구입
(인천국제공항 → 광명역) 인천국제공항 버스터미널 매표 창구, 터미니GO 모바일 앱
(광명역 → 인천국제공항) 전국 기차역, 코레일톡 등

레일플러스 교통카드 길라잡이

Rail+

철도 회원이 KTX 승차권을 Rail+카드로
구매 시 1퍼센트 추가 적립,
모바일카드는 KTX 마이리지 전환 사용 가능
교통카드 구매처 편의점(CU, 이마트24, 스토리웨이)
모바일카드 다운로드 '레일플러스' 스마트폰 앱(Android, iOS)
사용처 전철, 버스, 기차, 택시, 유료 도로, 편의점 등
충전처 전철·기차역, 편의점(CU, 이마트24, 스토리웨이) 등
* 자세한 사항은 레일플러스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레일플러스 교통카드 종류



대중교통안심카드 하이패스 R+ 교통카드



railplus.korail.com
QR코드를 스캔하면
레일플러스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열차 이용 안내

승차권 구입

- 열차 출발 1개월 전부터 열차 출발 20분 전까지(코레일톡은 열차 출발 전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 결제 금액 5만 원 이상 시 신용카드 할부 결제가 가능합니다.
- 결제 후 스마트폰 승차권, 홈티켓으로 직접 발권할 수 있습니다.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letskorail.com)



'코레일톡'
스마트폰 앱



승차권
자동 발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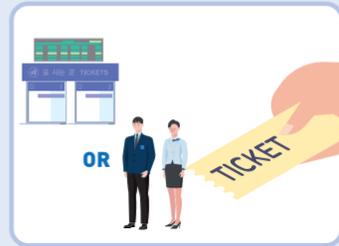
기차역 내 창구
또는 승차권 판매 대리점



'네이버' '카카오'
스마트폰 앱

승차권 분실

- 회원번호, 신용카드 등으로 승차권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금액 반환이 가능합니다.
입석과 자유석 승차권, 분실한 승차권이 변경 또는 반환된 경우, 재발행한 승차권을 반환 또는 변경하거나 도착역 전에 내린 경우 승차권 반환 불가능



역 창구, 열차승무원에게 운임·요금을 다시 지불하고 분실한 승차권 재발급



열차승무원에게 분실 승차권 미사용 확인 요청



역 창구에서 승차권 금액 반환
(최저 반환 수수료 제외)

승차권 반환

- 승차권 반환 시에는 환불 청구 시각, 승차권에 기재된 출발역 출발 시각 및 영수증 금액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구분	출발 전		
	1개월~출발 1일 전	당일~출발 3시간 전	3시간 전 경과 후~출발 시각 전
월~목요일	무료		5%
금~일요일, 공휴일	400원(구입일 포함 7일 이내 환불 시 감면)	5%	10%

구분	출발 후(역 창구에서 환불 신청)		
	20분까지	20분 경과 후~60분	60분 경과 후~도착
월~목요일			
금~일요일, 공휴일	15%	40%	70%

PASSENGER GUIDE

Ticket Booking

- Tickets can be purchased one month in advance and up to 20 minutes before departure (before departure in KORAIL Talk application).
- Installment option available if paying more than KRW 50,000 by credit card.
- Tickets issued as smartphone ticket or home ticket after payment.



Let's KORAIL Website
(letskor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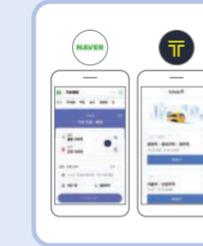
KORAIL Talk
Mobile App



Ticket Vending
Mach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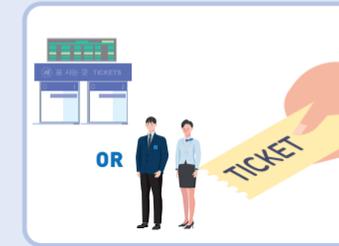
Ticket Booth
or Ticket Retailer



NAVER · KAKAO T
Mobile App

Ticket Loss

- Refunds may be provided for ticket purchases made using the KORAIL membership number or a credit card.
Not applicable to standing tickets, change of lost tickets, change of reissued tickets, and unused sections from alighting before the destination station.



Pay fees at the ticket booth
or to the on-board crew to
reissue your ticket.



Check with the on-board crew that
your lost ticket is unus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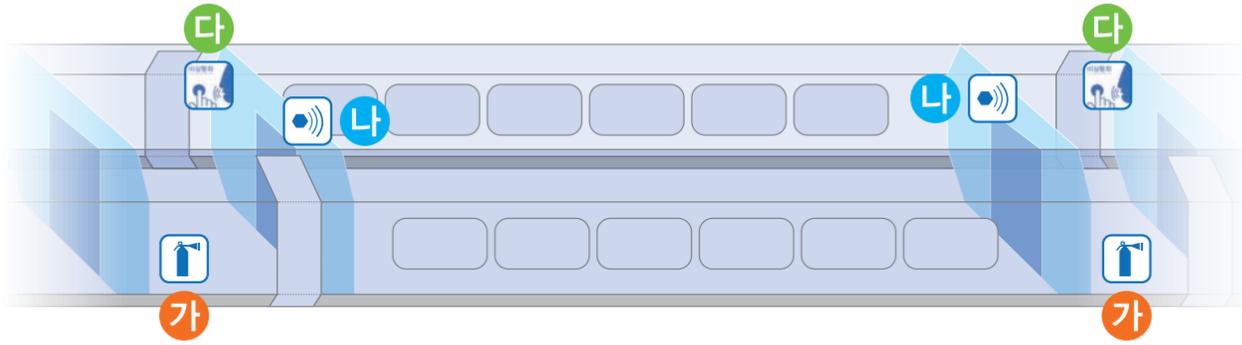
Receive a refund for your lost
ticket at the ticket booth.
(excluding service charge)

Ticket Refund

- Ticket refund value is calculated based on the time of refund claim, departure time specified on the ticket, and original price of ticket on the receipt. Note that a service charge appl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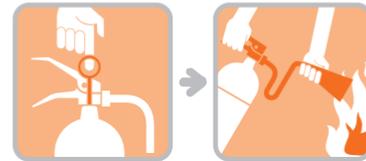
Classification	Before Departure		
	1 month-1 day prior to departure	Day of departure-3 hours prior to departure	3 hours-before departure time
Mon-Thu	Free		5%
Fri-Sun, holidays	KRW 400 (Free within 7 days from date of purchase)	5%	10%

Classification	After Departure (Request refund at ticket booth)		
	Up to 20 minutes	20-60 minutes	60 minutes-arrival time
Mon-Thu			
Fri-Sun, holidays	15%	40%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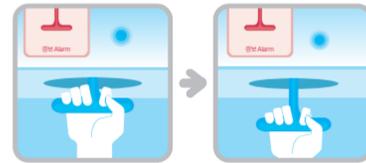
가 소화기 사용 요령
How to Use a Fire Extinguisher

- 승강문 옆 수화물실 아래에 있는 소화기를 꺼내 안전핀을 뽑는다.
Take out the fire extinguisher from the box next to the exterior door and pull the pin.
- 불이 난 장소에 골고루 분사한다.
Spray evenly at the area that is on fire.



나 비상 알람 장치
Emergency Alar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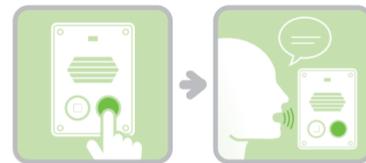
- 객실 내부 출입문 상단의 적색 손잡이를 아래로 당긴다.
Pull down the red emergency alarm handle located at the upper part of the interior door.
- 비상 경보음이 객실 전체에 울린다.
The emergency alarm goes off.



다 승무원 통화 장치
Contacting the Train Cr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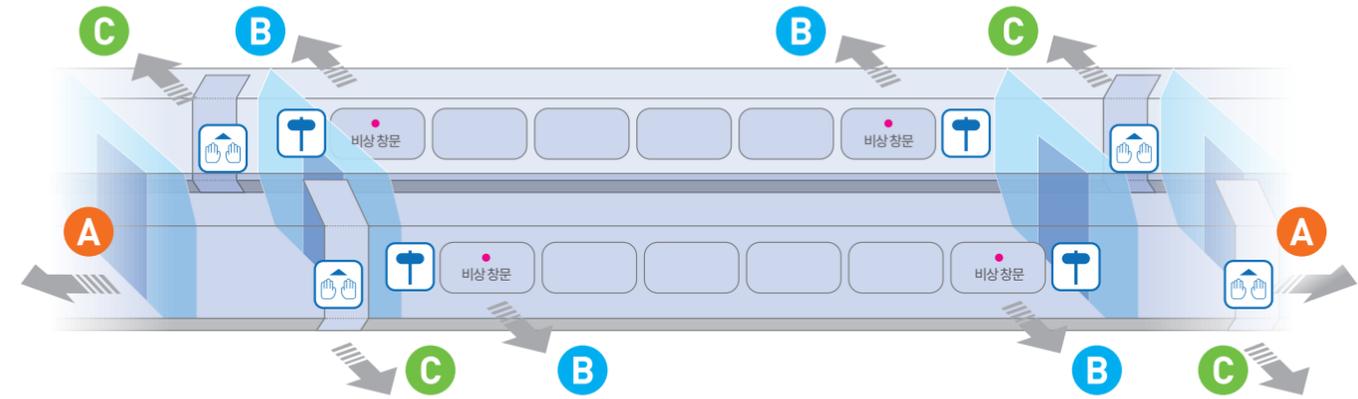
KTX | KTX 산천 | KTX 이음

- 승강문 옆의 버튼을 누른다.
Press the intercom button next to the exterior door.
- 승무원이 응답하면 상황을 알린다.
Notify the train crew of the situation.



ITX 새마을 | ITX 향촌

- 승강문 옆 또는 객실 안에 있는 승객용 비상 호출기 커버를 연다.
Open the emergency intercom box beside at the door or inside the car.
- 마이크를 꺼낸 후 적색 램프가 켜지면 마이크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상황을 알린다.
Take out the microphone. Once the red light is on, press the button on the left of the microphone and inform the situation.



A 다른 객차로 대피
Escape to an Unaffected Car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다른 객차로 안전하게 대피한다. 부상자, 노약자, 임산부가 먼저 피신할 수 있도록 돕는다.
Follow instructions of the train crew and move to an unaffected car. Provide assistance to evacuate wounded, elderly people and pregnant women first.

A 터널 탈출 요령
Escape from a Tunnel

터널 내 비상사태 시 자세를 낮추고 비상 유도등을 따라 가까운 터널 입구로 탈출한다.
Follow the emergency exit light to go out the tunnel exit.

A 비상 사다리 위치
Emergency Ladder Location

KTX: 5호차, 14호차 | KTX-산천: 2호차(일부 편성 4호차)
KTX-이음: 1호차, 6호차 | ITX-새마을: 4호차

B 비상 창문을 통한 탈출
Escape through Emergency Window

- 승강문 탈출이 불가능할 경우 객실 양쪽 끝에 있는 비상 탈출 망치의 보호커버를 깨고 망치를 꺼낸다.
If you cannot escape through the exterior door, break open the glass cover of the emergency hammer box at both ends of each car and take out the hammer.
- 양 출입문 쪽에 있는 비상 창문 유리를 망치로 깨고 옷으로 창틀을 덮은 후 그 위로 나간다.
Break the emergency window at both ends of each car and exit. Put clothing over the windowsills to protect yourself from broken glass.



C 승강문을 통한 탈출
Escape through Exterior Door

KT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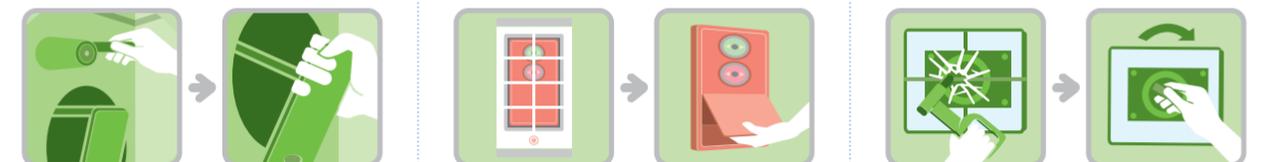
- 승강문 옆 위쪽 비상 열림 장치의 뚜껑을 깨고 위 손잡이를 아래로 돌린다.
Break open the glass cover of the emergency release levers next to the exterior door and pull the upper handle down.
- 아래 손잡이를 앞으로 당기고 승강문 밖으로 밀어낸 후 옆으로 밀고 나간다.
Pull the lower handle down and push the door.

KTX 산천 | KTX 이음

- 승강문 옆 위쪽 비상 열림 장치의 뚜껑을 깨다.
Break open the glass cover of the emergency release level next to the exterior door.
- 핸들을 2회 당기고 승강문을 밖으로 밀어낸 후 옆으로 밀고 나간다.
Pull the handle twice and push the door.

ITX 새마을 | ITX 향촌

- 승강문 옆 비상 열림 장치의 뚜껑을 깨다.
Break open the emergency door release box.
- 손잡이를 오른쪽으로 돌리고, 승강문을 밖으로 밀어낸 후 옆으로 밀고 나간다.
Pull the lever to the right. Push door forward and to the side.





Epilogue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란 가을

이달 잡지를 만들면서 가고 싶어지는 곳이 어찌나 많던지! 먼저 수원. 수원화성을 엄청나게 좋아해 매년 같은 시기에 방문한다. 전철과 버스를 갈아타고 마침내 수원화성에 도착하면 나만의 조선 시대를 탐험하는 기분에 가슴이 똬다. 여기서 축제를 한다니ㅠㅠ 그동안 정조대왕 능행차 행사를 서울 구간만 구경했는데 올해는 꼭 수원에 가야겠다. 다음으로 강화. 강화는 모든 곳이 아름답지만, 몇 걸음마다 용흥궁, 한옥성당, 소창체험관이 나타나는 원도심은 그냥 기적이고 선물이다. 그 원도심을 누비는 문화재야행 어쩔ㅠㅠ 내 사랑 공주에서는 대백제전ㅠㅠ 울산 남구는 강변영화제를, 목포는 무려 파시를 체험하는 항구축제를, 대구 달성군은 피아노 100대를 동시에 연주하는 음악 축제를 연다. 열심과 사심을 꺾고 눌러 담아 잡지와 특별 부록을 제작했어요. 우리, 함께 즐겨요. **김현정**

여행의 법칙

뜻하지 않게 한 해 동안 같은 지역을 두 번씩 방문한다. 한 번은 업무로, 또 한 번은 사적인 이유로. 징크스라 하기에 행복한 우연이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하니문을 보낸 지 석 달도 지나지 않아 사진기자 선배와 응우라라이 국제공항을 다시 찾았고, 오스트리아 빈 출장 이후 반년 만에 가족과 떠난 유럽 패키지여행에서 빈 시티투어를 인솔한 가이드 선생님과 조우했다. 아, 부산과 제주도는 이런 일이 예사로 벌어지는 터라 논외로 치고. 그런가 하면 지난해 9월호 '편집 후기'에 경북 영양에서 즐긴 여름휴가 이야기를 쓰기가 무섭게 또 한 번 영양으로 취재를 떠나야 했다. 이 법칙은 당분간 깨지지 않으려나 보다. 이번 마음을 앞두고 다녀온 여행지가 아마도 다음 달 출장지일 듯하다. 여기서 질문. 이곳은 어디일까요? 힌트는 사진에 있습니다. **강은주**

목포에서 아침을

이른 아침 전남 목포역에 닿았다. 기차에서 내려 자동차로 갈아타자마자 라디오에서 귀에 익은 노래가 흘러나왔다. 영화 <티파니에서 아침을> 주제가 '문 리버'. 이번 취재와 펍 어울리는 배경음악이라는 생각이 스쳤다. 영화 속 주인공이 1960년대 최첨단 도시 뉴욕을 거닐었듯, 나 역시 1897년과 1935년을 상상하며 화려한 개항장 목포를 여행할 작정이었다. 1897년 목포는 활기찼다. 대한제국은 자주 의지로 목포항을 열고 해관을 운영했다. 시간이 흘러 1935년, 먹구름이 드리운 가운데에서도 목포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살았다. 거리마다, 술집마다 '목포의 눈물'을 목 놓아 부르며 애환을 달랬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그 시절의 목포를 걸어 보니 알겠다. 항구도시, 근대도시라는 수식어로는 부족하다. 목포는 세월의 흔적 위에 빛나는 오늘을 쌓아 가는 도시다. **옥송이**

마음속에 또 하나 저장

1. 이번 호는 제가 참여한 스물한 번째 <KTX매거진>입니다. 그만큼 솔하게 여행(이라 쓰고 취재라 읽습니다)을 떠나다 보니, 종종 어디가 가장 좋았냐는 질문을 받고 합니다. 첫 여행 기사 장소였던 강원도 철원의 한탄강 물윗길, 봄바람 살랑 불어오던 경북 영주 무섬마을... 끝도 없이 찍고 싶어집니다. 어찌 한 곳만 고를 수 있을까요. 이번 취재에서도 할 말을 잃게 하는 장소를 만났어요. 바로 충북 충주호입니다. '맛집 탐방' 취재차 방문했는데, 이렇게 예쁜 풍경이라니! 반칙이라 생각하며 휴대전화를 꺼내 촬영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장소를 독자님께 소개하겠지요? 이번 여정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 늘 든든한 신규철 실장님, 덕분에 멋진 충주호 사진 찍었어요! 감사합니다. 보고 계시죠? **남혜림**



Puzzle 118쪽 '퍼즐' 정답



2023 힐링 & 폴링 수원화성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2023. 10. 8(일) ~ 10. 9(월)

제60회 수원화성문화제
2023. 10. 7(토) ~ 10. 9(월)

세계유산축전 수원화성
2023. 9. 23(토) ~ 10. 14(토)

수원화성 미디어아트
2023. 10. 6(금) ~ 11. 4(토)

2023 Healing & Falling Suwon Hwaseong
2023.9.23(토)-11.4(토)
행궁광장 및 수원화성 일원